

Collaboration

프로야구, 가치를 재발견하다

- 야구단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
 - 계열사지원금의 적정 시장가치 평가, 중계권료/타이틀스폰서 수익 증가, 구장의 현대화/대형화 등 야구단 가치에 대한 재평가 필요
 - 모기업 지원 없이 성공한 넥센히어로즈의 사례는 프로야구의 상업적 성공이 임박했음을 의미
- 2015 프로야구 순위예측: 1위 삼성!, 플레이오프 진출은 SK/두산/LG/넥센까지
 - 리서치센터 본연의 기능인 실적추정 역량 활용. 업계 최초로 한국프로야구를 수치적으로 분석
 - 피타고리안 승률에 의거한 팀별 득실점 추정 및 순위 전망
- Top Pick: 엔씨소프트(036570,KS)
 - 유난히 저평가되어있는 야구단 가치의 재평가가 필요
 -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본업과의 시너지 창출 목적으로 인터넷/게임사들의 야구단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
 - 모바일게임 진출로 야구단 보유에 따른 시너지 또한 본격화될 것



인터넷/게임 정호운
Tel. 02)368-6143
junghy@eugenefn.com



기계/조선 이상우
Tel. 02)368-6874
tinycare@eugenefn.com

축기 2015 프로야구 개막



Glossary

용어	정의
RC(Runs Created)	타자 1명이 득점을 생산하는데 기여한 정도
RC27(Runs Created 27)	타자 1명이 27Out(한경기) 동안 생산 가능한 이론적 총 득점
OPS(On base percentage plus slugging percentage)	출루율과 장타율의 총합, 타자의 팀 기여도를 측정하는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
OBP(On base percentage, 출루율)	타자가 얼마나 1루로 출루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
SLG(Slugging Average, 장타율)	타수당 기대 가능한 진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BA(Batting Average, 타율)	타격 성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IsOP(Isolated Power, 절대장타율)	순수한 장타(2루타 이상)을 칠 수 있는 능력, 장타율-타율로 측정
RISP(Runners In Scoring Position)	주자가 득점권(2루 or 3루)에 있는 상황
ERA(Earned Run Average, 방어율)	9이닝 기준으로 투수가 허용한 자책점 수치
QS(Quality Start)	선발투수가 6이닝 이상을 3자책점 이하로 막아내는 경우
WHIP(Walks plus hits divided by Innings pitched)	이닝당 출루 허용률, 투수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
블론세이브(Blown Save)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한 투수가 동점 혹은 역전을 허용했을 때 기록
OBP(On base percentage)	타자가 얼마나 1루로 출루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Summary

한국 프로야구: 10구단 체제 확립하며 700만 관중시대로 진입

- 한국 프로야구는 2015년, 10구단 체제를 맞이했다. 1982년 6개구단으로 시작한지 33년만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등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2013년 한국 프로야구시장은 약 3천억원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성장은 수도권, 영남권의 주요 구단들의 실적개선에 달려있다. 서울지역 3팀(LG, 두산, 히어로즈)과 수도권(SK, KT), 영남권 2팀(롯데, NC)의 관중동원력에 전체 프로야구 흥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급감한 롯데 관중때문에, 2012년 700만명 관중동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 팀별 관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즉, 언제나 700만명 관중동원은 가능한 상황이다.

야구단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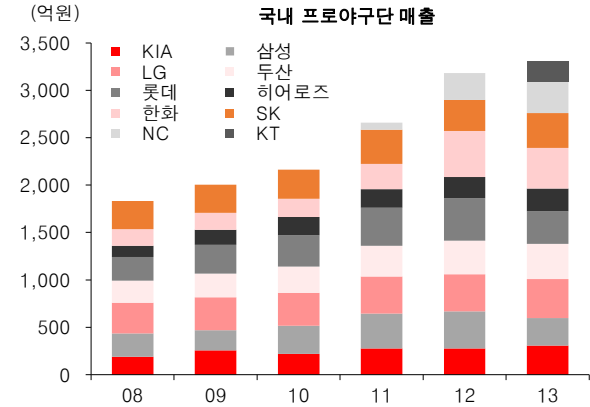
- 계열사 지원금:** 한국 프로야구에 관한 기본적 시각은, 대기업 주요 계열사가 비용을 부담해 의미 없는 사업을 사회사업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사업수익(대부분 광고수익)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판단된다. 히어로즈의 2013년 사업수익은 약 123억원으로 타구단 평균대비 57.8% 수준이었다. 1)수도권, 2)호성적을 근거로 약 160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은 시장가치로 봐도 무방하다. 현재의 계열사 지원금은 시장가치에 의거한 적절한 광고비지출이지, 의미없는 금액 지출이 아니다.
- 중계권료:** 2008년 이후 KBO는 중계권료를 각 구단에 배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약 300억원 수준이던 중계권료는 10구단 체제를 맞이하는 2015년 약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중파 뿐 아니라, CATV/뉴미디어(인터넷포탈) 등 중계사업 구성 자체가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계권료 인상은 한국 프로야구가 충분한 콘텐츠로써의 매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 타이틀스폰서:**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 비용은 2009년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프로야구 인기가 2009년 이후 높아지면서, 광고효과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야쿠르트에 65억원의 스폰서 비용을 지출했으며, 광고효과는 1,160억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타이틀 스폰서 역시 단순 비용지원 의미가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 구장의 현대화/대형화:** 최근, 지자체들과 구단이 의기투합, 신구장 프로젝트들을 속속 성사시키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구장 현대화/대형화는 1)내장 관중증가 뿐 아니라, 2)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객단가 상승요인이기 때문이다.
- 히어로즈프로야구단:**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실적개선은 한국 프로야구의 진정한 상업적 성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모기업 지원없이, 쇼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룩한 성과기 때문이다. 성적상승을 통한 실적개선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연속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장석 대표는 2018년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에 따라, 한국 프로야구의 상업적 접근 또한 가능하다.

Top Pick: 엔씨소프트(036570.KS) (STRONG BUY, TP: 380,000원)

- 저평가된 국내 야구단 가치:** 미국 30개 구단의 총 가치는 약 350억 달러로 야구단의 가치가 크게 인정받고 있다. 국내와 미국에서 야구가 스포츠로써 갖는 위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프로야구단을 단순히 돈먹는 하마 라고 격하시켜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 일본에서는 인터넷/게임사들의 야구단 인수가 오래전부터 활성화:** 닌텐도는 1992년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를 인수하였으며, 소프트뱅크는 2004년 후쿠오카 다이에호크스를 인수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2012년 DeNA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를 인수하며 야구단 운영에 참여하였다. 이는 야구/게임이 모두 광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마케팅 및 잠재적 고객확보 측면에서 야구단 인수가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계산이 전제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모바일게임 진출로 야구단 보유 시너지 본격화 전망:** 유저풀이 온라인게임보다 넓고 다양한 모바일게임 사업으로 진출하며 야구단 보유에 따른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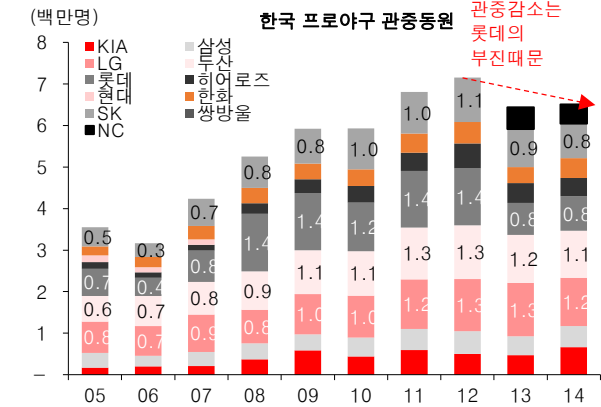
Key Charts

국내 프로야구, 이제 연 3,000억원대 매출을 기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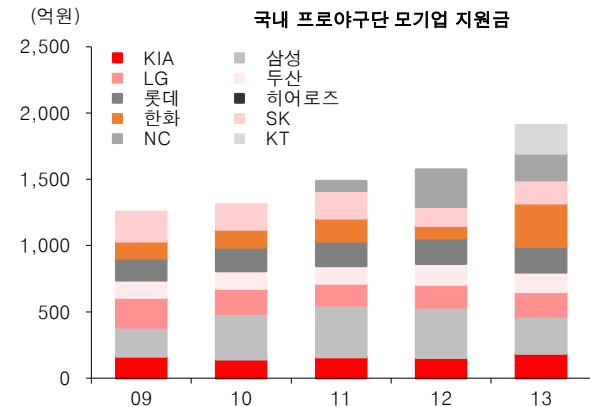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012년 이후 관중 감소는 롯데의 감소가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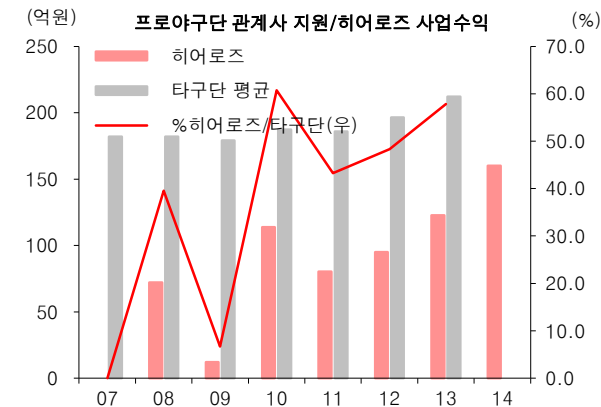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각 구단의 모기업지원금은 평균 연간 21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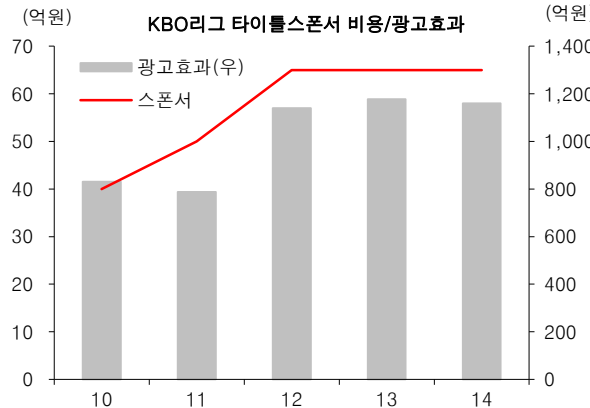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히어로즈의 사업수익은 현재 프로야구 광고시장 가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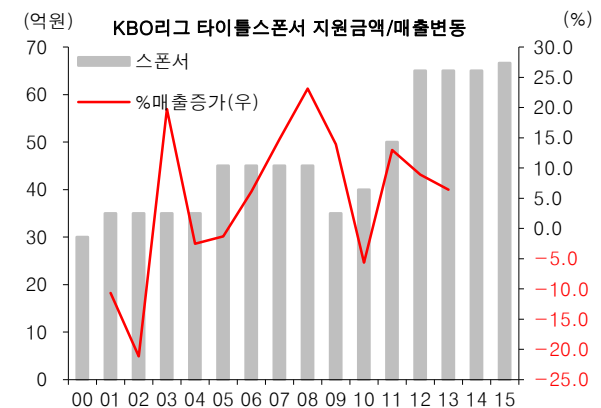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타이틀스폰서의 광고효과는 점점 증가 중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 매출증가와 밀접한 관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Contents

Summary	4
I. 한국 프로야구, 산업으로서 검토할 시기	8
1. 프로야구 시장: 어느덧 매출 3,000억, 관중 700만 시대	
2. 선수연봉: 해외 부럽지 않은 수준까지 상승	
3. 한국프로야구, 가치를 제대로 인식받기 시작	
4. 신구장: 현대화/대형화는 수익성 개선요인	
5.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새로운 기회제시	
II. 2015년 KBO 프로야구 예상순위	26
1. 삼성라이온즈: 2015년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2. SK 와이번스: 왕조의 부활이 기대됨	
3. 두산베어스: 강력한 타선과 선발, 그러나 빈약한 계투	
4. LG 트윈스: 더 이상 열릿기는 없다	
5. 넥센히어로즈: 강정호의 빈자리 & 여전히 빈약한 선발	
6. NC 다이노스: 용병 1인의 빈자리가 크지 않을까?	
7. 롯데자이언츠: 총체적 난국	
8. 기아타이거즈: 왕조의 재건은 언제쯤	
9. 한화이글스: 독수리의 비상은 언제쯤	
기업분석	125
엔씨소프트(036570.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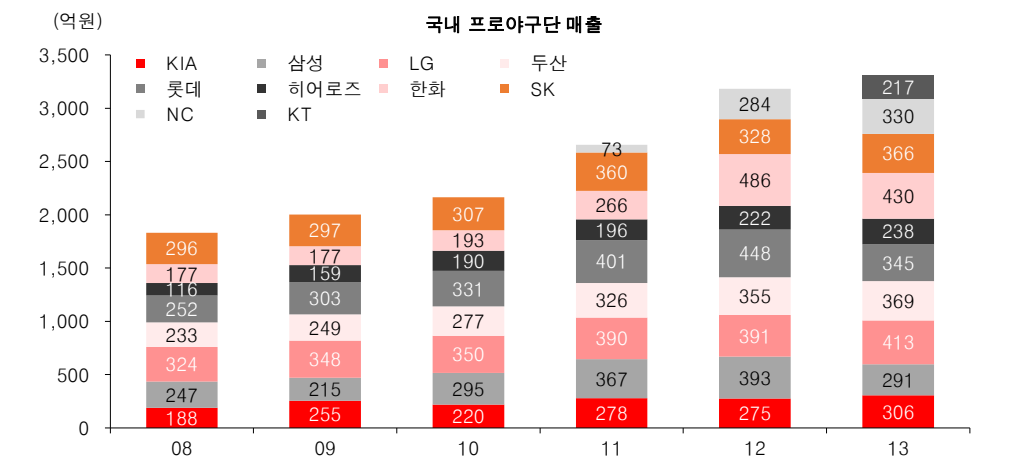


I. 한국 프로야구, 산업으로서 검토할 시기

1. 프로야구 시장: 어느덧 매출 3,000억원, 관중 700만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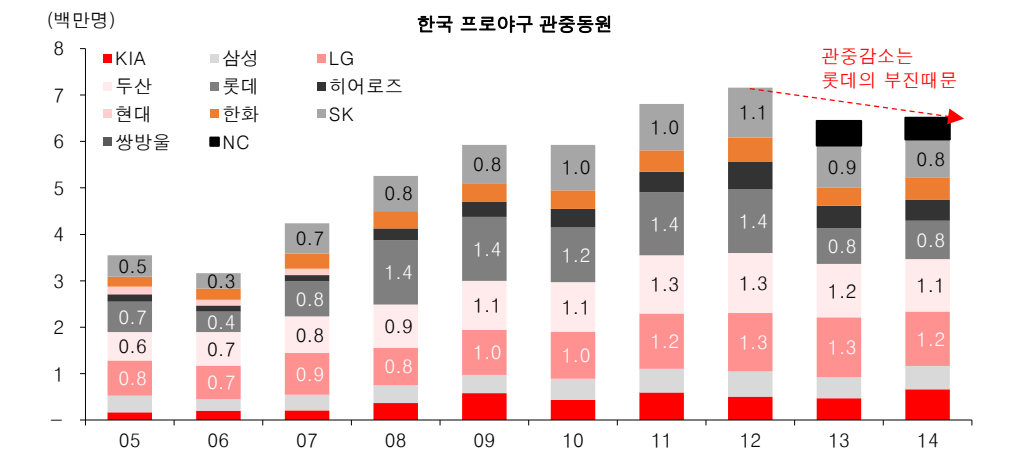
한국 프로야구는 2015년, 10구단 체제를 맞이했다. 1982년 6개구단으로 시작한지 33년만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등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2013년 한국 프로야구시장은 약 3천억원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성장은 수도권, 영남권의 주요 구단들의 실적개선에 달려있는데 이는 서울지역 3팀(LG, 두산, 히어로즈)과 수도권(SK, KT), 영남권 2팀(롯데, NC)의 관중동원력에 전체 프로야구 흥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급감한 롯데 관중때문에, 2012년 700만명 관중동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 팀별 관중은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다. 즉, 언제나 700만명 관중동원은 가능한 상황이다.

도표 1 국내 프로야구, 이제 연 3,000억원대 매출을 기록중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 2012년 이후 관중 감소는 롯데의 감소가 주요 요인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팀별 관중동원 변화는 결국 순위에 달려있다. 순위에 관계없이 꾸준한 관중동원이 가능하다면 무엇보다 긍정적이겠지만, 아쉽게도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동원에 순위가 절대적 요인을 차지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되었던 LG의 관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2012년부터 롯데의 순위하락은 관중동원 감소로 연결되고 있다. 즉, 좋은 성적이 많은 관중동원이 가능하다는 점은 변함없다.

도표 3 프로야구 순위: 꾸준한 성적을 기록하는 팀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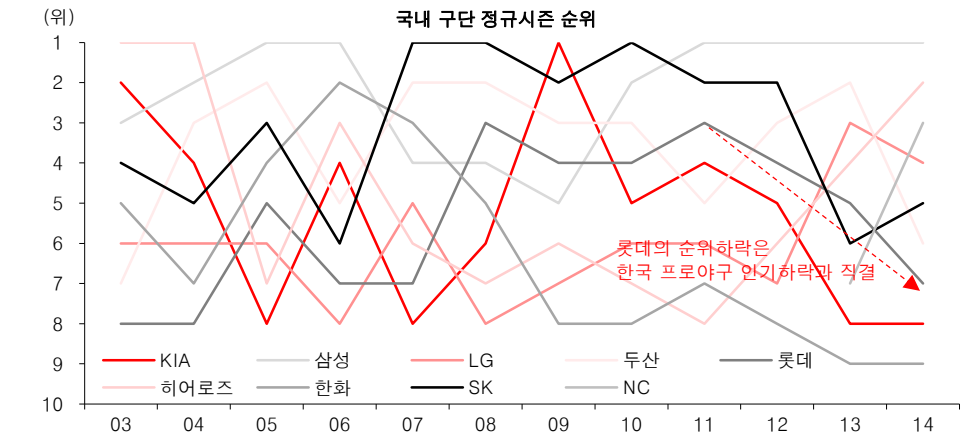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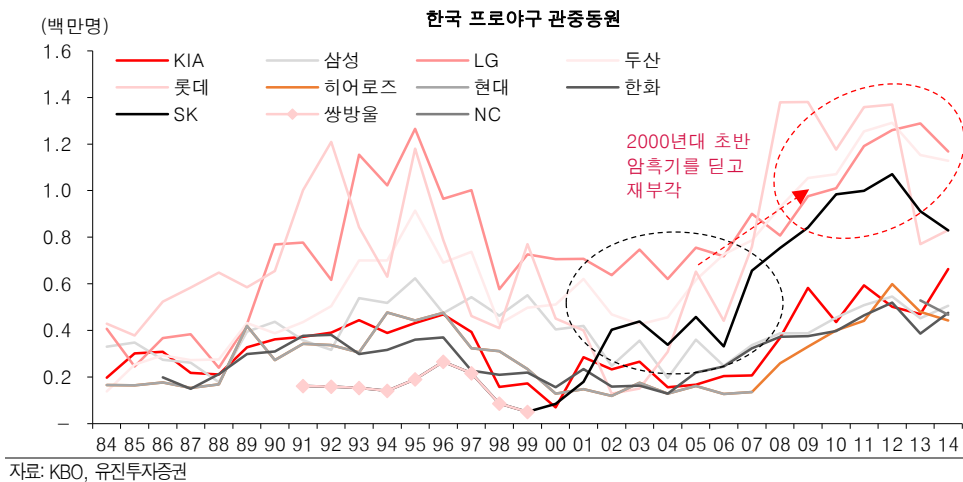


도표 4 2002년 월드컵 이후 부진했던 프로야구 인기가 2008년 이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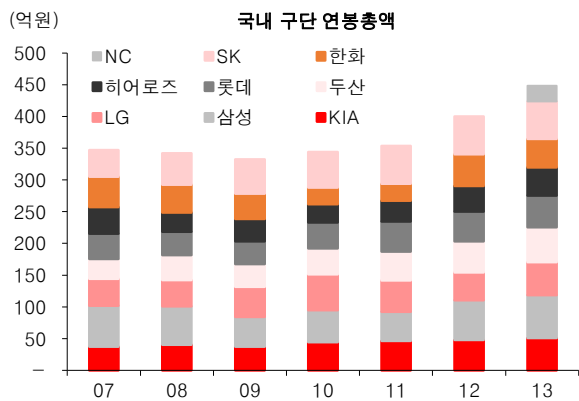




2. 선수연봉: 해외 부럽지 않은 수준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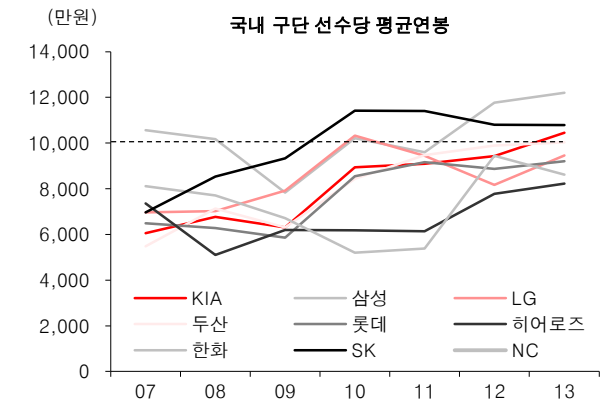
국내 프로야구 연봉은 2013년 평균 1억원선까지 상승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 SK, KIA 등 명문구단들의 연봉수준이 꾸준히 상승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프로야구단 전체 연봉은 2013년 450억원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인건비는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으며 또한 관중 1명당, 1승당 지불해야 하는 연봉 또한 증가중이다. 프로야구 인기가 상승하면서 선수연봉 또한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야구 수익성 개선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도표 5 프로야구단 연봉총액은 이제 450억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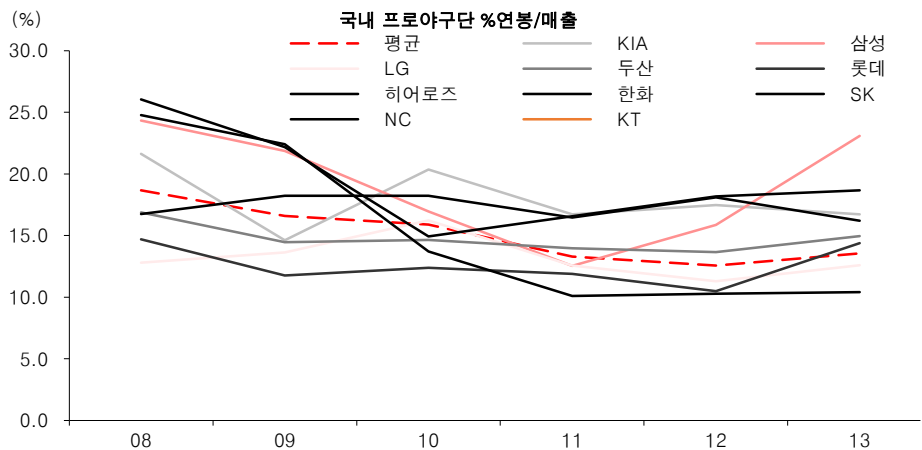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6 선수당 평균연봉은 이제 1억원에 육박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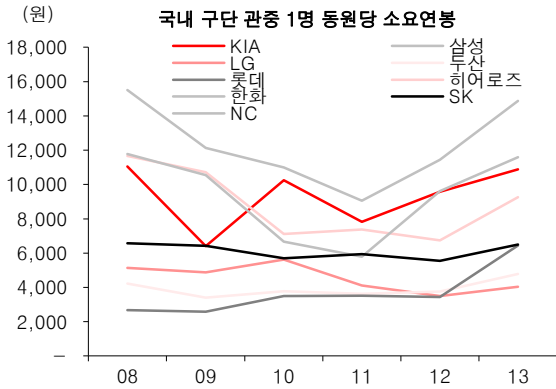
도표 7 프로야구단 매출대비 연봉은 15% 수준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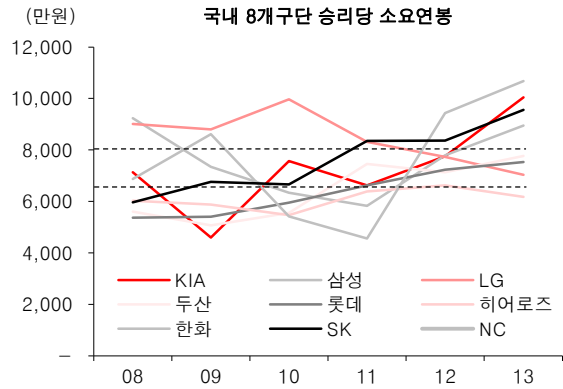


도표 8 관중 1명당 소요연봉은 이제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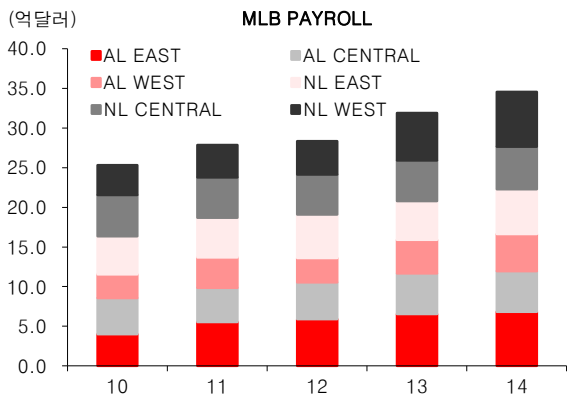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9 승리당 필요연봉은 7,500만원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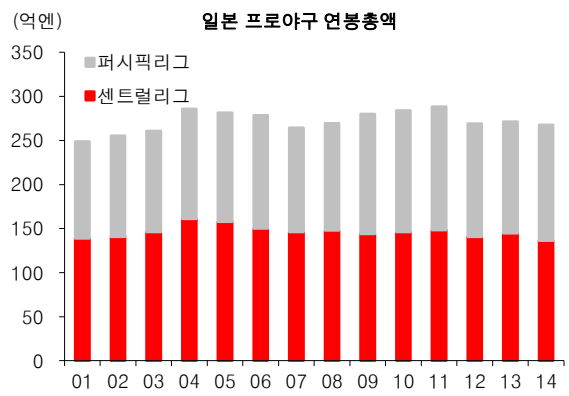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0 메이저리그는 NL 서부지역 위주로 대폭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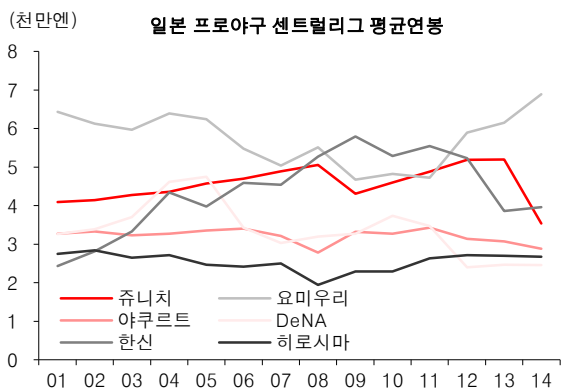
자료: ESPN, 유진투자증권

도표 11 일본 프로야구 연봉수준은 점차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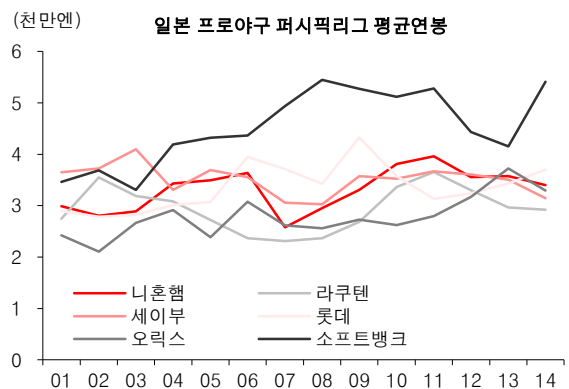
자료: NPB, 유진투자증권

도표 12 요미우리, 히로시마 등 성적개선팀의 연봉증가



자료: NPB, 유진투자증권

도표 13 소프트뱅크, 오릭스 등 성적개선팀 연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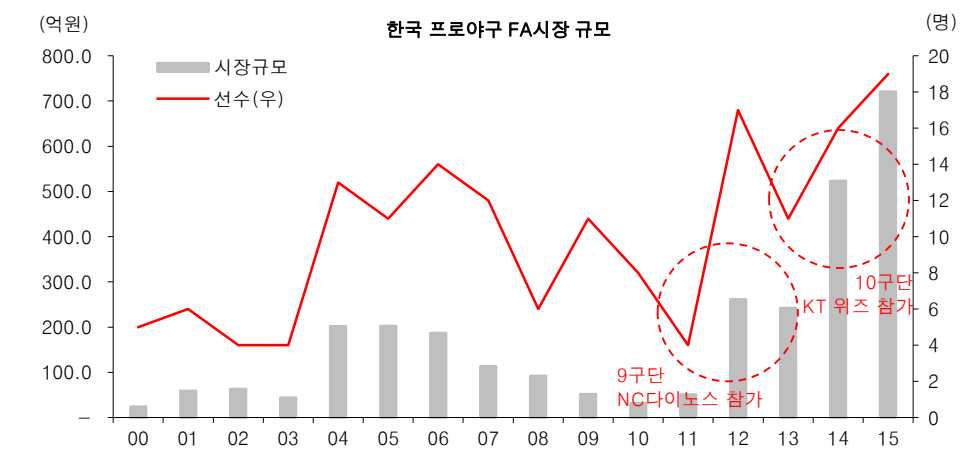


자료: NPB, 유진투자증권



프로야구 연봉인상은 단지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일본 프로야구도 전통의 명문인 요미우리를 비롯, 소프트뱅크 등 최근 성적이 좋았던 구단들의 연봉은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메이저리그 역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를 중심으로 연봉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성적을 내기 위한 상위권 구단들의 연봉지출이 점차 확대될 수 밖에 없는 점은 한국이나 해외나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프로야구 FA시장 역시 2012/2014 9, 10구단 창단이 결정된 이후 급성장했으며, 해외파 U-Turn까지 더해지면서 그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만큼 선수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수급불균형 상황이 최근 FA시장의 급성장을 불러온 점은 분명하다.

도표 14 FA시장, 어느새 700억원까지 확대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15 해외파 U-Turn은 FA시장 급성장에 크게 기여



자료: MBC,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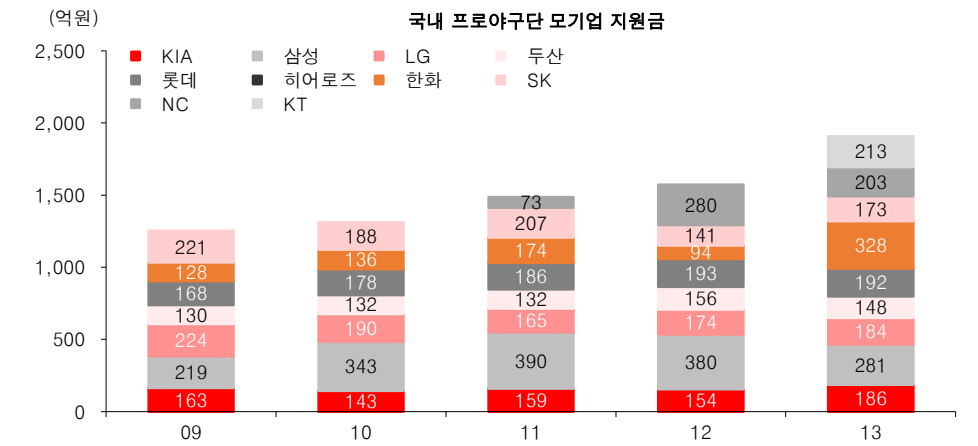


3. 한국프로야구, 가치를 제대로 인식받기 시작

1) 모기업지원금, 이미 시장가치를 반영한 지극히 적절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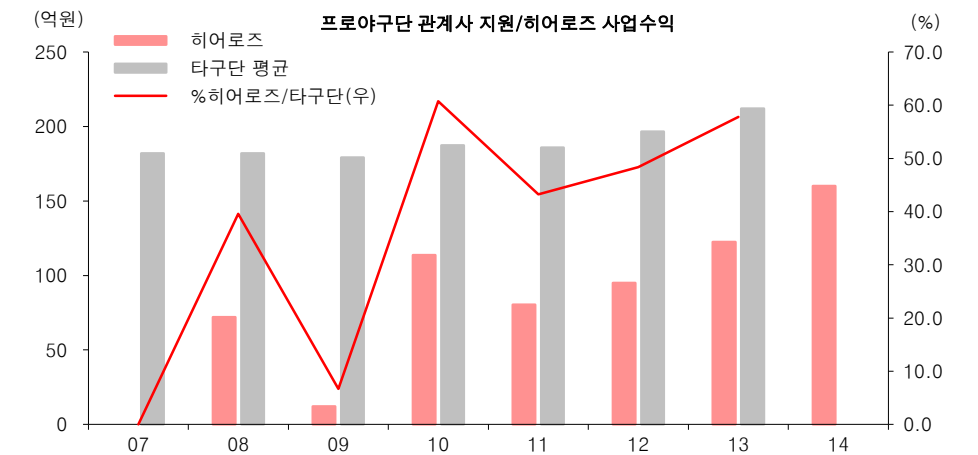
한국 프로야구에 관한 기본적 시각은 대기업 주요 계열사가 비용을 부담해 의미 없는 사업을 사회사업 관점에서 진행한다고 인식된다는 점이다. 이는 1982년 프로야구 창설 자체가 경제논리보다는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여전히 각 기업들의 수익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당사는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사업수익(대부분 광고수익)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판단된다. 히어로즈의 2013년 사업수익은 약 123억원으로 타구단 평균대비 57.8% 수준이었다. 관계사 지원 없이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23억원 수준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2014년은 2위라는 호성적을 바탕으로 사업수익이 약 160억원까지 증가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수도권, 2)호성적을 근거로 약 160억원 이상의 광고수익은 시장가치로 봐도 무방하다. **현재의 계열사 지원금은 시장가치에 의거한 적절한 광고비지출이지, 의미없는 금액 지출이 아니다.**

도표 16 각 구단의 모기업지원금은 평균 연간 210억원 수준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사업수익 규모는 현재 프로야구 광고시장 가치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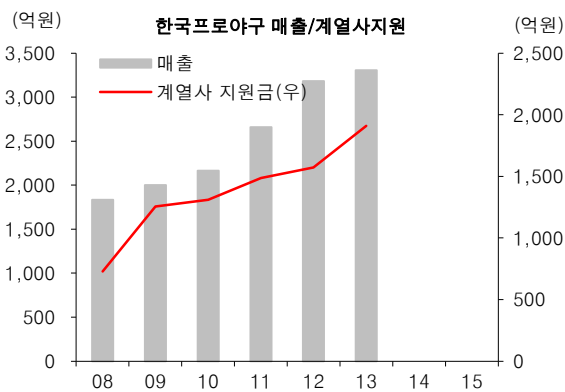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2) 중계권료: 연간 500억원 시장 맞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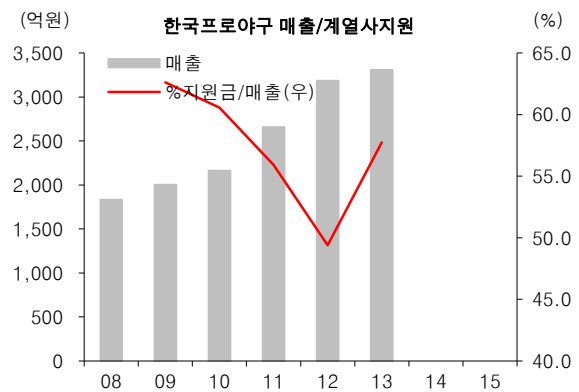
광고비 뿐 아니라, 중계권료도 빠르게 증가 중이다. 2008년 이후 KBO는 중계권료를 각 구단에 배분하고 있다. 2013년까지 약 300억원 수준이던 중계권료는 10구단 체제를 맞이하는 2015년 약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공중파 뿐 아니라, CATV/뉴미디어(인터넷포털) 등 중계사업 구성 자체가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중계권료 인상은 한국 프로야구가 충분한 컨텐츠로서의 매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경쟁 프로스포츠인 축구, 농구, 배구 등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도표 18 계열사 지원금은 매출의 57%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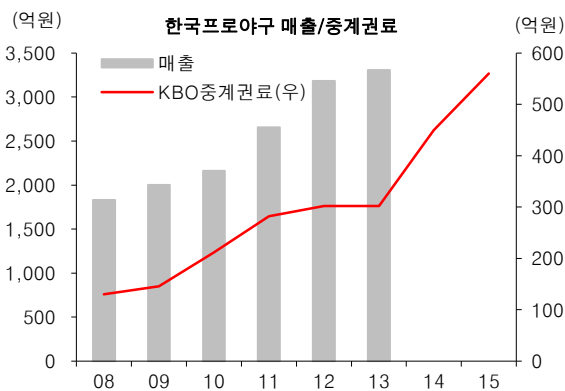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19 매출증가만큼 지원금 규모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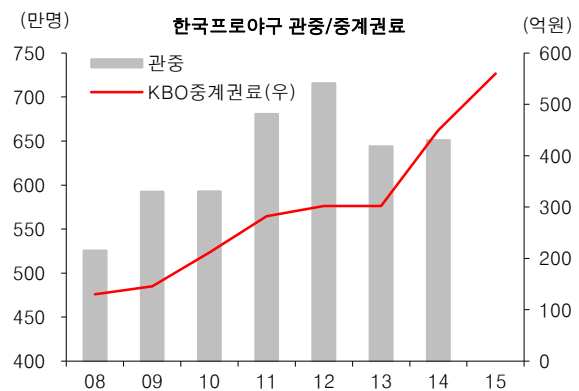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20 한국 프로야구 중계권료 500억원 시대를 맞이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1 관중증가와 중계권료 증가는 동행할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타이틀스폰서: 경제적으로도 충분한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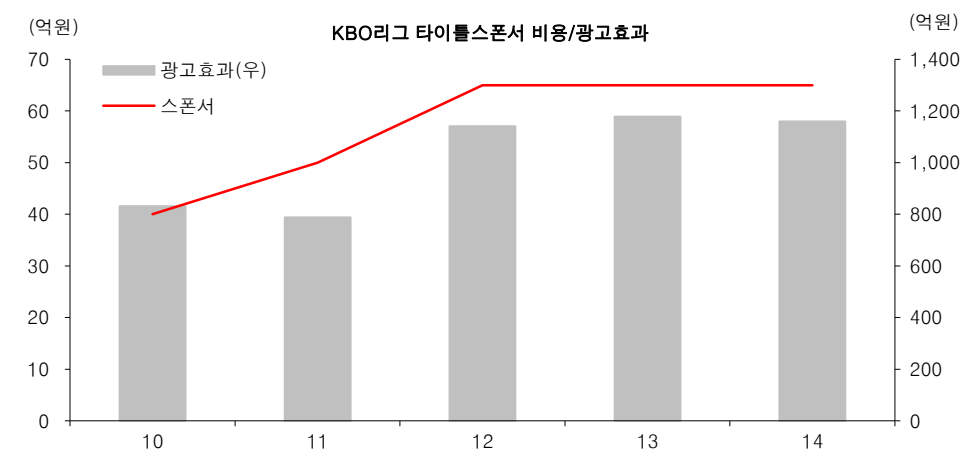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는 그동안 삼성그룹이 독차지해왔다. 2000년부터 삼성증권/삼성전자가 9년간 스폰서로 선정되며 연간 30~45억원 가량을 지불해왔다. 하지만 구단을 보유하지 않은 업체들이 타이틀스폰서로 선정된 것은 2009년 이후의 일이다. 이때부터 타이틀스폰서 가격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1(롯데카드), 2012~2014(한국야쿠르트)가 선정된 이후 스폰서 금액은 약 65억원까지 상승했다. 프로야구 인기가 2009년 이후 높아지면서, 광고효과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14년 한국야쿠르트는 65억원의 스폰서 비용을 지출했으며, 광고효과는 1,160억원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는 등, 타이틀 스폰서 역시 단순 비용지원 의미가 아니라 경제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도표 22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 광고효과만으로도 충분한 투자금 회수

연도	타이틀스폰서	대회명	(억원) 스폰서	(억원) 광고효과	%매출증가(우)
2000	삼성증권	삼성fn.com배 프로야구	30		
2001	삼성증권	삼성fn.com배 프로야구	35		-10.7
2002	삼성증권	삼성증권배 프로야구	35		-21.2
2003	삼성증권	삼성증권배 프로야구	35		19.7
2004	삼성증권	삼성증권배 프로야구	35		-2.5
2005	삼성전자	삼성PAV배 프로야구	45		-1.3
2006	삼성전자	삼성PAV배 프로야구	45		6.1
2007	삼성전자	삼성PAV배 프로야구	45		14.8
2008	삼성전자	삼성PAV배 프로야구	45		23.1
2009	CJ인터넷	CJ마구마구 프로야구	35		13.9
2010	CJ인터넷	CJ마구마구 프로야구	40	831	-5.6
2011	롯데카드	롯데카드 프로야구	50	788	13.0
2012	팔도	팔도 프로야구	65	1,140	8.9
2013	한국야쿠르트	7even 프로야구	65	1,178	6.4
2014	한국야쿠르트	7even 프로야구	65	1,160	
2015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 프로야구	67		
2016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 프로야구	67		
2017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 프로야구	67		

자료: SMS리서치, 유진투자증권

도표 23 타이틀스폰서의 광고효과는 점점 증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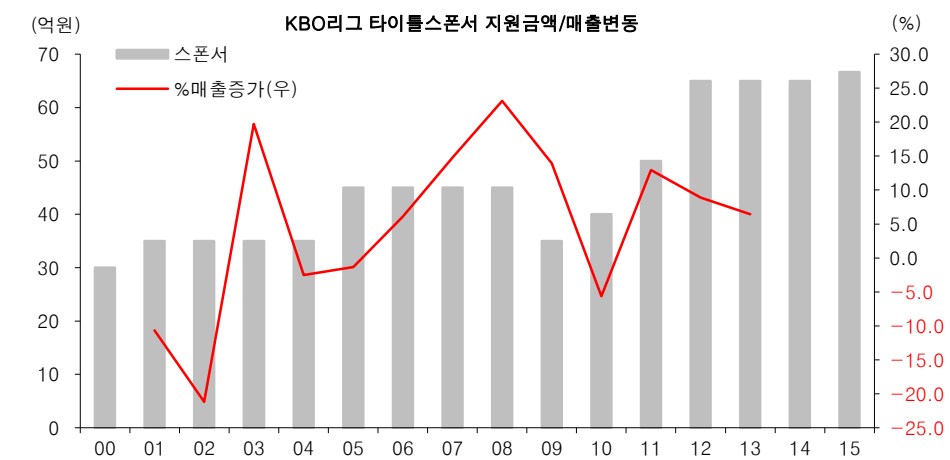


자료: SMS리서치, 유진투자증권



2015년 한국 프로야구(KBO)리그 메인 타이틀스폰서는 타이어뱅크로 선정되었다. 대전 기반의 중소 유통업체가 KBO리그 메인 타이틀스폰서가 된 것은 최초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독차지였던 타이틀스폰서 시장에 타이어뱅크가 연 67억원 수준의 비용을 집행하게 된 계기 역시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가 갖는 매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야구 시즌(3~11월) 동안 프라임타임에 자사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점은, 단순 광고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또한, **타이틀 스폰서 기업들은 스폰서 기간동안 매출증가가 있었음을 과거 사례로서 확인되기 때문에**, 향후 타이틀스폰서가 되기 위한 노력 역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24 한국 프로야구 타이틀스폰서, 매출증가와 밀접한 관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5 KBO 타이틀스폰서는 프라임타임 메이저언론 노출빈도로서는 최고수준



자료: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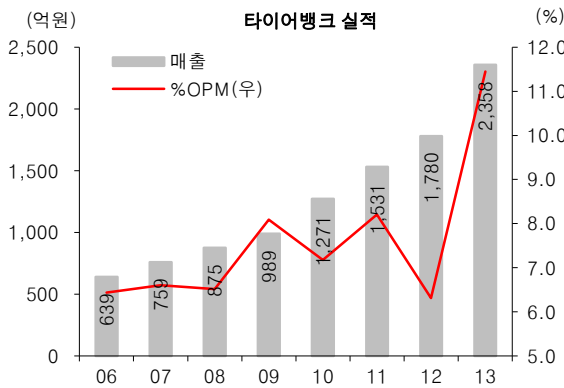


도표 26 타이어뱅크, 2015년부터 3년간 KBO 타이틀 스폰서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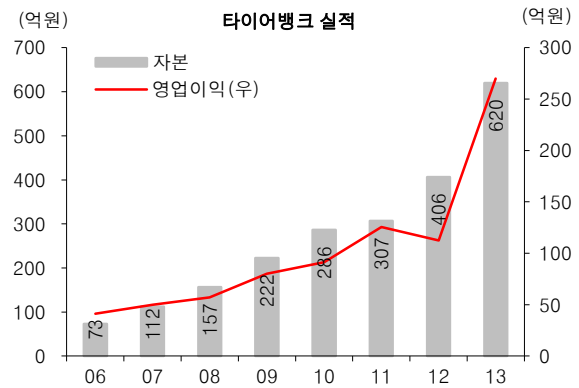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7 타이어뱅크, 현재까지의 고성장추세 유지



자료: 타이어뱅크, 유진투자증권

도표 28 영업이익 및 자본증가세 뚜렷



자료: 타이어뱅크, 유진투자증권



4) 해외진출 선수 이적료: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 재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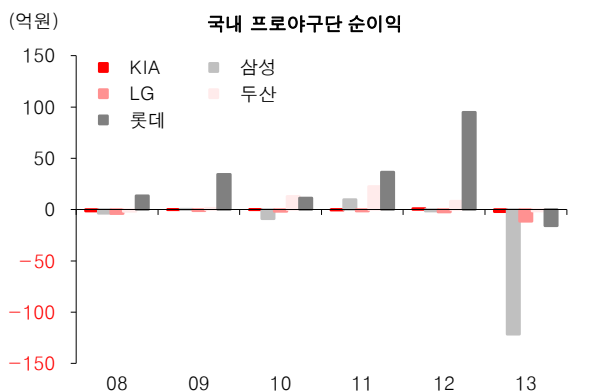
한국 프로야구는 늘 비용만 발생한다는 인식을 해소시킨 것이 바로 2012년 류현진의 LA다저스 이적이었다. 한국 프로야구 규정상 9년 이상 활동 후 FA로 이적하는 것 외에는 구단동의 하에 해외진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한국 선수가 100만달러 이상의 이적료(포스팅입찰료)를 제시받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류현진은 2,574만달러의 포스팅비용을 발생시키며 2012년 한화구단의 70억 순이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했다. 단순히 류현진의 사례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넥센히어로즈의 강정호는 야수(특히 내야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직행을 성사시켰다. 포스팅비용은 500만달러로 1)특급투수가 아니더라도 한국 프로야구의 정상권 선수가 메이저리그 직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리고 2)어느 수준 이상의 이적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켰다. 즉, 한국 프로야구 구단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선수육성→주전활약→해외이적시 포스팅수의 발생 또한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도표 29 한국 프로야구 해외진출시 이적료(포스팅비용)

연도	선수	원구단	이적구단	(만달러) 이적료	결과
2001	구대성	한화	오릭스 블루웨이브	35	이적
2002	진필중	두산		3	실패
	임창용	삼성		65	실패
2008	최향남	롯데		0	실패
2012	류현진	한화	LA 다저스	2,574	이적
2013	오승환	삼성	한신 타이거즈	5	이적
2014	김광현	SK		200	실패
	양현종	KIA		150(언론추정)	실패
2015	강정호	넥센	피츠버그 파이리츠	500	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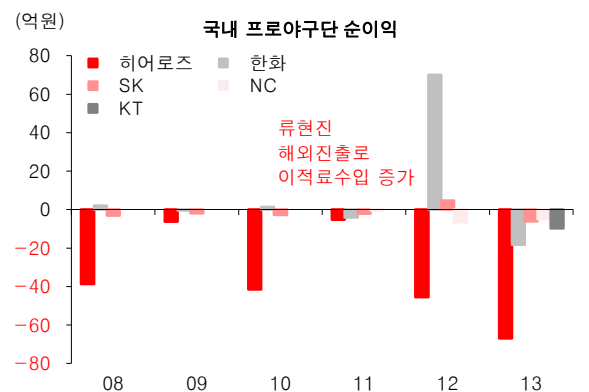
주: 2008년 최향남의 경우는 포스팅비용으로 101달러 제시받음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0 대부분 팀들은 순손실 기록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31 한화이글스는 2012년 70억의 순이익 기록



자료: 각 사, 유진투자증권



도표 32 2012년 류현진, 한국 프로야구에 거액 이적료라는 개념을 선물하다



자료: LA DODGERS

도표 33 2015년 강정호, 야수 최초 메이저리그 직행을 성사시킴



자료: 유진투자증권



4. 신구장: 현대화/대형화는 수익성 개선요인

한국 프로야구의 문제 중 하나는 야구 인프라가 지극히 낙후되었다는 점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통해 축구 인프라는 글로벌 수준으로 비약적으로 개선된 반면, 야구 인프라는 낙후된 상황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승엽의 아시아 홈런신기록(56홈런, 2003년)등 야구 인기 개선을 위한 이벤트때에도, 대구구장은 1948년 완공된 그 상태였다. 최근, 지자체들과 구단이 의기투합, 신구장 프로젝트들을 속속 성사시키고 있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구장 현대화/대형화는 1)내장 관중증가 뿐 아니라, 2)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한 객단가 상승요인이기 때문이다.

도표 34 국내 프로야구 주요 구장규격

구단	구장명칭	소유	개장	수용인원(명)	잔디	좌우(m)	중양(m)	펜스(m)	(억원) 건축비	
1군	롯데자이언츠	시직야구장	부산시	1985	28,500	천연잔디	95	118	4.8	
		울산야구장	울산시	2015	12,000				300	
	SK와이번스	문학야구장	인천시	2002	27,600	천연잔디	95	120	2.5	601
	두산베어스	잠실야구장	서울시	1982	27,000	천연잔디	100	125	2.6	126
	LG트윈스	잠실야구장	서울시	1982	27,000	천연잔디	100	125	2.6	126
		잠실 신축계획	서울시		45,000					2,000
	기아타이거즈	기아챔피언스필드	광주시	2014	27,000	천연잔디	99	121	3.4	994
		군산 월명종합운동장 야구장	군산시	1989	11,000	인조잔디	98	122	2.3	
	넥센히어로즈	목동야구장	서울시	1989	18,000	인조잔디(필드터프)	98	118	2.2	79
		고척돔(?)	서울시	2016	22,258		99	122	3.4	2,023
	한화이글스	한밭야구장	대전시	1964	14,133	인조잔디(필드터프)	98	114	2.5	126
		청주야구장	청주시	1979	7,500	천연잔디	100	110	2.5	42
	삼성라이온즈	대구 시민운동장 야구장	대구시	1948	10,000	인조잔디(필드터프)	99	120	2.5	
		대구 신구장	대구시	2016	24,000					1,620
포항야구장		포항시	2012	11,247		99	122	3.0	320	
NC다이노스	마산야구장	마산시	1982	20,000	인조잔디	96	116	2.3		
	창원야구장(?)	창원시		30,000					1,280	
2군	LG트윈스	챔피언스파크		1990			100	120		
	두산베어스	베어스필드		2005			90	120		
	SK와이번스	송도LNG야구장			18,000					
		강화도 전용연습구장								
	넥센히어로즈	강진 베이스볼파크		2009	250		90	120		
	삼성라이온즈	경산 라이온즈볼파크		1990			98	125		
	한화이글스	서산야구장		2012						
	롯데자이언츠	상동야구장		2002			97	120	250	
	KIA타이거즈	함평 전남야구장		2012			100	120		
	NC다이노스	다이노스 베이스볼파크		2013						
	상무피닉스	문경 상무야구장								
	경찰야구단	고양 경찰야구단 야구장								

주: 음영은 신구장을 의미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5 **광주 KIA 챔피언스필드(좌측), 지자체-구단 합작 프로젝트**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6 **대구 신축야구장, 2016년 개장예정**



자료: 유진투자증권



또한 한화는 대전시와 공동으로 대전구장의 공식명칭에 '네이밍라이트'도입을 추진중이다. 해외구단들은 이미 구장명에 스폰서를 도입, 연간 5백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뉴욕메츠는 신구장 건립과 함께 대형 네이밍라이트 계약을 성사시킨바있다. 한국 프로야구는 구장 소유권이 구단이 아닌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없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힘들지만, 최근 대전시는 한화이글스와 구장 네이밍라이트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에서도 충분히 네이밍라이트의 가능성을 기대해볼만 하다.

도표 37 **구장 Naming Right, 이제 한국에도 도입될 때가 되었다**

스포츠	구단	구장명	(연)	종료	(백만달러)	(백만달러/연)	
			계약기간		금액	평균금액	
MLB	ARIZONA DIAMONDBACKS	CHASE FIELD	30	2028	66.0	2.2	
	ATLANTA BRAVES	TURNER FIELD->SUN TRUST PARK	25	2041	250.0	10.0	
	CHICAGO WHITESOX	U.S. CELLULAR FIELD	23	2026	68.0	3.0	
	CINCINNATI REDS	GREAT AMERICAN BALL PARK	30	2033	75.0	2.5	
	CLEVELAND INDIANS	JACOBS FIELD	20	2014	13.9	0.7	
	COLORADO ROCKIES	COORS FIELD			15.0		
	DETROIT TIGERS	COMERICA PARK	30	2030	66.0	2.2	
	FLORIDA MARLINS	PRO PLAYER STADIUM	10	2006	20.0	2.0	
	HOUSTON ASTROS	MINUTE MAID PARK	28	2028	178.0	6.4	
	LA ANGELS	EDISON INTERNATIONAL FIELD	20	2018	50.0	2.5	
	MILWAUKEE BREWERS	MILLER PARK	20	2020	41.0	2.1	
	MINNESOTA TWINS	TARGET FIELD	25	2033	125.0	5.0	
	NEWYORK METS	CITI FIELD	20	2029	400.0	20.0	
	OAKLAND ATHLETICS	O.CO. COLISEUM	6	2016	7.2	1.2	
	PHILADELPHIA PHILLIES	CITIZENS BANK PARK	25	2029	57.5	2.3	
	PITTSBURGH PIRATES	PNC PARK	20	2020	30.0	1.5	
	SAN DIEGO PADRES	PETCO PARK	22	2026	60.0	2.7	
	SAN FRANCISCO GIANTS	AT&T PARKS	24	2024	50.0	2.1	
	SEATTLE MARINERS	SAFECO FIELD	20	2019	40.0	2.0	
	TAMPA BAY RAYS	TROPICANA FIELD	30	2026	46.0	1.5	
	TEXAS RANGERS	GLOBE LIFE PARK	10	2023	50.0	5.0	
		BALTIMORE ORIOLES	CAMDEN YARDS				
		BOSTON REDSOXS	FENWAY PARK				
		CHICAGO CUBS	WRIGLEY FIELD				
		KANSASCITY ROYALS	KAUFFMAN STADIUM				
		LA DODGERS	DODGER STADIUM				
		NEWYORK YANKEES	YANKEE STADIUM				
		ST.LOUIS CARDINALS	BUSCH STADIUM				
	TORONTO BLUEJAYS	SKYDOME					
	WASHINGTON NATIONALS	NATIONALS PARK					
NBA	MIAMI HEATS	AMERICAN AIRLINES ARENA	20	2019	42.0	2.1	
	DALLAS MAVERICKS	AMERICAN AIRLINES CENTER	30	2031	195.0	6.5	
	ORLANDO MAGIC	AMWAY CENTER	30	2031	195.0	6.5	
	NEW JERSEY NETS	BARCLAYS CENTER	20	2027	400.0	20.0	
	MINNESOTA TIMBERWOLVES	TARGET CENTER	15		18.8	1.3	
	BOSTON CELTICS	TD GARDEN	20	2025	120.0	6.0	
	HOUSTON ROCKETS	TOYOTA CENTER	20	2023	100.0	5.0	
	PHEONIX SUNS	US AIRWAYS CENTER	30	2019	26.0	0.9	
	PHILADELPHIA 76ERS	WACHOVIA CENTER	21	2025	40.0	1.9	
NHL	SAN JOSE SHARKS	HP PAVILION	15	2016	47.0	3.1	
	COLUMBUS BLUE JACKETS	NATIONALWIDE ARENA			175.0		
	TAMPA BAY LIGHTNING	ST. PETE TIMES FORUM	12	2014	30.0	2.5	

자료: 유진투자증권



2016년부터 아마추어 전용구장으로 변경될 예정인 목동야구장을 비워야하는 히어로즈프로야구단의 경우, 현재 서울시와 고척돔 사용관련 협상 중이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고척돔의 운영에 관련되어 시설관리공단에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지역 경제활성화 등 프로구단에 상업적인 권한을 위양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고척돔의 활용방안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상황에서는 마땅한 이용방안이 없는 행정 분위의 결과물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도표 38 고척돔, 2015년 완공되는 국내 첫 돔구장



자료: 유진투자증권

도표 39 고척돔 활용방안은, 향후 한국프로야구의 발전속도를 좌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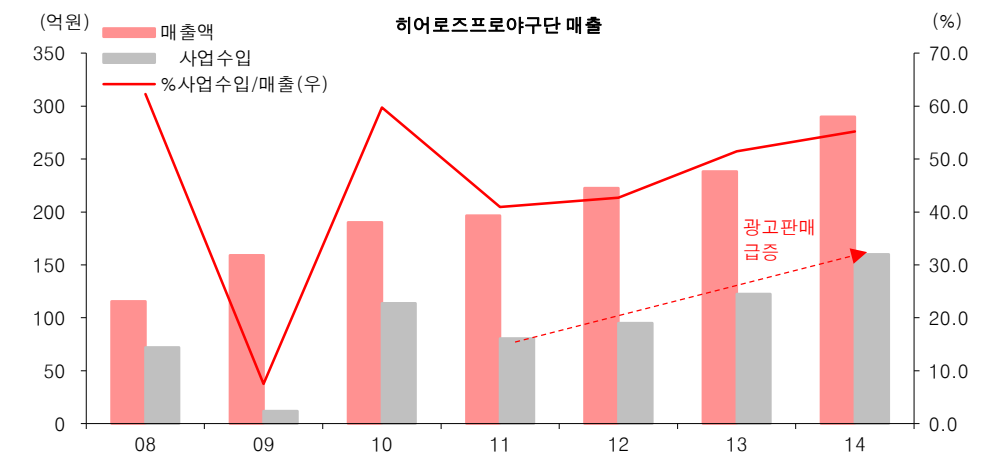
자료: MBC



5. 히어로즈의 사업수입 증가는 프로야구의 새로운 기회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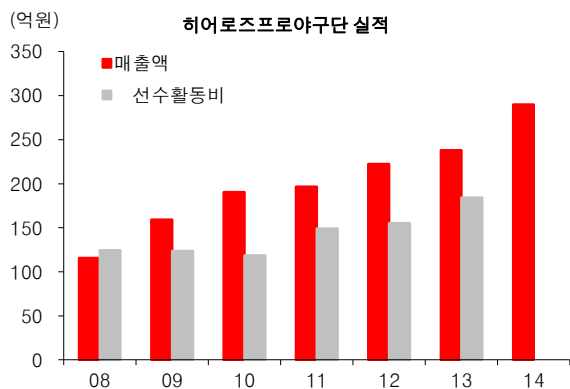
현 시점에서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의 실적개선은 한국 프로야구의 진정한 상업적 성공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모기업 지원없이 쇼비즈니스 차원에서 이룩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성적상승을 통한 실적개선은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연속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장석 대표는 2018년 흑자전환을 예상하고 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에 따라 한국 프로야구의 상업적 성공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40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진정한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프로야구단이 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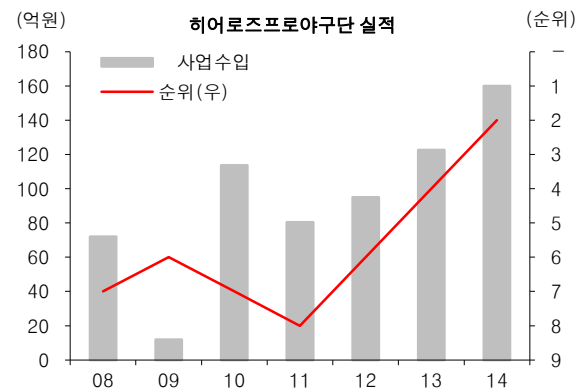
자료: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유진투자증권

도표 41 매출액은 2014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



자료: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유진투자증권

도표 42 2014년 순위는 2위로 마감



자료: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유진투자증권



도표 43 히어로즈프로야구단, 첫 한국시리즈 진출 (2014년)



자료: 연합뉴스

도표 44 히어로즈프로야구단의 상업적성공 시점은 언제일까?



자료: 허핑턴포스트



II. 2015년 KBO 프로야구 예상순위

프로야구 구단의 가치는 구단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특히 안정적인 고정팬들을 확보하지 못한 신생구단의 경우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관중동원력에 근거한 구단 가치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는 2015년 KBO 프로야구의 순위를 예상하여 보았다.

1. 순위예상

당사가 예측한 2015년 정규리그 우승팀은 삼성이다. 투/타 어디에서도 구멍을 찾아보기 힘든 삼성은 올해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전망된다. 2014년 4강진출팀이었던 넥센과 NC는 각각 강정호의 해외진출과 신생팀 advantage였던 용병 추가활용이 작년으로 종료됨에 따른 전력이탈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반적으로 투수력(특히 선발)이 안정화된 SK, 두산, LG가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며 롯데, 기아, 한화는 올해에도 부진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45 2015 KBO 프로야구 예상순위

순위	팀	2014년 순위	변화	결과						투수(방어율)			타자		
				승률	승	패	득점	실점	득실	전체	선발	계투	RC27	OPS	득타율
1	삼성라이온스	1	-	0.621	89	55	935	714	222	4.66	4.63	4.71	6.50	0.840	0.325
2	SK와이브스	5	+3	0.593	85	59	825	671	154	4.27	4.36	4.16	5.73	0.811	0.294
3	두산베어스	6	+3	0.561	81	63	862	754	108	4.90	4.80	5.03	5.98	0.812	0.297
4	LG트윈스	4	-	0.559	80	64	800	704	97	4.53	4.92	4.03	5.56	0.794	0.298
5	넥센히어로즈	2	-3	0.541	78	66	878	802	75	5.20	5.59	4.72	6.09	0.834	0.291
6	NC다이노스	3	-3	0.487	70	74	821	845	-24	5.47	4.80	6.30	5.70	0.785	0.309
7	롯데자이언츠	7	-	0.486	70	74	789	813	-24	5.24	4.90	5.67	5.48	0.792	0.264
8	기아타이거즈	8	-	0.479	69	75	790	827	-37	5.32	4.67	6.12	5.49	0.788	0.268
9	한화이글스	9	-	0.441	63	81	766	872	-107	5.58	5.64	5.50	5.32	0.798	0.280
10	KT위즈	-	-	0.235	34	110	547	1043	-496	6.84	7.13	6.48	3.80	0.662	0.233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주: RC27(득점생산력): 타자 1명이 1경기동안 생산가능한 총 득점 추정치
 OPS(On base percentage plus slugging percentage): 출루율 + 장타율
 득점권타율: 주자가 득점권(2루 이상)에 있을 시 타율



2. 추정 방법론

당사가 순위예측에 있어 사용한 수단은 피타고리안 승률이다. 피타고리안 승률은 각 팀의 득점과 실점을 기반으로 팀의 승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승률 = \frac{득점^{1.83}}{(득점^{1.83} + 실점^{1.83})}$ 으로 계산된다. 피타고리안 승률은 팀의 승률을 예상함에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공식으로 사후적으로 볼 경우, 피타고리안 승률과 실제 승률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

도표 46 2014년 KBO 순위

순위	팀	승	패	무	득점	실점	실제승률	피타고리안승률	실제승률-피타고리안승률
1	삼성라이온스	78	47	3	812	608	0.624	0.629	-0.005
2	넥센히어로즈	78	48	2	841	621	0.619	0.635	-0.016
3	NC다이노스	70	57	1	687	643	0.551	0.530	0.021
4	LG트윈스	62	64	2	735	719	0.492	0.510	-0.018
5	SK와이브스	61	65	2	662	716	0.484	0.464	0.020
6	두산베어스	59	68	1	716	733	0.465	0.489	-0.024
7	롯데자이언츠	58	69	1	619	760	0.457	0.407	0.050
8	KIA 타이거즈	54	74	0	737	788	0.422	0.469	-0.047
9	한화이글스	49	77	2	668	889	0.389	0.372	0.017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이를 위한 득점과 실점의 예상은 다음의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득점: RC27

- 실점: 선발 방어율 + 계투 방어율의 가중평균

2-1. 예상득점

득점은 출루와 진루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RC27은 타자의 여러 성적(안타, 홈런, 볼넷, 도루 등)을 이용하여 한명의 타자가 27out(한경기)를 치르는 동안 생산 가능한 총 득점을 측정하는 수치이다. 일례로 박병호의 2014년 RC27 수치는 11.2인데 이는 박병호로 1~9번 타자를 구성한다면 매 경기에서 11.2점의 득점을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예상득점의 측정을 위해 각 팀별로 1~9번타자 라인업을 설정한 후 각 타자의 2013년/2014년 성적의 평균을 이용하여 2015년 RC27을 측정하였고, 1~9번 타자 RC27의 평균으로 각 팀의 한 경기 평균 예상득점을 산출한 후 경기수(144경기)를 곱하여 시즌 총 예상득점을 계산하였다.

2-2. 예상실점

예상실점은 팀의 선발/계투진의 방어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 또한 기본적으로는 2013년/2014년 성적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이적 및 군입대 등 각 팀별로 방어율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반영하여 한경기 평균 실점을 계산한 후 경기수(144경기)를 곱하여 시즌 총 예상실점을 계산하였다.



3. 팀별 전력분석

팀별 전력분석은 2014년을 기준으로 타자는 상위/클린업/하위타선+수비력, 투수는 선발/계투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역시 전력분석을 보아도 삼성이 전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에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47 2014년 기준 팀별 전력 분석표

(2014기준, 순서는 2015년 예상순위 기준)		삼성	SK	두산	LG	넥센	NC	롯데	기아	한화	평균
선발	이닝	132.6	106.6	123.2	115.4	101.2	114.7	109.4	106.0	96.4	111.7
	방어율	4.59	4.88	5.67	4.87	5.53	4.48	5.30	5.92	6.24	5.27
	WHIP	1.41	1.50	1.58	1.39	1.65	1.51	1.56	1.67	1.82	1.56
계투	방어율	4.51	6.41	4.78	3.75	4.90	4.30	4.58	5.30	6.11	4.96
	WHIP	1.44	1.65	1.49	1.41	1.62	1.43	1.55	1.53	1.69	1.53
	블론세이브	18	15	14	21	12	19	14	21	11	16
상위타선	출루율	0.413	0.372	0.400	0.392	0.412	0.367	0.371	0.385	0.388	0.389
	도루	32	45	65	39	58	65	15	44	44	45
	희생번트	24	35	17	8	4	5	15	11	9	14
클린업	OPS	0.982	0.920	0.895	0.897	1.081	0.986	0.952	0.914	0.892	0.947
	득점권타율	0.327	0.369	0.299	0.308	0.327	0.340	0.314	0.290	0.298	0.319
	홈런	72	48	55	35	112	90	55	56	43	63
하위타선	타율	0.293	0.293	0.286	0.259	0.283	0.270	0.285	0.254	0.281	0.278
	홈런	41	30	30	26	26	33	37	30	26	31
수비력	비자책점	42	56	48	52	54	58	58	62	69	55
	실책	77	107	81	91	79	87	89	94	113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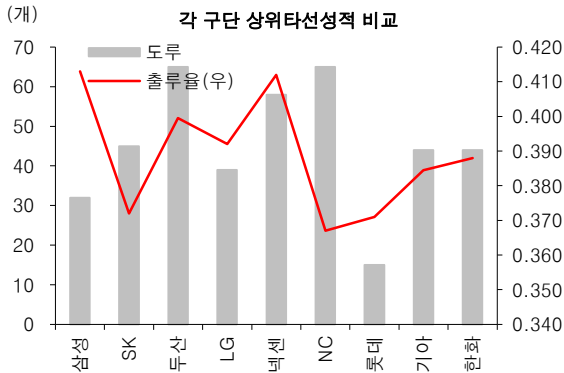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주: WHIP(Walks Plus Hits Divided by Innings Pitched): 이닝당 안타/볼넷 허용률

OPS(On base percentage plus Slugging percentage): 출루율 + 장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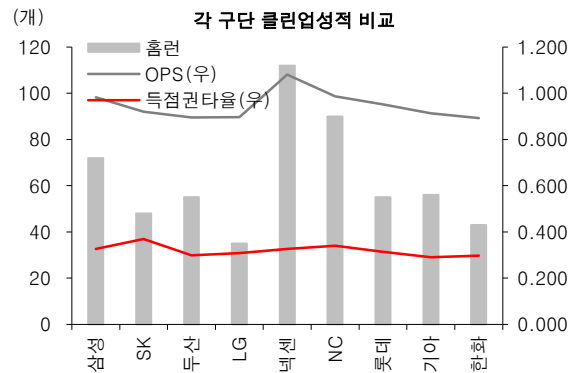


도표 48 상위타선: 삼성이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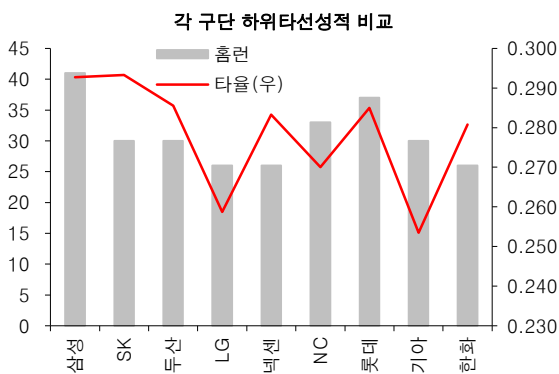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49 클린업: 넥센이 가장 강력한 장타력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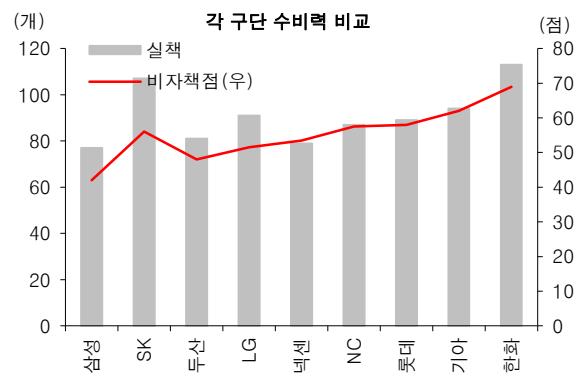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50 하위타선: 삼성이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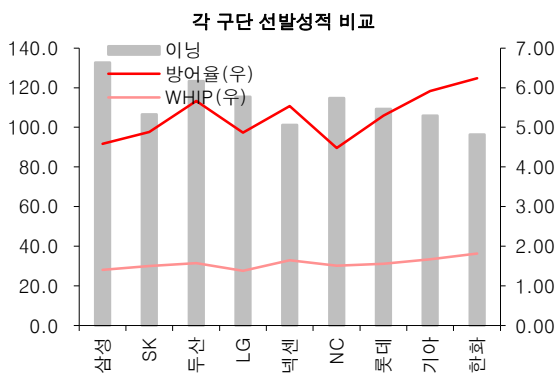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51 수비력: 기아, 한화, SK가 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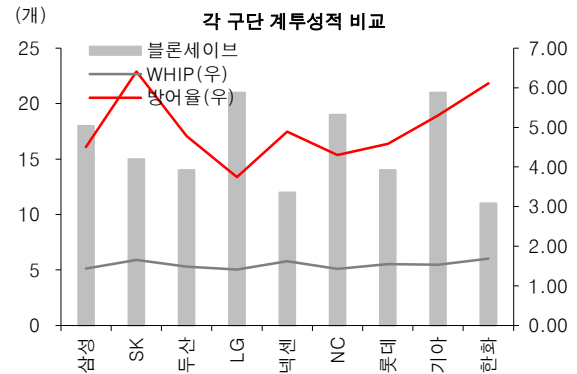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52 선발: 삼성이 가장 안정적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53 계투: LG가 가장 안정적인 모습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1위: 삼성라이온즈- 2015년도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1. 타자: 빈틈을 찾기 힘든 타선

1) 상위타선(1,2번타자: 나바로, 박한이)

나바로와 박한이가 각각 1,2번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의 상위타선은 리그 최고수준이다. 상위타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출루율은 리그 1위로 2014년 기준 상위타선 타자들의 평균 출루율을 약 2푼 이상 상회하는 0.413의 출루율을 기록하였다. 도루는 상위타선의 평균 도루개수인 44개 대비 떨어지는 32개이나, 나바로가 31개, 박한이가 9개의 홈런을 기록하는 등 장타력 또한 갖춘 상위타선으로 리그 최고수준의 공격력을 자랑한다. 나바로는 시범경기에서도 맹타를 휘두르고 있어 2015년에도 삼성의 상위타선은 강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54 삼성의 상위타선은 리그 최고수준



■ 연봉: 9억 3천만원



■ 연봉: 4억 5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55 나바로의 합류로 리그 최고수준의 상위타선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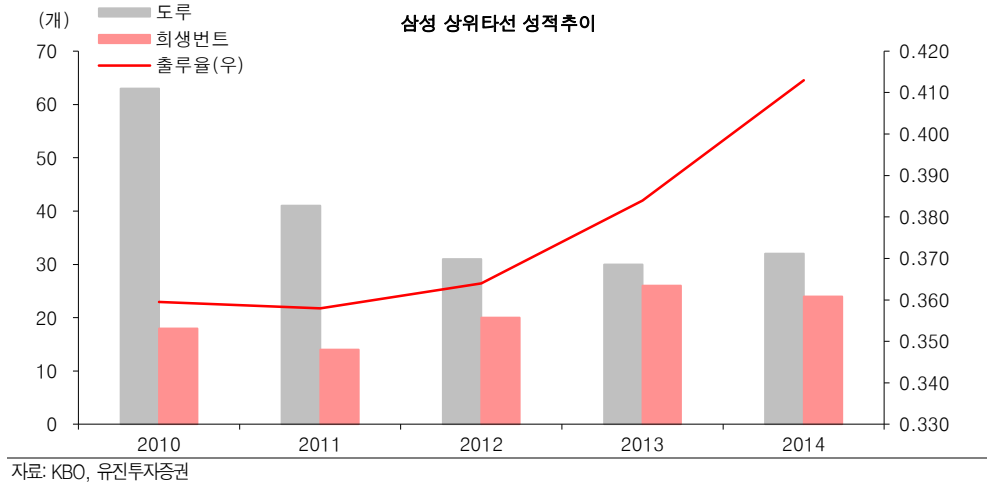


도표 56 롯데 나바로의 장타력은 리그 최고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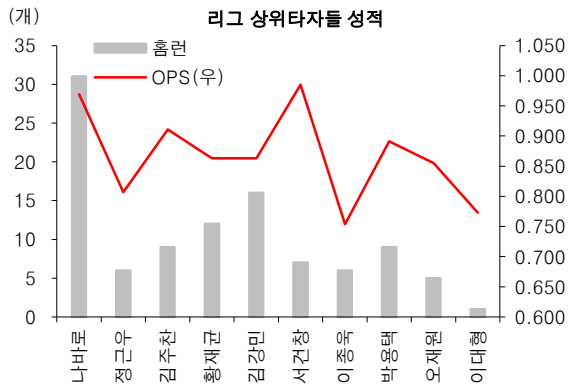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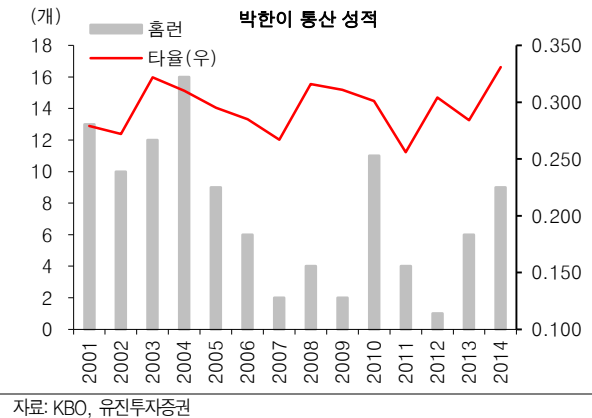


도표 57 박한이는 올해도 기록없는 성적을 기록할 것





2) 클린업(3,4,5번 타자: 박석민, 최형우, 채태인)

박석민, 최형우, 채태인으로 예상되는 삼성의 클린업 또한 리그 최정상 수준의 수준을 보여준다. OPS가 0.982로 넥센에 이어 리그 2위이며, 클린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득점권 타율 또한 NC와 SK에 이은 0.327로 리그 평균인 0.319를 상회하며 준수한 클러치 능력을 보여준다. 홈런 또한 72개로 넥센과 NC에 이은 리그 3위를 기록하였다. 최형우(33세), 박석민(31세), 채태인(34세)로 클린업이 야구선수로서 전성기를 맞는 나이를 고려한다면 삼성의 클린업은 2015년 더욱 무서운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58 올해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삼성의 클린업



■ 연봉: 4억 7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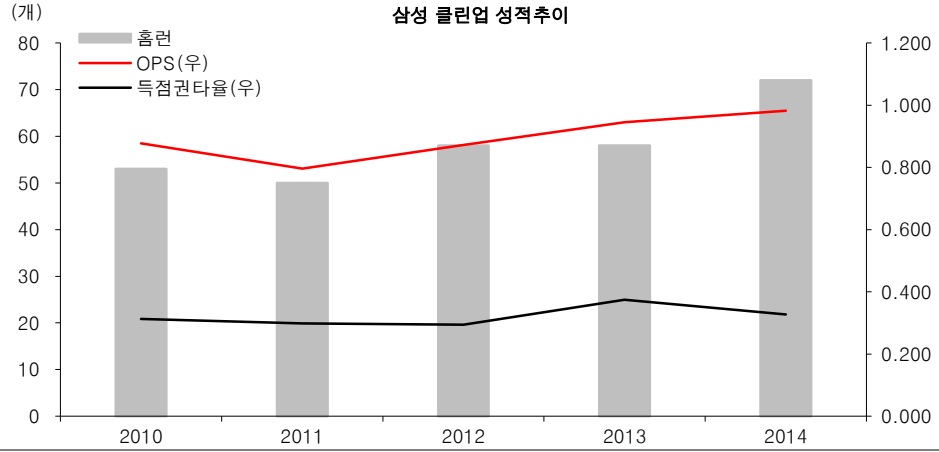
■ 연봉: 6억원

■ 연봉: 3억 3천만원

자료: 엔트리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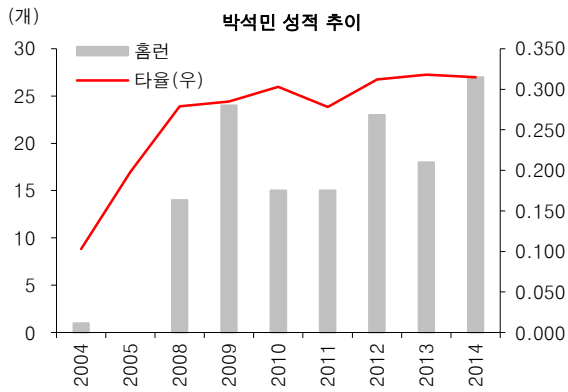


도표 59 리그 정상급의 장타력을 보유한 클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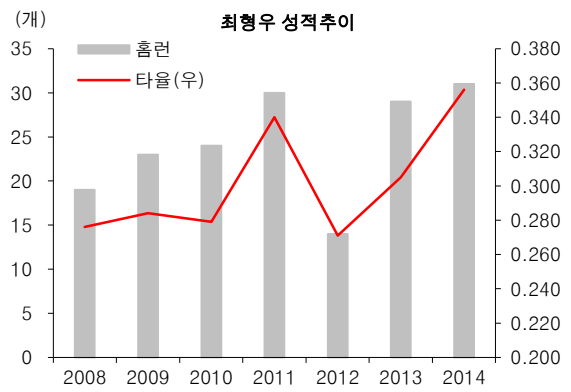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60 박석민은 올해 더 좋은 성적이 예상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61 최형우도 2012년을 기점으로 성적 향상 중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이승엽, 이지영, 박해민, 김상수)

삼성은 하위타선에서도 막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2014년 기준 하위타선의 타율은 0.293으로 리그 평균인 0.277을 크게 상회하는 리그 1위이며, 이승엽을 하위타선으로 분류할 경우 하위타선에서의 홈런 또한 41개로 하위타선의 공격력은 리그 최고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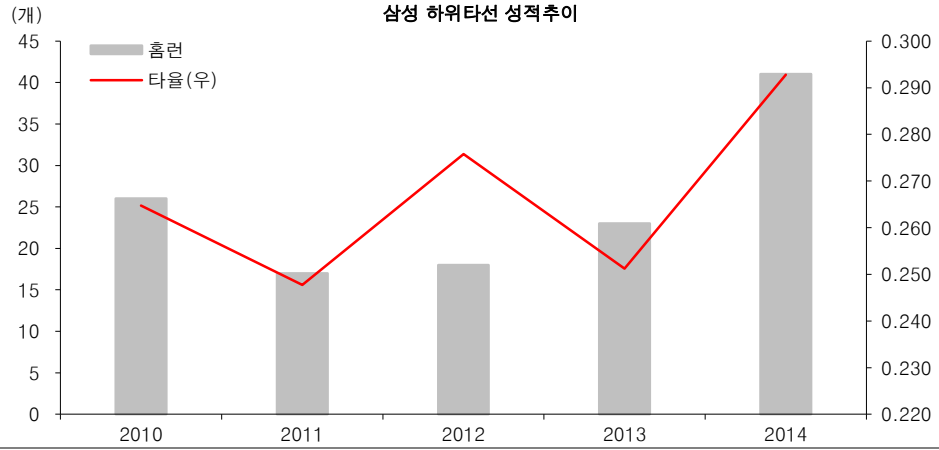
도표 62 하위타선도 포수를 제외하면 쉬어가는 타자가 없음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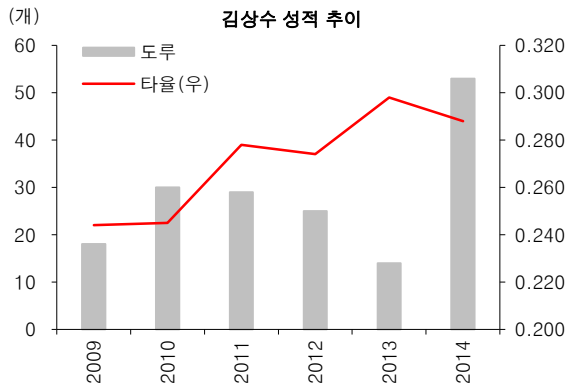


도표 63 하위타선의 공격력 또한 막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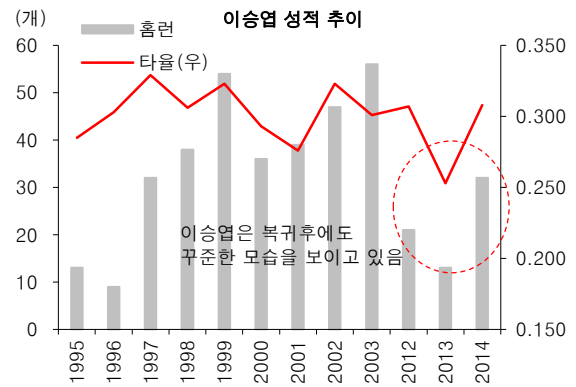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64 김상수는 군면제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65 이승엽은 올해에도 좋은 성적이 예상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강력한 선발과 불펜

1) 선발(장원삼, 윤성환, 피가로, 클로이드, 차우찬, 정인욱)

삼성은 투수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2014년 삼성의 선발진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평균 132.6이닝을 소화하였고, 4.59의 평균 방어율을 기록하며 리그 평균인 5.27을 크게 하회하는 안정적인 선발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닝당 평균 피출루율인 WHIP 또한 1.44로 NC, LG에 이은 3위를 기록하였다는 점 또한 삼성 선발진의 강력함을 보여준다. 2015년은 새롭게 가세한 외국인선발이 벤딕헨크 만큼의 좋은 성적을 기록해 줄 수 있을지 여부와, 홀수해에 못하는 징크스가 있어 짝원삼이라는 별명이 있는 장원삼이 올해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도표 66 투수선발이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



■ 연봉: 7억 5천만원

■ 연봉: 8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67 이닝소화력 및 방어율 모두 안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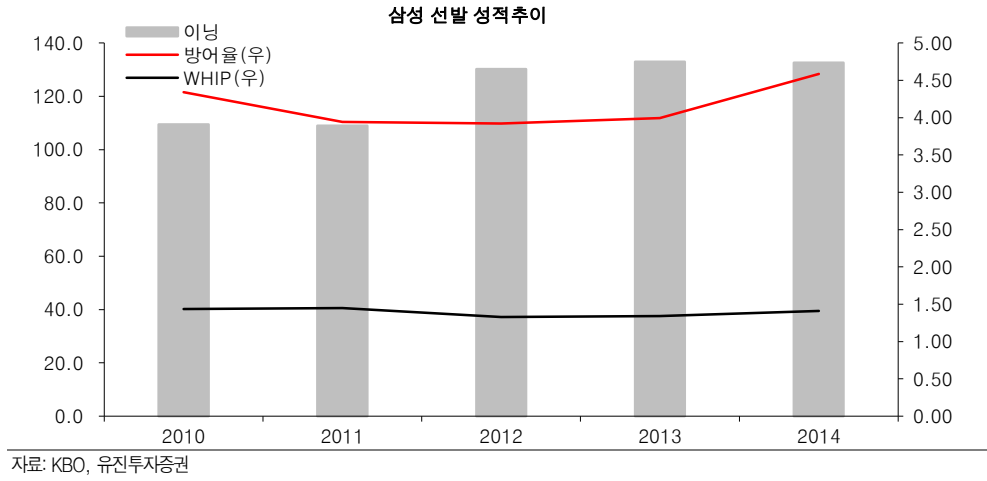


도표 68 좋은 용병선발과 함께 리그 4연패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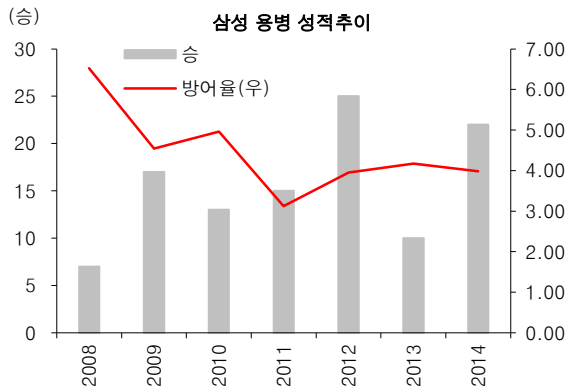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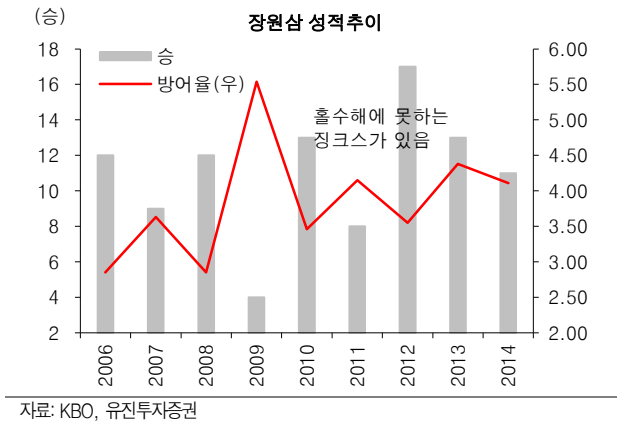


도표 69 2015년에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 지가 중요





2) 계투(심창민, 안지만, 권오준, 박근홍, 백정현, 임창용)

2014년 삼성 계투진의 방어율은 4.51로 LG, NC에 이은 3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다만 블론세이브가 18개로 리그 평균인 16개보다 높은 것은 오승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2015년 임창용이 보다 안정적인 마무리로 자리를 잡는다면 삼성의 정규리그 5연패는 큰 무리 없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70 임창용이 안정감을 찾는다면 삼성의 계투진은 올해도 막강할 것



■ 연봉: 7억 5천만원



■ 연봉: 1억원



■ 연봉: 5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71 불른세이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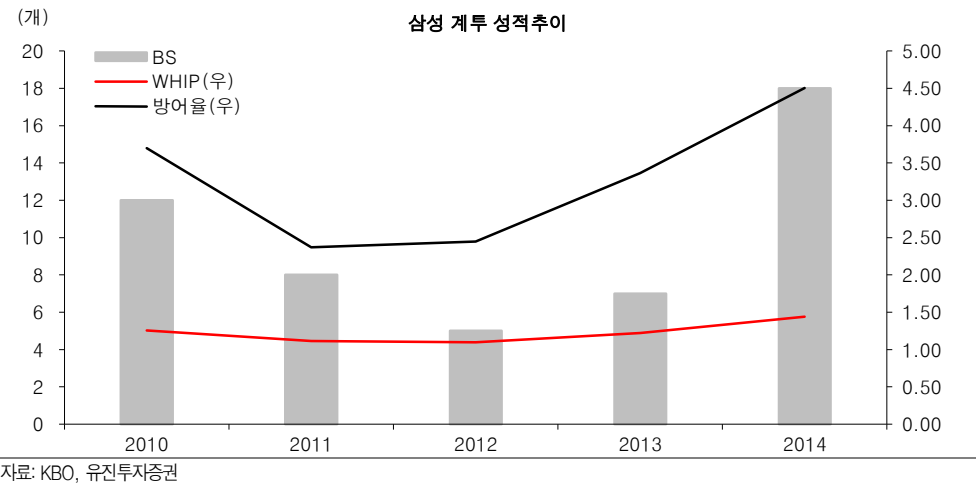


도표 72 2010년 이후 꾸준한 모습을 보이는 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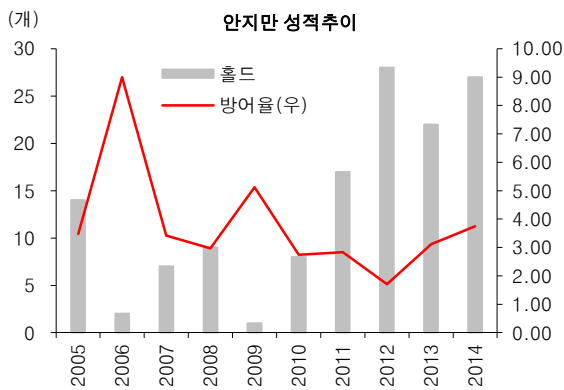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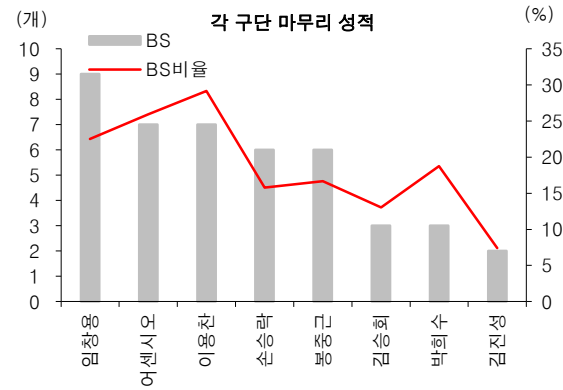


도표 73 임창용은 작년에 마무리로써 불안한 모습을 보임





2위: SK와이번스- 왕조의 부활이 기대됨

1. 타자: 클린업의 장타력 부재가 아쉬움

1) 상위타선(1, 2번 타자: 김강민, 조동화)

2014년 SK의 상위타선은 정근우의 공백이 크게 느껴졌다. 출루율이 0.372로 리그 평균인 0.389를 하회하였으며, 도루 또한 45개로 특출난 기동력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2015년은 김강민과 조동화가 상위타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 이후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는 김강민과 기복없이 꾸준한 성적을 보여주는 조동화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74 올해도 무난한 성적이 전망되는 SK의 상위타선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75 2014년 SK 상위타선은 리그 평균을 다소 하회한 성적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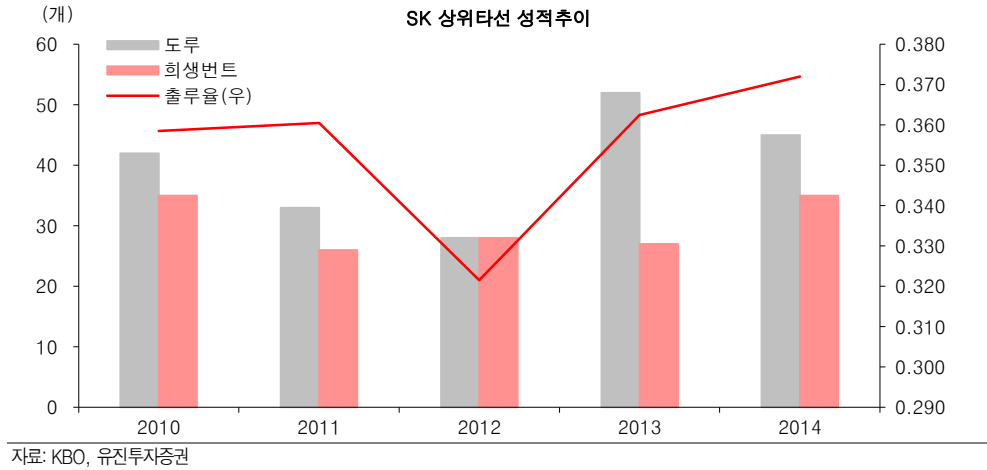


도표 76 정근우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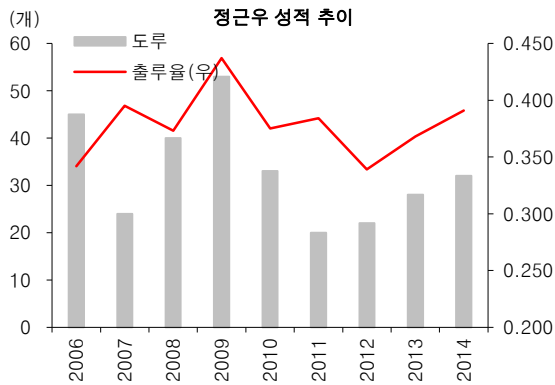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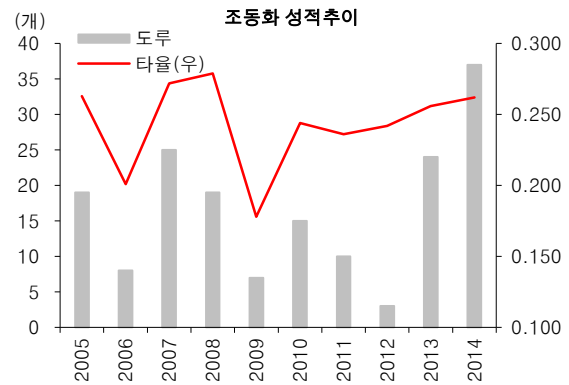


도표 77 조동화의 성적은 조금씩 올라오는 중





2) 클린업(3, 4, 5번 타자: 최정, 박정권, 브라운)

최정-박정권-브라운으로 전망되는 SK의 클린업의 약점은 장타력이다. 2014년 기준 클린업의 OPS는 0.920으로 리그 클린업의 평균인 0.947을 하회하였으며, 홈런또한 48개로 클린업의 평균인 63개를 크게 하회하였다. 득점권 타율은 0.369로 리그 1위를 기록하였으나, 클린업의 장타력 부재는 다소 불안요소이다. 2014년 부상으로 출전수가 적었던 최정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와 용병의 활약정도가 SK의 2015년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78 최정의 활약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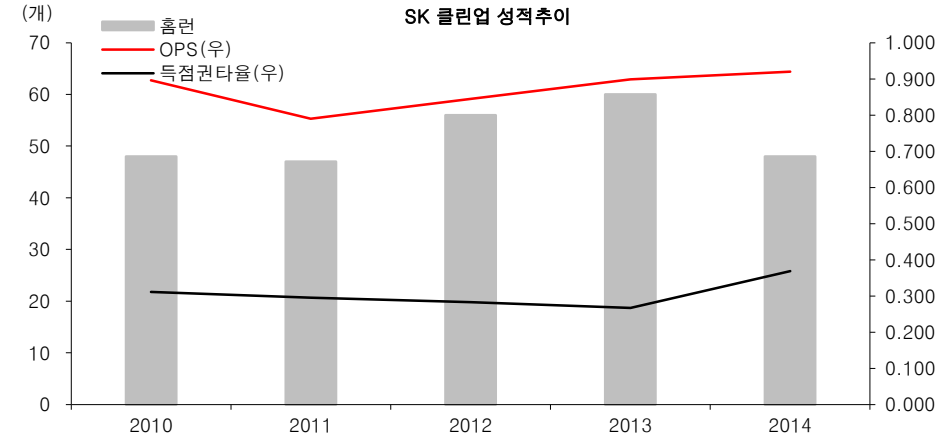
■ 연봉: 10억원

■ 연봉: 4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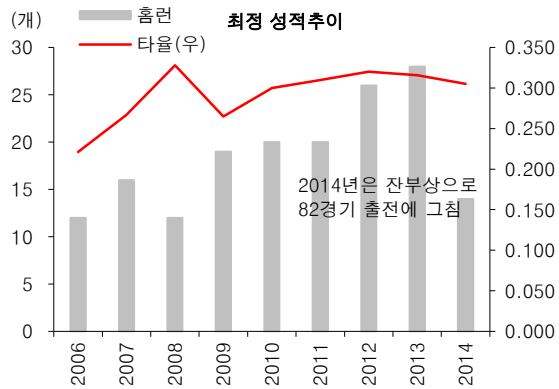


도표 79 장타력의 부재가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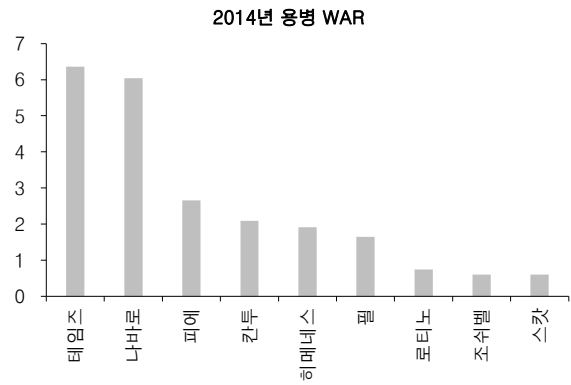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80 2015년에는 최정의 몸관리가 중요할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81 2014년 SK의 타자용병은 최악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주: WAR(Wins Above Replacement): 대체선수에 비해 승리에 기여한 수치
WAR가 10이면 대체선수 대비 10승을 팀에 기여한 것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정상호, 이재원, 김성현, 나주환)

2014년 SK의 하위타선은 삼성과 함께 0.293으로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하였으며, 홈런 또한 30개로 리그 평균의 홈런수치를 기록하며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2014년 0.337의 타율과 12개의 홈런을 하위타선에서 기록한 이재원이 2015년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지를 기대해보아야 할 것이며, 나주환이 2013년의 부진을 딛고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도표 82 SK의 하위타선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줌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83 하위타선은 리그 상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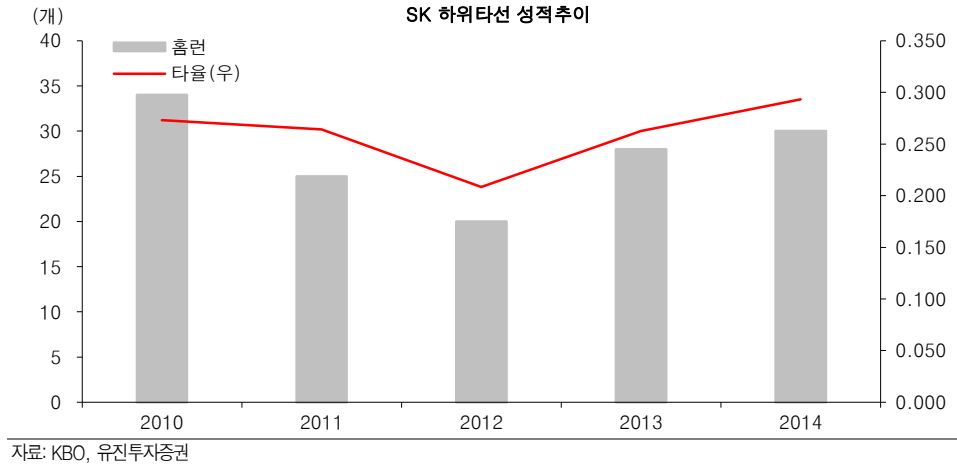


도표 84 첫 풀타임 소화한 이재원이 2015년에도 잘해줄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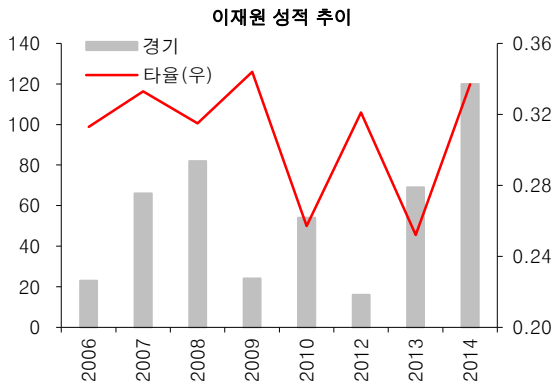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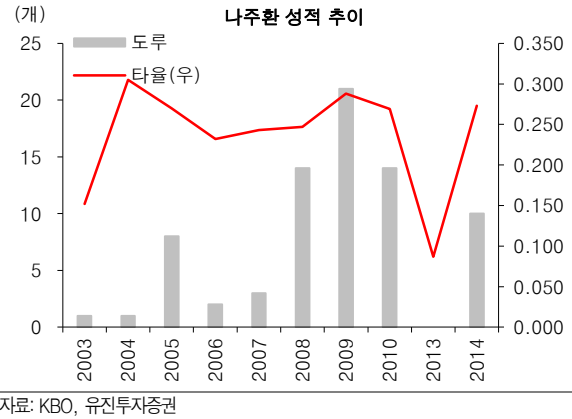


도표 85 나주환 또한 하위타선의 키 플레이어





2. 투수: 선발/계투 모두 강화될 것

1) 선발(김광현, 벤와트, 켈리, 채병용, 윤희상, 백인식)

2014년 SK선발진은 김광현의 부활로 방어율 4.88에 WHIP 1.50을 기록하며 둘다 리그 평균을 하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2015년은 보다 우수한 성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이유는 1) 그간 SK의 선발 용병이 리그 평균대비 낮은 성적을 기록하였으며, 2) 채병용, 윤희상 등 토종 선발들의 부활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외인용병 복이 없었던 SK가 과연 2015년에는 어떤 지 기대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광현(28세), 채병용(34세), 윤희상(31세) 등 선발진의 노쇠화가 없다는 점 또한 SK가 올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도표 86 김광현은 부상이 없다면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 연봉: 6억원

■ 연봉: 2억 2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87 이닝소화력이 다소 아쉬웠던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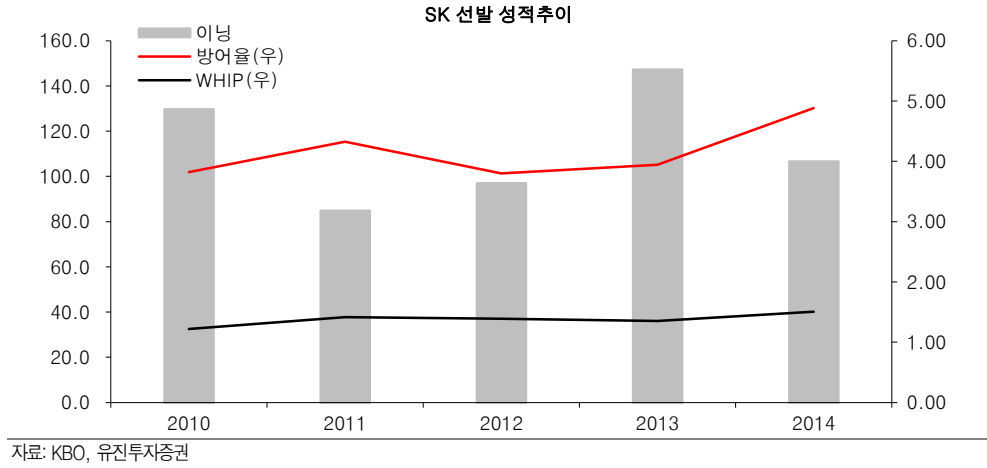


도표 88 SK용병투수의 승수 기여도는 높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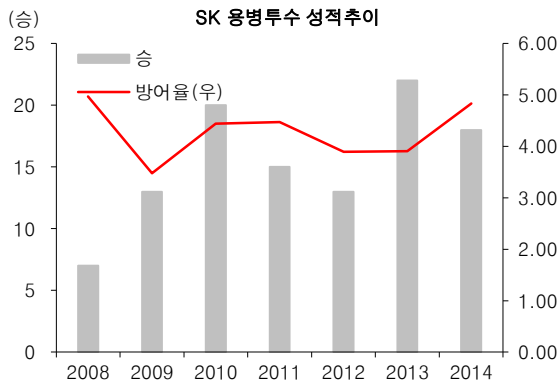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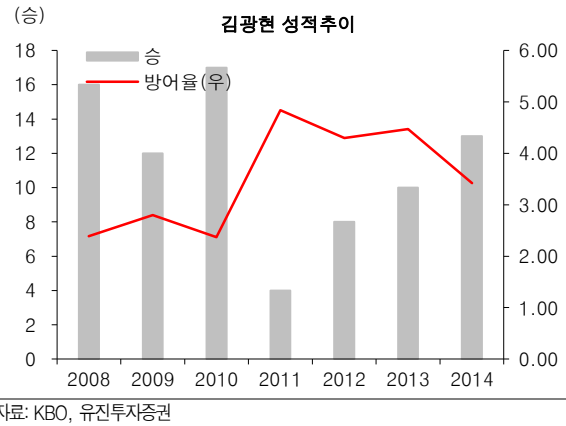


도표 89 김광현의 부진과 함께 팀의 성적은 내려가기 시작





2) 계투(윤길현, 박정배, 진해수, 전유수, 정우람, 박희수)

벌떼야구로 유명한 SK지만 2014년 계투진의 성적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방어율은 6.41로 리그 계투진 평균 방어율 4.96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WHIP 또한 1.65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2015년은 정우람의 군제대로 SK의 계투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리그 정상급 마무리인 박희수가 아직 재활 중인 것은 불안요소이나, 정우람의 복귀는 분명 SK 계투진의 성적에 큰 기대를 걸어볼만한 호재이다.

도표 90 정우람의 복귀로 계투진의 큰 강화가 예상됨



■ 연봉: 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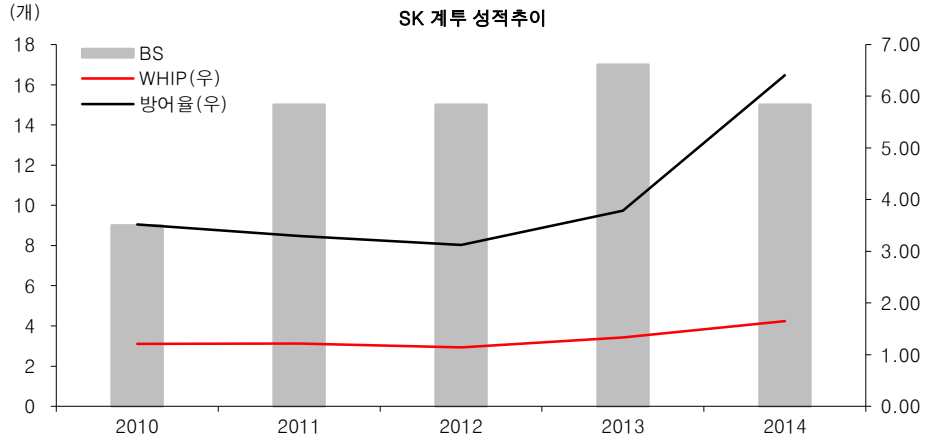
■ 연봉: 2억 2천만원

■ 연봉: 1억 7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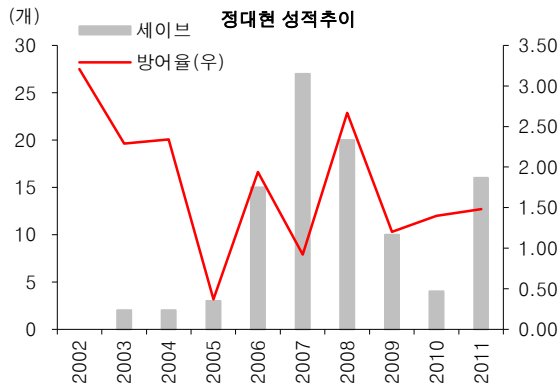


도표 91 정우람, 정대현의 이탈 이후 약한 모습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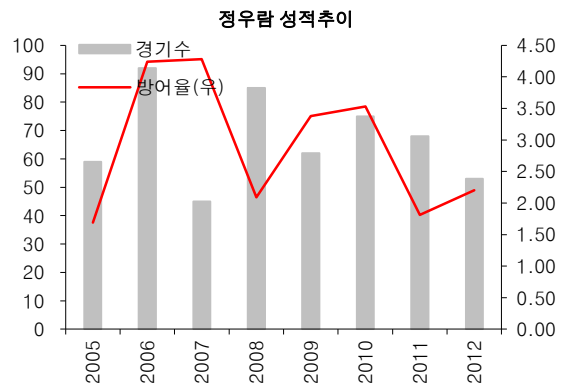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92 정대현의 이적 이후 전담 마무리가 없는 상황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93 정우람의 복귀로 불펜의 큰 개선이 예상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위: 두산베어스- 강력한 타선과 선발, 그러나 빈약한 계투

1. 타자: 강력한 상위, 다소 아쉬운 클린업

1) 상위타선(1, 2번 타자: 오재원, 정수빈)

전통적으로 강력했던 두산의 상위타선은 2015년에도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두산의 상위타선은 출루율 0.400과 65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리그 최정상급의 기동력을 보여주었다. 오재원(31세)과 정수빈(26세)은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94 2015년도 좋은 모습이 기대되는 두산의 상위타선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도표 95 두산 상위타선의 기동력은 리그 최정상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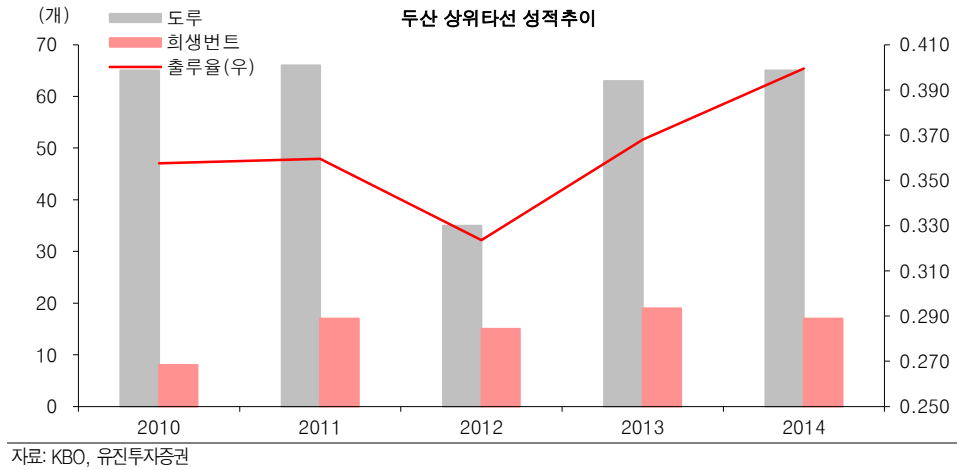


도표 96 오재원은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적을 기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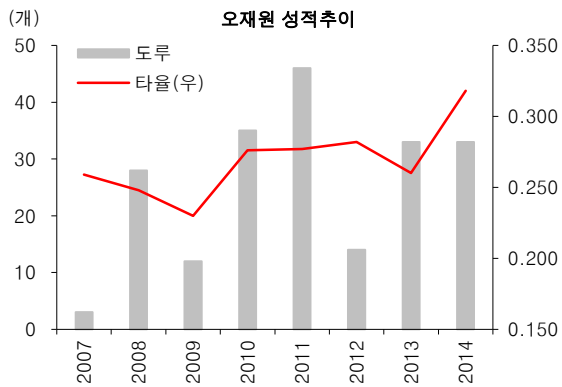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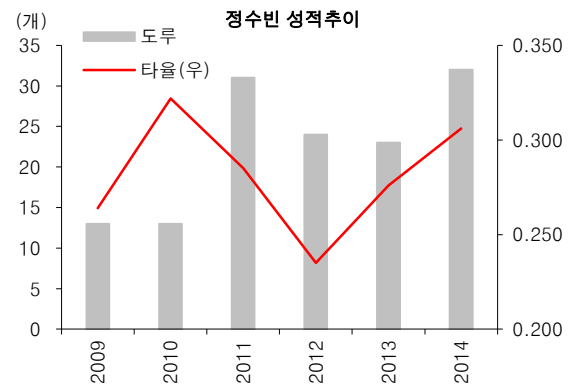


도표 97 2012년 부진 이후 점점 좋은 모습을 보이는 중





2) 클린업(3, 4, 5번 타자: 김현수, 홍성흔, 루츠)

김동주의 은퇴 및 최준석의 롯데 이적 이후 두산 클린업은 예전의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산 클린업의 두 자리를 차지하는 김현수와 홍성흔은 2013년과 2014년 총 31개, 37개의 홈런을 기록하였고, OPS또한 평균 0.836과 0.893을 기록하였는데 리그 클린업의 평균 OPS인 0.863, 0.947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두산이 올해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클린업의 장타력 상승은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98 클린업의 장타력 상승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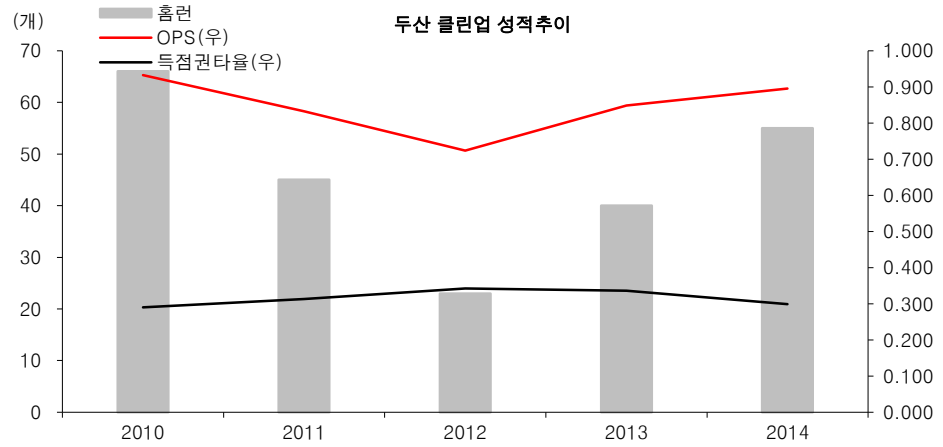
■ 연봉: 7억 5천만원

■ 연봉: 4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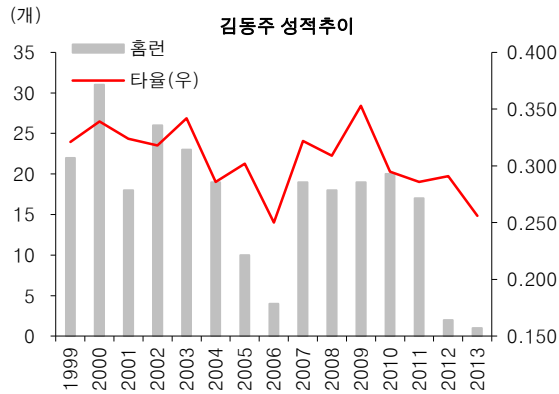


도표 99 장타력의 부재가 아쉬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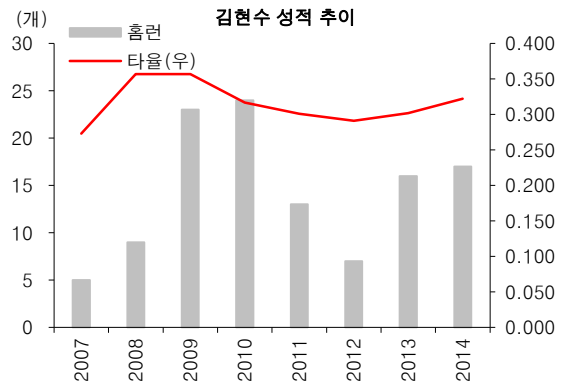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00 두목곰 김동주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01 홈런이 다소 아쉬운 김현수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민병현, 김재호, 허경민, 양의지)

두산의 하위타선은 리그 평균 수준으로 2015년에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허경민(26세), 민병현(29세), 양의지(29세) 등 젊은 선수들의 기량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02 젊은 선수들의 기량 상승이 기대됨



연봉: 2억 8천만원



연봉: 2억원



연봉: 9천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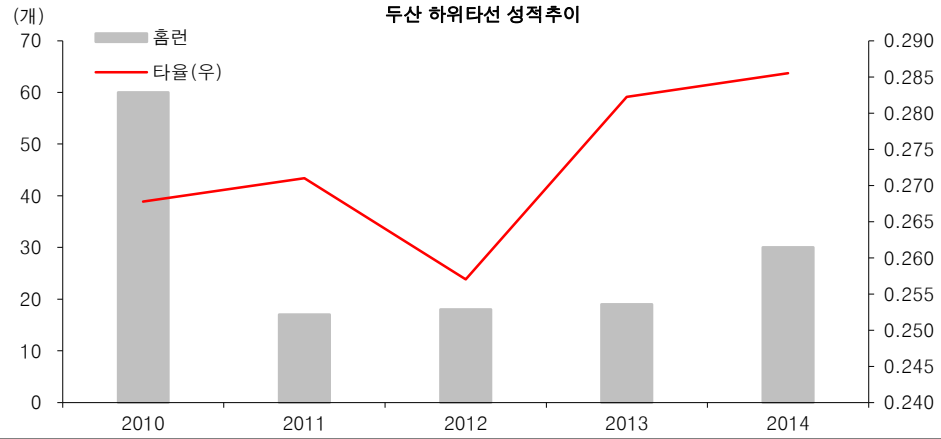


연봉: 1억 6천7백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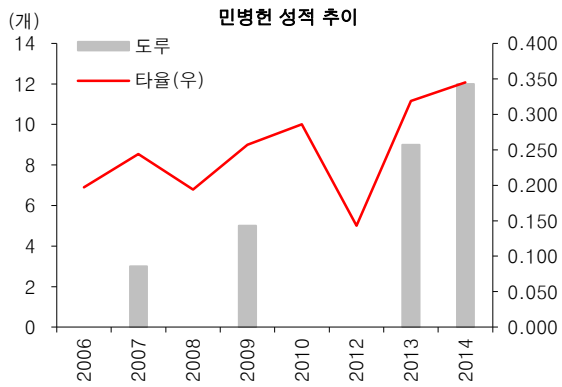


도표 103 젊은 선수들의 기량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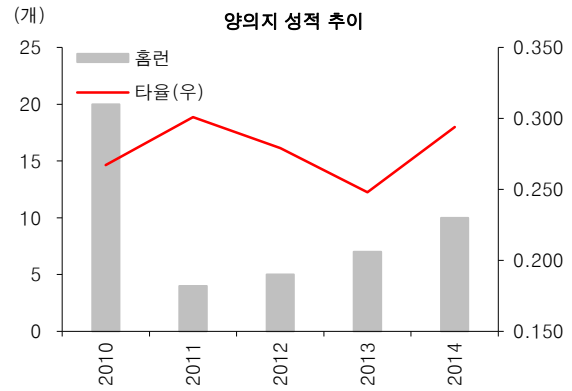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04 2013년 이후 기량이 빠르게 상승 중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05 양의지의 홈런 증가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선발은 플러스 계투는 마이너스

1) 선발(니퍼트, 장원준, 마야, 유희관, 이현승, 이재우)

2014년 두산 선발진은 노경은, 유희관 등 토종 선발의 부진으로 방어율 5.67, WHIP 1.58을 기록하며 리그 평균대비 낮은 성적을 기록하였다. 니퍼트(35세)가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84억 좌완 장원준의 합류에 따른 선발진의 강화가 전망되며, 작년에 다소 부진하였던 유희관이 부활한다면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06 니퍼트가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07 2014년은 부진했으나 장원준의 가세로 선발전 강화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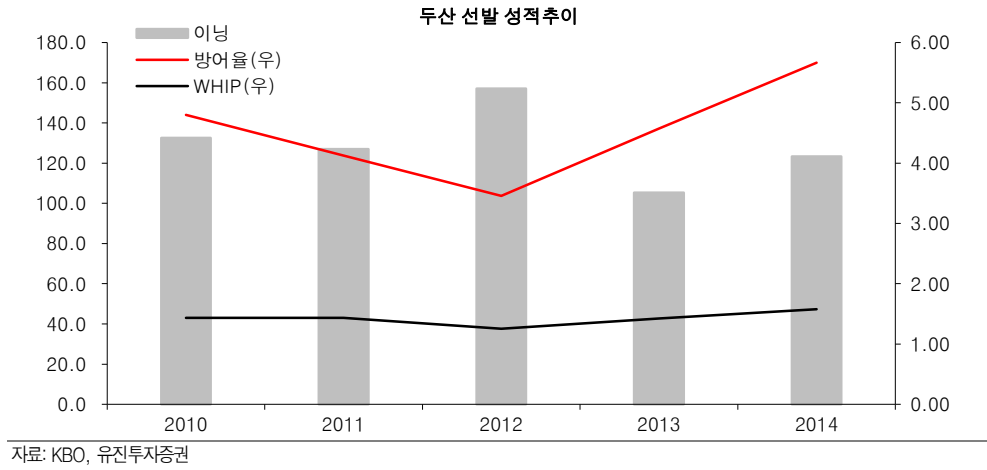


도표 108 장원준의 가치는 방어율보다는 이닝이터라는데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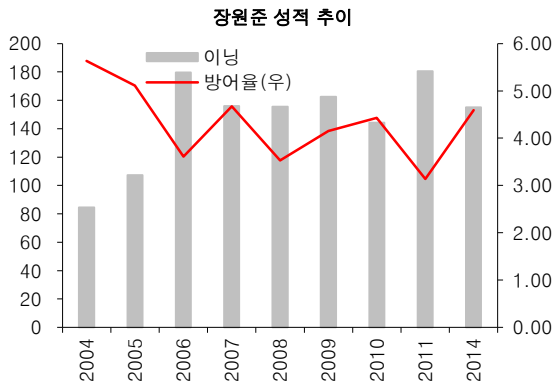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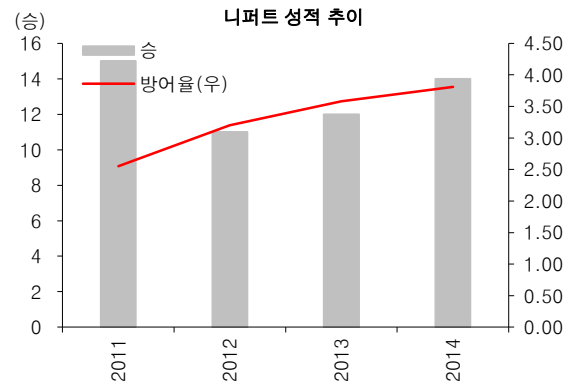


도표 109 니퍼트는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2) 계투(임태훈, 변진수, 오현택, 김수완, 윤명준, 노경은)

전년대비 단단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선발진 대비 두산의 계투진은 2015년에는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 계투진의 한 축이던 정재훈은 장원준의 보상선수로 롯데로 이적하였으며, 이용찬 또한 군입대로 팀을 이탈하였다. 또한 강력한 마무리 후보로 꼽히던 노경은이 턱관절 부상으로 이탈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올해 두산 계투진은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10 계투진은 주요 선수들의 이탈로 약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연봉: 7천 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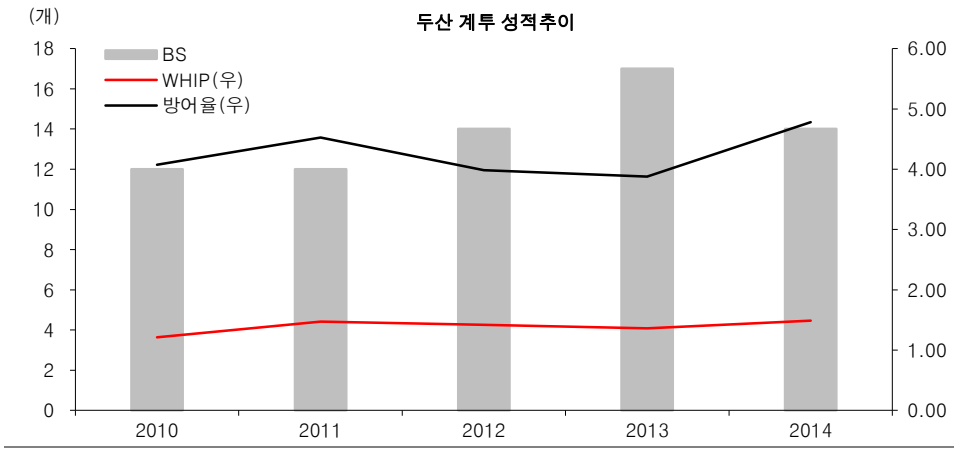
■ 연봉: 1억 1천만원

■ 연봉: 1억 7백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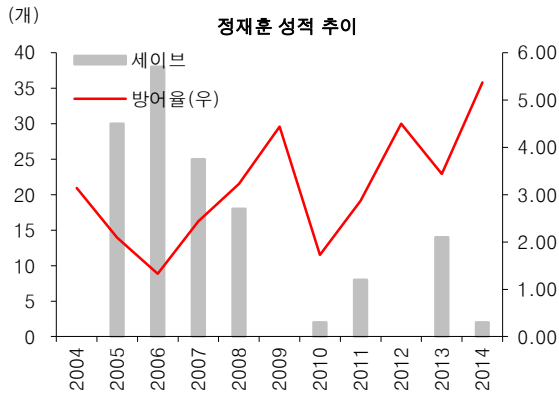


도표 111 주요 계투진의 이탈로 2015년은 불안한 모습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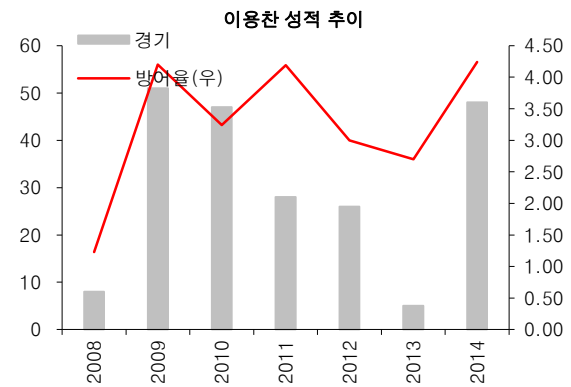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12 꾸준하던 정재훈의 이탈은 계투진의 큰 마이너스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13 이용찬의 군입대 또한 타격이 클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4위: LG트윈스- 더 이상 엘리트는 없다

1. 타자: 장타력의 부재 및 주축선수 노쇠화가 리스크

1) 상위타선(1, 2번 타자: 오지환, 박용택)

오지환, 박용택으로 이어지는 LG의 상위타선은 리그 평균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2014년 기준 출루율은 0.392로 리그 상위타선 평균인 0.389와 크게 차이나는 않으며, 도루 또한 39개로 리그 평균인 45개와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박용택이 올해 37세로 노쇠화에 따른 기량 하락의 리스크가 있다.

도표 114 박용택의 기량 하락 리스크가 있음



■ 연봉: 1억 6천만원



■ 연봉: 8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15 박용택의 노쇠화에 따른 기량하락 리스크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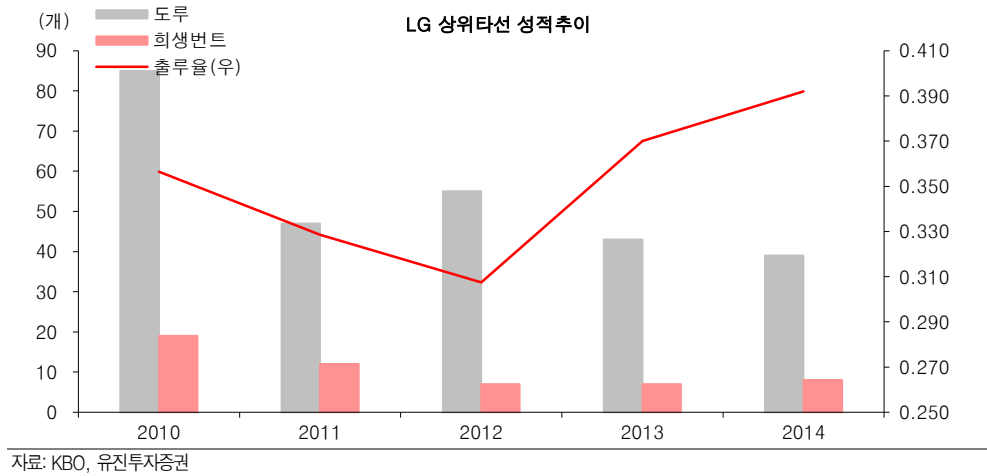


도표 116 박용택이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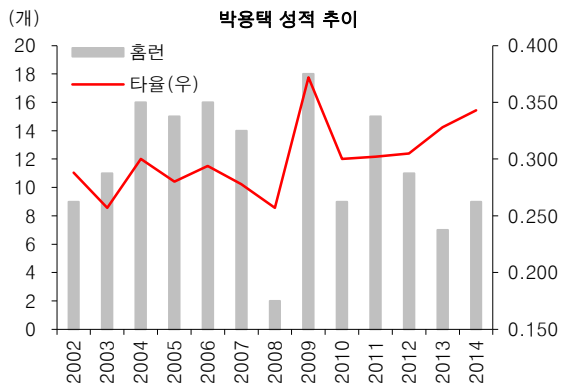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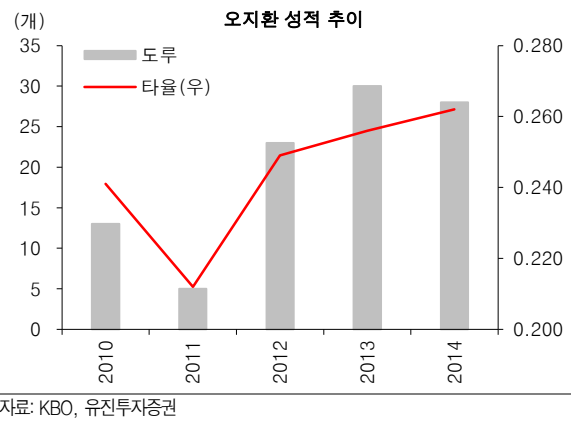


도표 117 오지환의 기량은 조금씩 향상 중





2) 클린업(3, 4, 5번 타자: 정성훈, 한나한, 이진영)

LG의 클린업의 가장 큰 약점은 장타력의 부재이다. 이병규(7)-정성훈-이진영으로 이어지는 LG의 클린업은 2014년 총 35개의 홈런밖에 기록하지 못했으며, 장타율 또한 0.897로 리그 평균을 크게 하회한다. 정성훈과 이진영이 36세로 더 이상 젊지 않은 나이임을 고려 시, 2015년에도 용병타자의 활약이 없다면 LG의 클린업의 존재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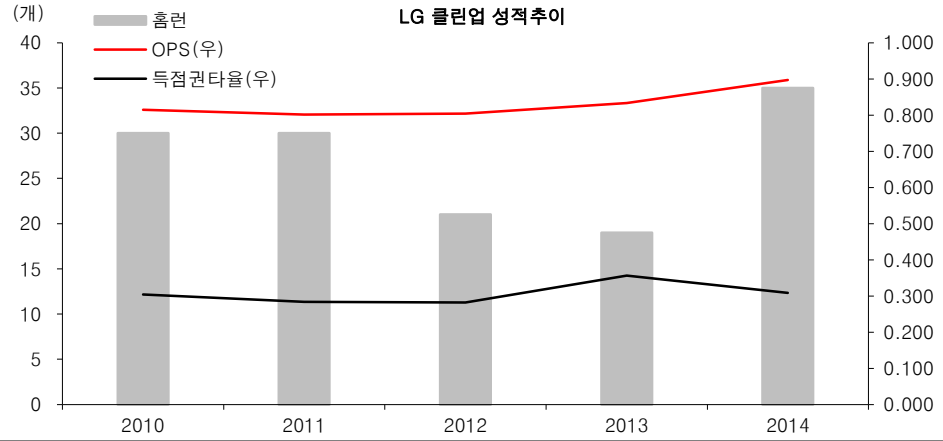
도표 118 정성훈, 이진영 또한 노쇠화로 장타력이 떨어지고 있음



자료: 엔트리베이스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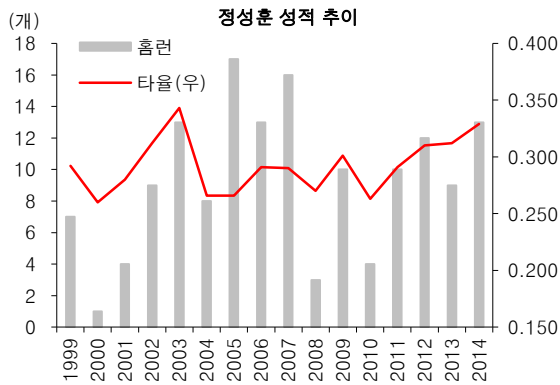


도표 119 장타력의 부재가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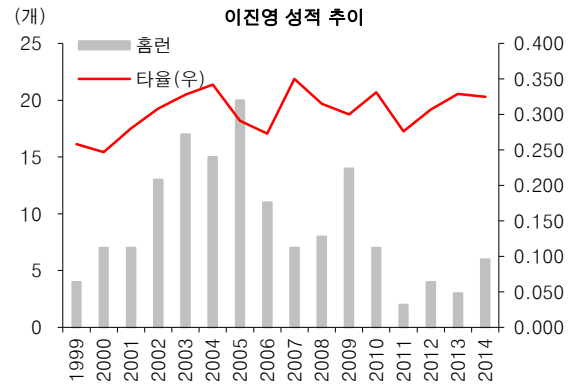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20 올해도 10개안팎의 흠련이 전망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21 이진영은 장타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이병규(7), 이병규(9), 최경철)

2014년 LG는 하위타선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위타선의 타율은 0.259로 기아에 이은 리그 8위의 타율을 기록하였으며, 홈런 또한 26개로 리그에서 가장 낮은 개수를 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이병규(9)의 체력저하 및 기량하락이 예상되나, 이병규(7)이 올해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122 하위타선 또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음



■ 연봉: 1억 6천만원



■ 연봉: 2억 6천만원



■ 연봉: 8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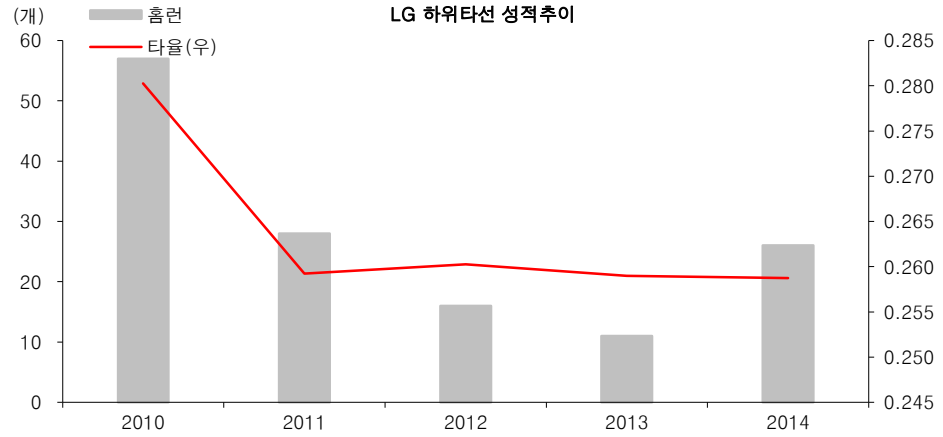


■ 연봉: 1억 3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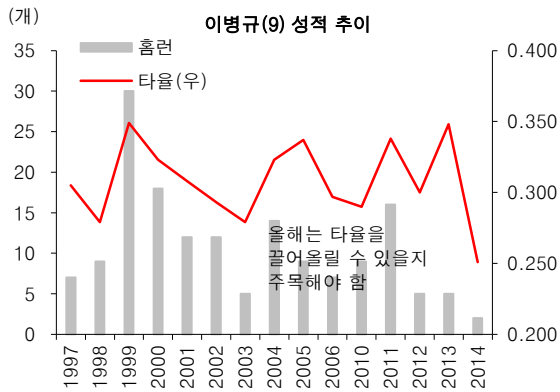


도표 123 하위타선 또한 불안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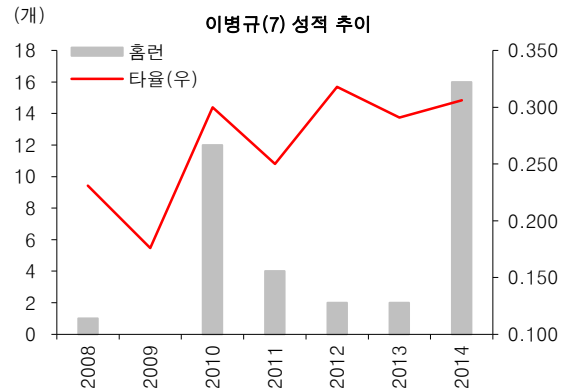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24 이병규(9)의 성적에 주목할 필요 있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25 이병규(7)은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선발과 계투 모두 안정적

1) 선발(루카스, 소사, 우규민, 류제국, 임정우, 임지섭)

2014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LG의 선발진은 2015년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훌륭한 방어율을 기록하지는 않으나 뛰어난 이닝이터인 소사가 합류하였으며, 우규민(31세), 류제국(33세), 임정우(25세), 등 기존 선발진 또한 선수로써 전성기를 향해가는 나이로 기량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 합류하는 루카스와 신인 선발인 임지섭의 활약 또한 기대된다.

도표 126 투수 선발의 활약이 특히 더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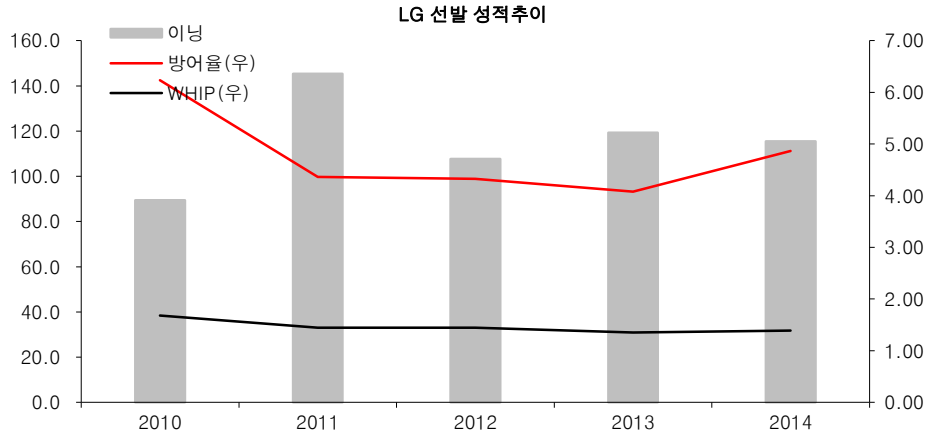
■ 연봉: 3억원

■ 연봉: 2억 3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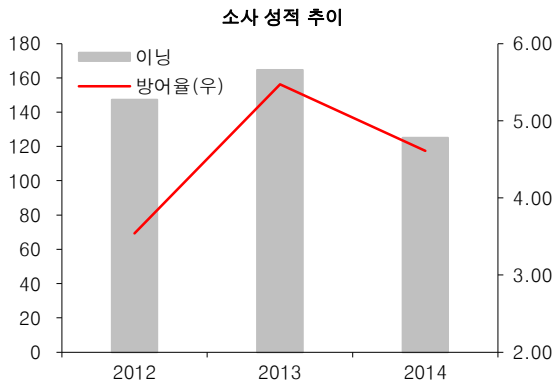


도표 127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LG의 선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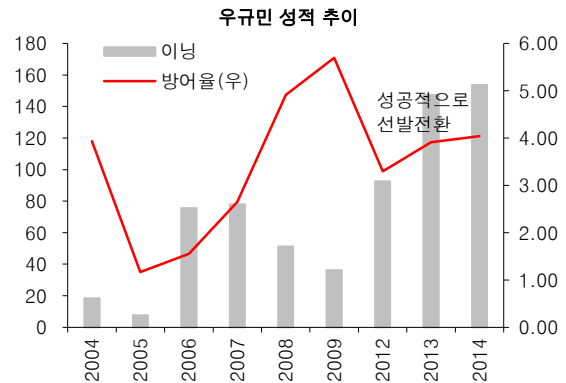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28 소사는 올해도 이닝이더로 활약할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29 선발전환 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규민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계투진(이동현, 정찬현, 유원상, 신재용, 정현욱, 봉중근)

2013년과 2014년 LG가 2년 연속 4강에 합류할 수 있었던 핵심 원인인 LG의 계투진은 2015년에도 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현(33세), 유원상(30세), 신재용(34세), 정찬현(26세) 등 핵심 계투진이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마무리 전환 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봉중근(36세)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표 130 이동현, 봉중근 등 계투진은 올해에도 안정적인 것



■ 연봉: 1억 2천만원



■ 연봉: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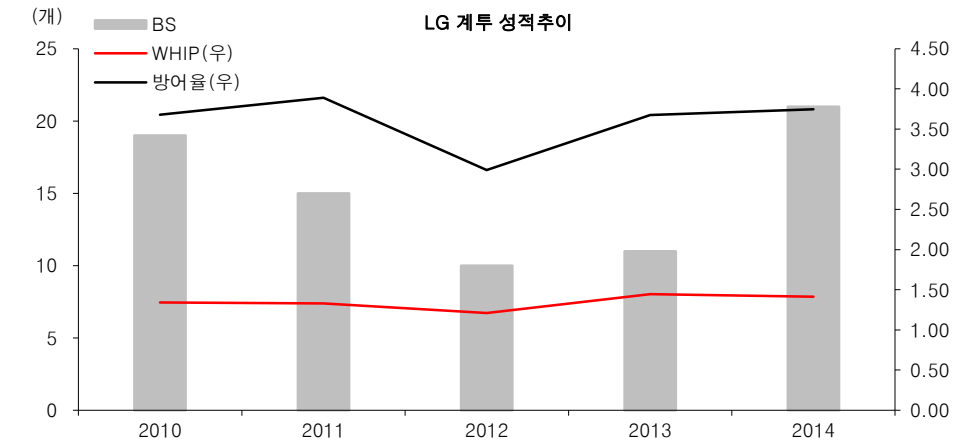


■ 연봉: 4억 5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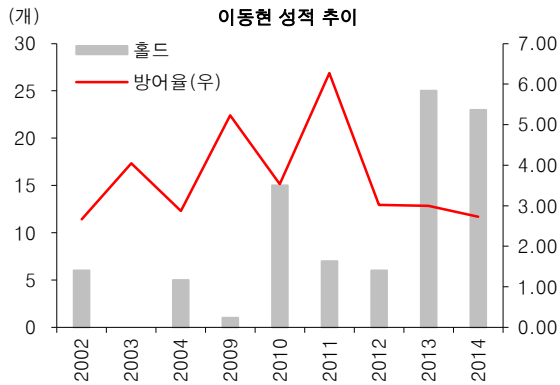


도표 131 LG의 상승세의 원인은 강력한 계투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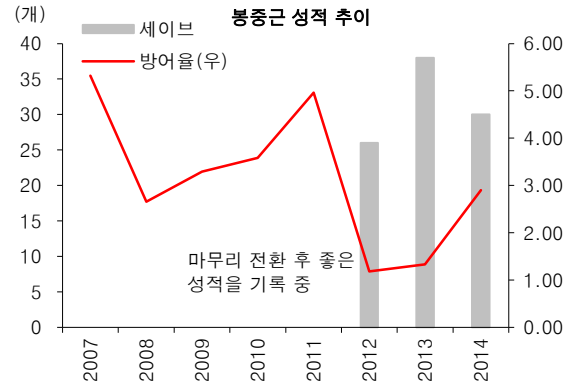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32 이동현은 2015년에도 좋은 성적이 전망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33 봉준근은 리그 탑 마무리로 자리매김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5위: 넥센히어로즈- 강정호의 빈자리 & 여전히 빈약한 선발

1. 타자: 강정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1) 상위타선(1, 2번 타자: 서건창, 이택근)

200안타의 주인공 서건창과 이택근이 이끄는 넥센의 상위타선은 리그 최고의 상위타선이다. 2014년 출루율은 0.412로 1위 삼성과 1리 차이로 2등을 기록하였다. 도루 또한 NC, 두산에 이은 58개로 리그 상위 수준의 기동력을 보여준다. 서건창이 2015년에도 2014년의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며, 2014년 자신의 홈런 커리어하이를 기록한 이택근이 올해도 장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해보아야 할 것이다.

도표 134 2015년에도 서건창의 활약이 기대됨



■ 연봉: 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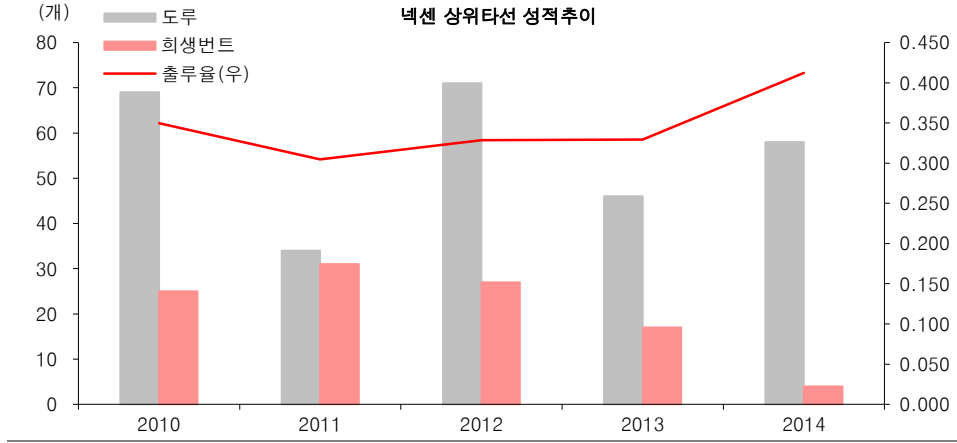


■ 연봉: 7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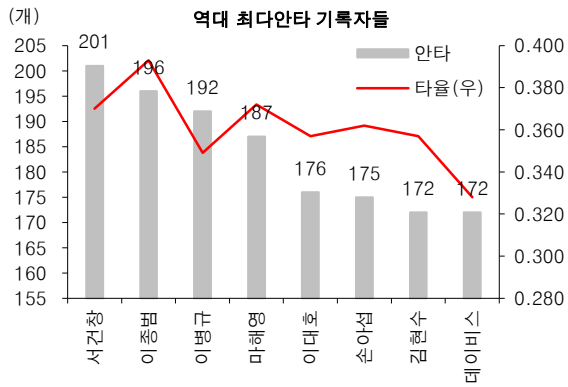


도표 135 2015년도 서건창의 활약이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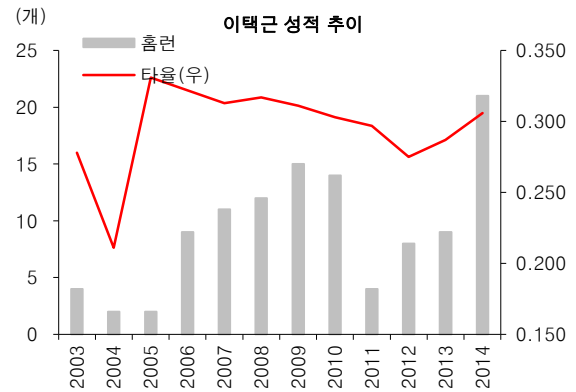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36 역대 최다안타 기록자 서건창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37 이택근이 올해도 장타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클린업(3, 4, 5번 타자: 스나이더, 박병호, 유한준)

박병호가 여전히 건재하다고는 하나 강정호의 빈자리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호는 2014년 타율 0.356(4위), 홈런 40개(2위), OPS 1,198(1위), WAR 9.42(1위)를 기록한 대체불가의 유격수이다. 2015년에는 그 자리를 유한준이 메꿀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대비 클린업의 무게감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38 강정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되는 넥센 클린업



■ 미국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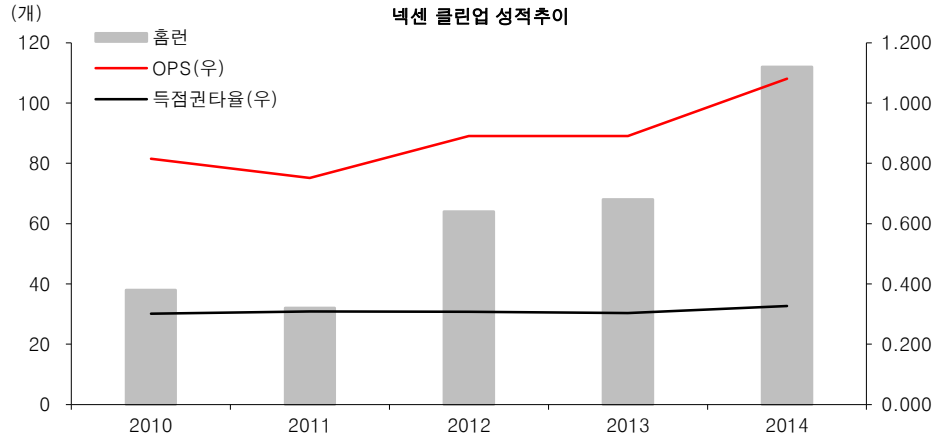
■ 연봉: 7억원

■ 연봉: 2억 8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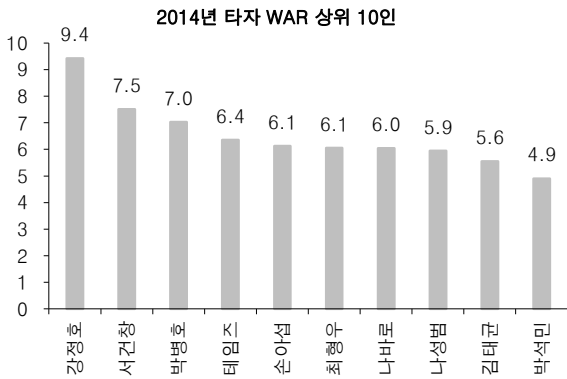


도표 139 강정호의 빈자리가 크게 나타날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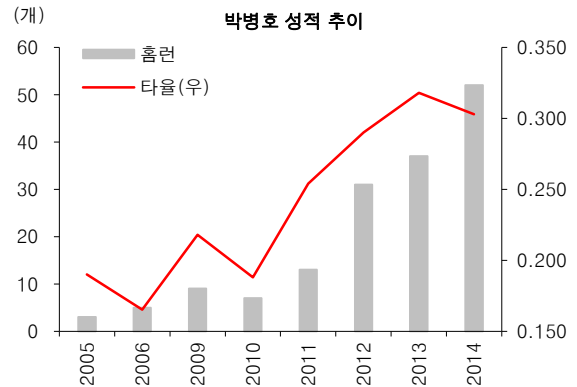
도표 140 강정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주: WAR(Wins Above Replacement): 대체선수에 비해 승리에 기여한 수치
WAR가 10이면 대체선수 대비 10승을 팀에 기여한 것

도표 141 박병호는 올해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윤석민, 문우람, 박동원, 김민성)

2014년 0.283의 타율과 26개의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넥센의 하위타선은 2015년에 더욱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하다. 점점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김민성, 문우람과 풀타임 출전 시 20개 이상의 홈런을 기대할 수 있는 윤석민이 점점 더 큰 존재감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타선이 평균 27세로 젊다는 점 또한 성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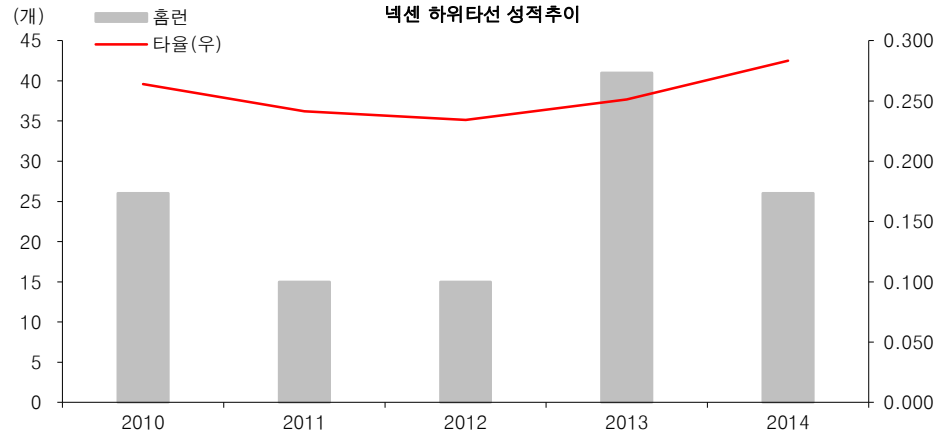
도표 142 하위타선의 성적 개선이 기대되는 넥센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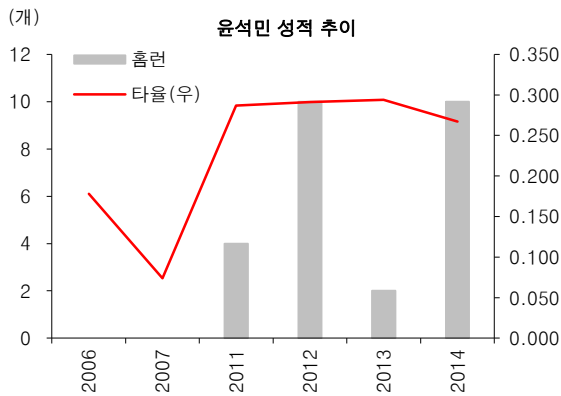


도표 143 넥센의 하위타선은 꾸준한 성적을 기록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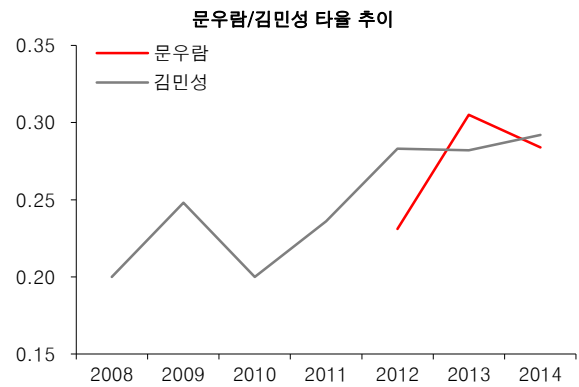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44 윤석민의 기량 향상을 기대 가능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45 문우람/김민성의 성적은 상승 중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여전히 불안한 선발진

1) 선발(밴헤켄, 피어밴드, 오재영, 문성현, 김영민, 하영민)

2014년 넥센 선발진의 방어율은 5.53, WHIP은 1.65로 리그 평균 대비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밴헤켄과 리그 중반에 합류한 소사를 제외하면 믿을만한 선발이 없었으며 2015년에도 이러한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재영, 문성현, 김영민, 하영민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없다면 올해 넥센의 좋은 성적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도표 146 밴헤켄을 제외하면 믿을만한 선발이 없음



■ 연봉: 7억원



■ 연봉: 1억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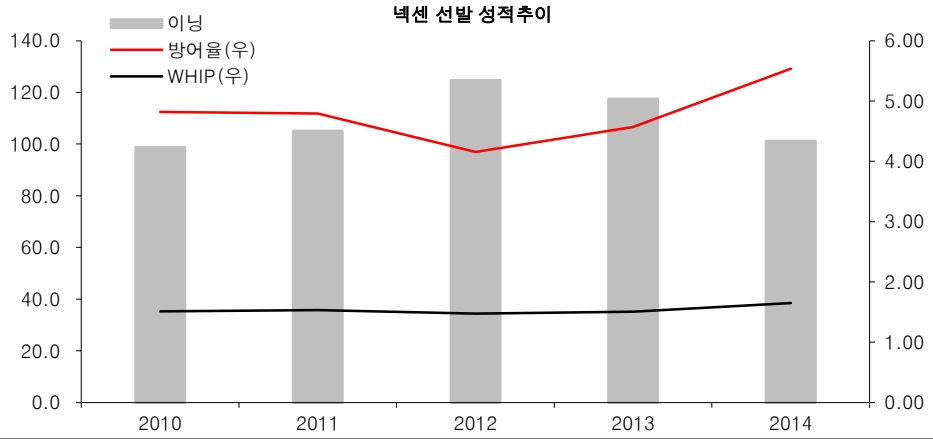


■ 연봉: 4천만원

자료: 엔트리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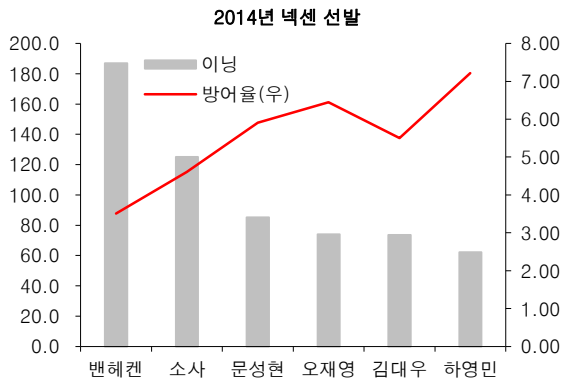


도표 147 용병을 제외하면 믿을만한 선발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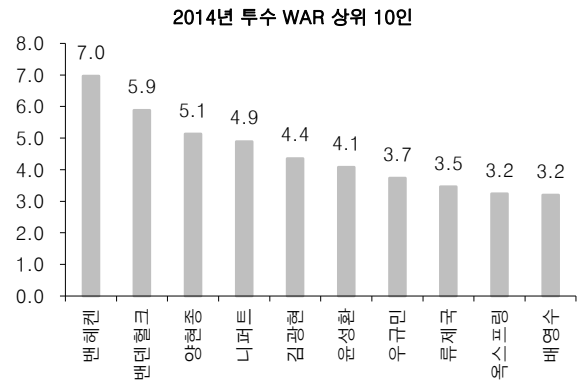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48 용병을 제외하면 안정적인 선발이 없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49 밴헤켄의 활약은 올해에도 필수적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주: WAR(Wins Above Replacement): 대체선수에 비해 승리에 기여한 수치
WAR가 10이면 대체선수 대비 10승을 팀에 기여한 것



2) 계투(조상우, 이정훈, 김대우, 송신영, 한현희, 손승락)

불안한 선발에 비하면 넥센의 계투진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넥센 계투진의 2014년 방어율은 4.90, WHIP은 1.62로 리그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손승락이라는 안정적인 마무리를 보유하여 2014년 블론세이브가 12개로 11개의 한화 다음으로 적다. 한현희(23세), 조상우(22세) 등 젊은 계투진과 이정훈(39세), 송신영(39세) 등 경험많은 베테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50 올해에도 젊은 계투진의 활약이 전망됨



■ 연봉: 6천 8백만원

■ 연봉: 2억 3천만원

■ 연봉: 5억 3천만원

자료: 엔트리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51 계투진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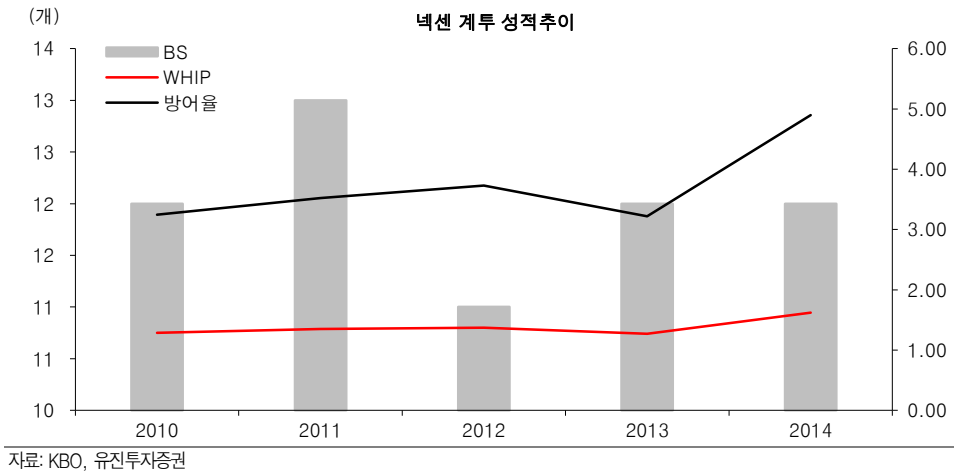


도표 152 손승락은 올해도 안정적으로 뒷문을 막아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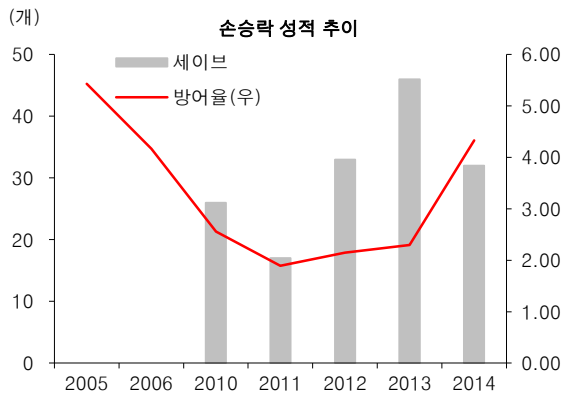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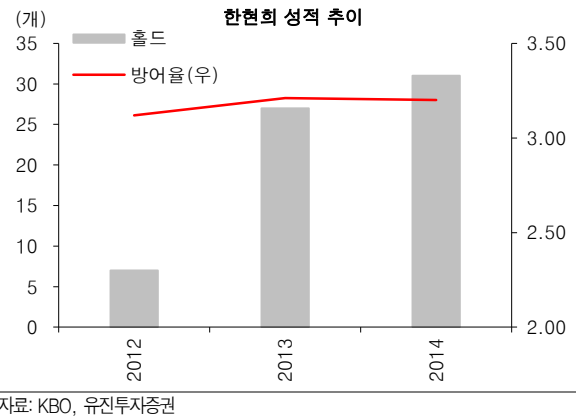


도표 153 한현희 점점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전망





6위: NC다이노스- 용병1인의 빈자리가 크지 않을까?

1. 타자: 화수분 야구, 올해는 누가 튀어나올지?

1) 상위타선(1, 2번 타자: 박민우, 이종욱)

신생팀임에도 신인선수 육성에 뛰어난 김경문 감독과 두산산 베테랑들이 대거 영입되어 전력안정화가 빠르게 이루어진 NC는 상위타선에서 그 시너지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있다. 신인 박민우와 베테랑 이종욱은 2014년 0.367의 출루율과 총 65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상위타선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은 느려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타율(0.288)과 출루율(0.343), 장타율(0.754)로 건재한 모습을 보이는 이종욱과 2014년 풀타임 출전하며 0.298의 타율과 50개의 도루를 기록한 박민우의 성장이 기대된다.

도표 154 작년 신인왕 박민우의 성장을 기대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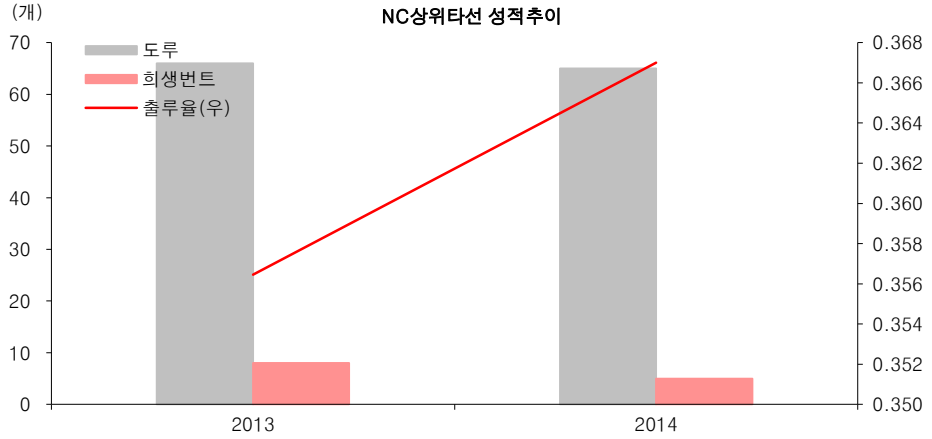
■ 연봉: 9천 5백만원

■ 연봉: 5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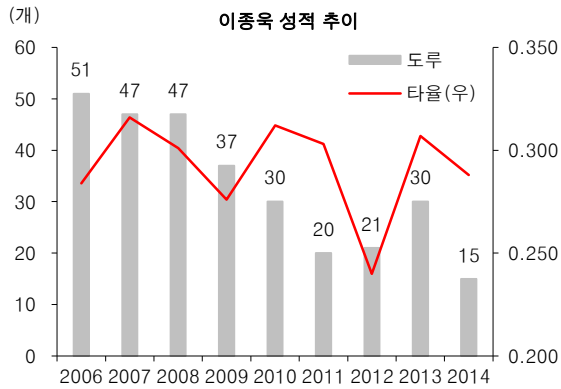


도표 155 이종욱의 합류로 더욱 강력해진 NC의 상위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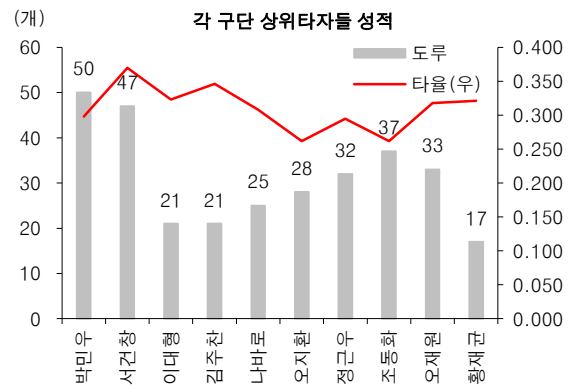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56 도루는 감소했지만 꾸준한 이종욱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57 박민우는 이미 상급 상위타자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클린업(3, 4, 5번 타자: 나성범, 테임즈, 이호준)

2014년 각성한 나성범과, 용병 테임즈, 그리고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호준으로 이어지는 NC의 클린업은 리그 최고수준의 파괴력을 보여준다. 2014년 OPS 0.952와 90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NC에 이은 리그 2위의 장타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득점권 타율 또한 0.340으로 0.369의 SK에 이은 2위이다. 2015년에도 나성범, 테임즈가 뛰어난 활약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호준의 노쇠화에 따른 기량 하락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무게감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58 2015년에도 나성범, 테임즈가 뛰어난 활약을 펼칠 것



■ 연봉: 2억 2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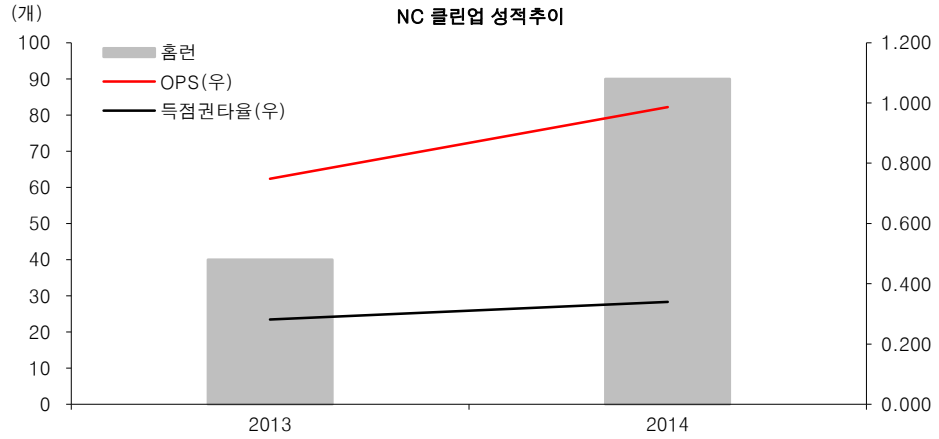
■ 연봉: 11억원

■ 연봉: 4억 5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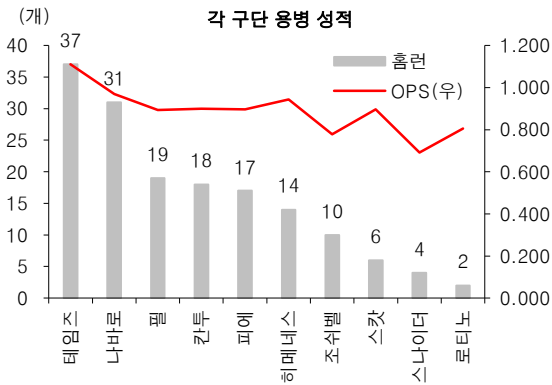


도표 159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력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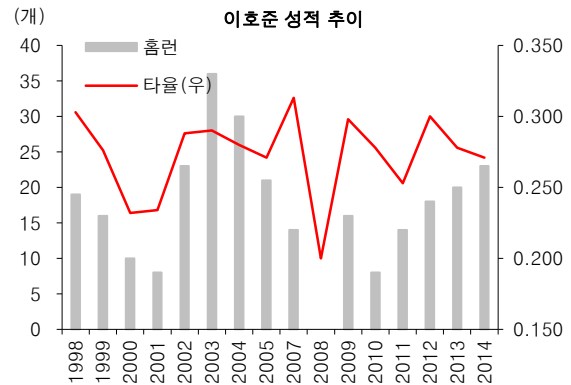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60 테임즈는 용병 타자들 중 가장 강력한 장타력 보유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61 이호준의 기량하락 리스크가 있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손시현, 김태군, 모창민, 김종호)

NC의 하위타선은 2014년 0.270의 타율과 33개의 홈런으로 평이한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하위타선에서 준수한 장타력을 보이던 권희동이 군입대를 함에 따라 무게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빈자리를 김경문 감독이 어떤 선수를 키워냈을 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62 무난한 모습을 보인 하위타선



연봉: 4억원



연봉: 1억 3천5백만원



연봉: 1억 4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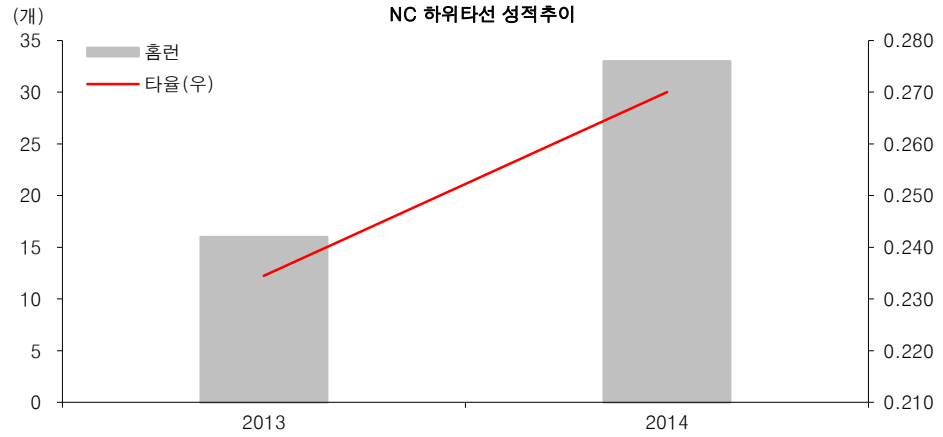


연봉: 1억 1천5백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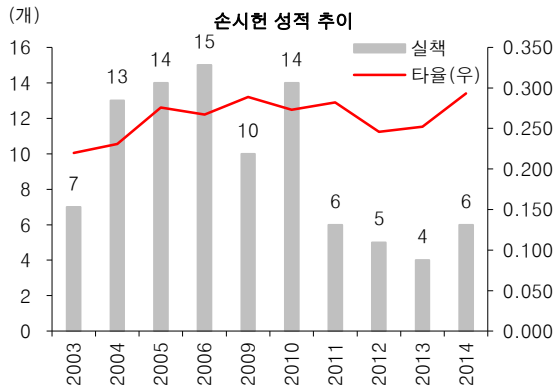


도표 163 새로운 신인 탄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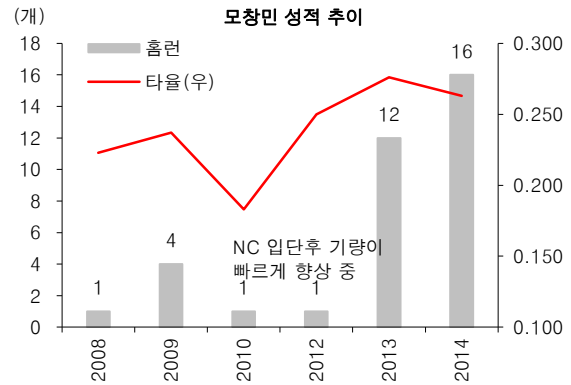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64 베테랑 유격수 손시현은 올해에도 꾸준한 성적 전망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65 모창민은 NC 입단 후 기량이 빠르게 향상 중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용병투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질 것

1) 선발(찰리, 에릭, 이재학, 손민한, 이태양, 이민호)

2014년은 NC의 선발진은 용병 3명의 힘으로 방어율 4.48, WHIP 1.51, 평균 114.7이닝을 소화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용병투수 한명의 이탈로 2014년에 비해서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이태양 or 이민호의 선발 기용과 시범경기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41세의 노장 손민한의 체력저하는 NC 선발진의 큰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된다.

도표 166 용병 1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으로 예상됨



■ 연봉: 11억원

■ 연봉: 5억 6천만원

■ 연봉: 1억 8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67 용병투수 1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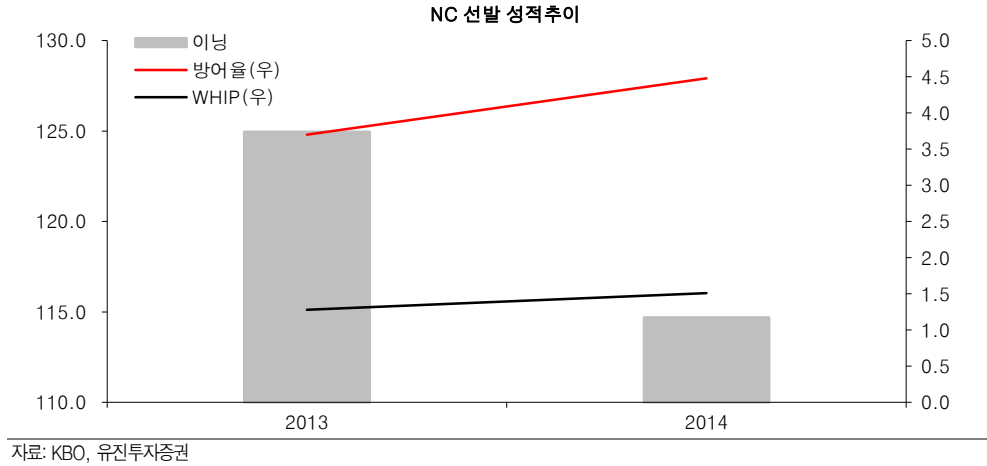


도표 168 용병 제외하면 검증된 선발은 이재학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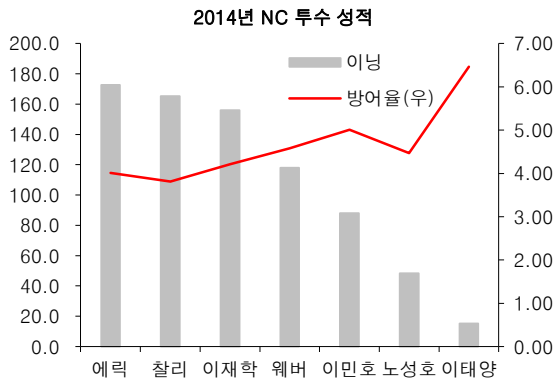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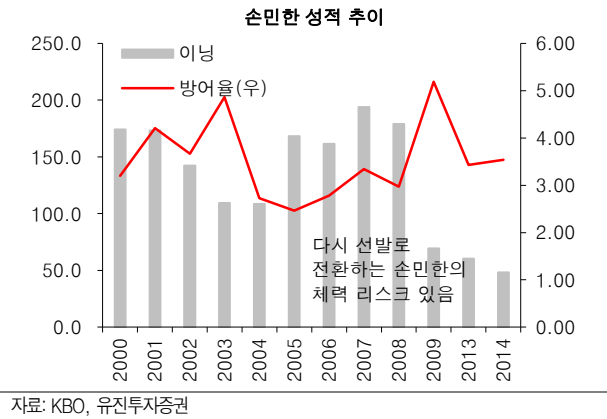


도표 169 손민한의 체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





2) 계투(이승호, 박명환, 이혜천, 원종현, 고창성, 김진성)

NC의 계투진은 2014년 방어율 4.30에 WHIP 1.62로 리그 평균수준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원종현, 손정욱, 김진성 등 비교적 어린 선수들이 활약했던 2014년에 2015년에는 이혜천, 박명환 등 베테랑 선수들의 힘이 가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25세이브를 기록하며 NC 마무리로써 훌륭하게 활약한 김진성이 올해 어떤 활약을 할 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170 새로 합류하는 베테랑들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



■ 연봉: 6천 2백만원



■ 연봉: 8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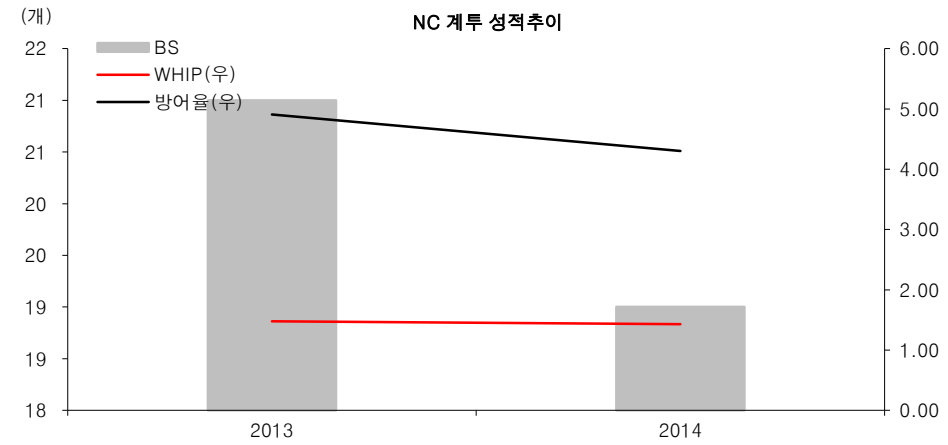


■ 연봉: 1억 5백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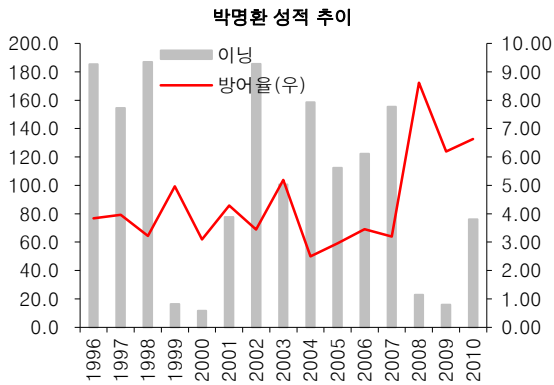


도표 171 베테랑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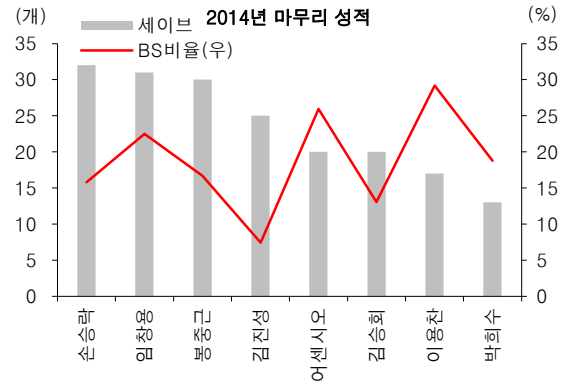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72 박명환의 예전의 모습을 찾을 지가 관건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73 김진성의 작년 성적은 뛰어났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7위: 롯데자이언츠 – 총체적 난국

1. 타자: 이대호가 그리운 클린업

1) 상위타선(1, 2번 타자: 아두치, 황재균)

롯데 상위타선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주찬의 이탈 이후 도루 개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4년에는 리그 최하위인 15개의 상위타자 도루를 기록하였으며, 출루율 또한 0.371로 리그 상위타자 평균인 0.389를 크게 하회하였다. 2015년에는 아두치-황재균으로 이어지는 상위타선이 예상되며, 아두치가 나바로만큼의 활약을 할 수 있다면 롯데의 전력에 큰 플러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174 전준우의 군입대로 인한 전력 약화가 있을 것



■ 연봉: 3억 1천만원

■ 군입대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75 김주찬의 이탈 이후 기동력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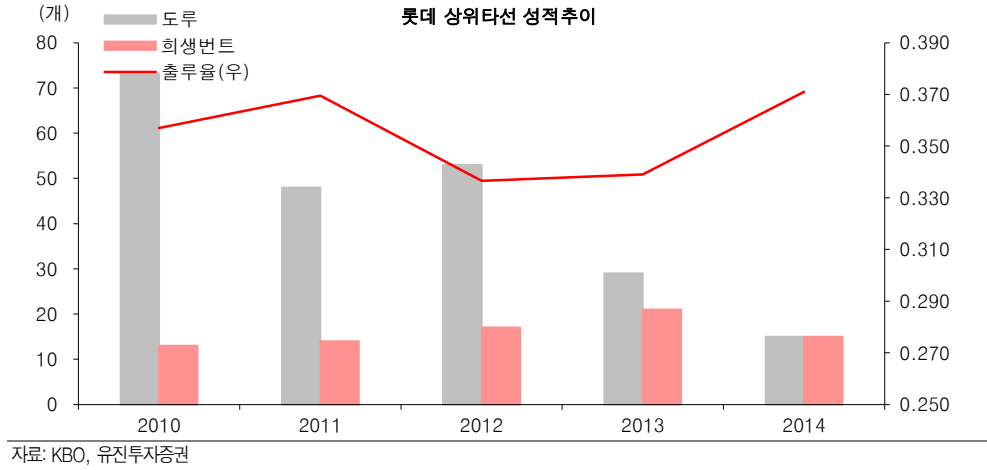


도표 176 황재균의 성적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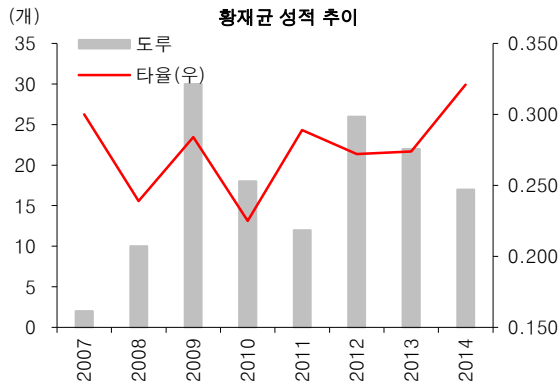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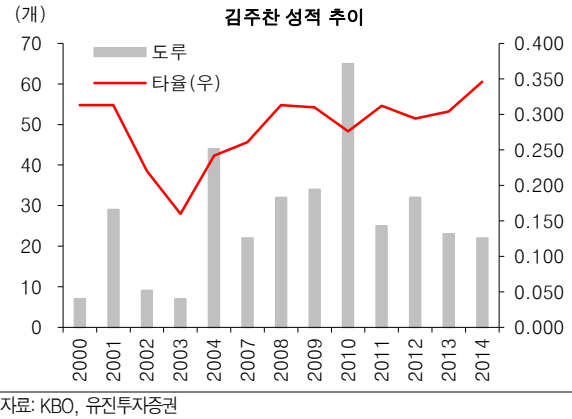


도표 177 김주찬의 이적으로 상위타선 약화





2) 클린업(3, 4, 5번 타자: 손아섭, 최준석, 임재철)

한때 홍대갈 트리오(홍성흔-이대호-가르시아)로 불리며 역대급 클린업을 자랑하던 롯데는 이대호의 일본 이적 및 홍성흔의 두산 이적과 함께 예전의 위용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4년 롯데 클린업의 성적은 OPS 0.952, 홈런 55개를 기록했다. OPS는 리그 평균인 0.947을 소폭 상회하며 괜찮은 성적을 보였으나, 리그 클린업 평균 홈런수인 63개를 하회하는 55개의 홈런은 분명한 롯데 타선의 약점이다. 손아섭, 최준석, 임재철 모두 홈런 타자가 아니라는 점은 2015년에도 롯데 클린업의 무게감을 떨어뜨리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도표 178 홈런 타자가 필요한 롯데의 클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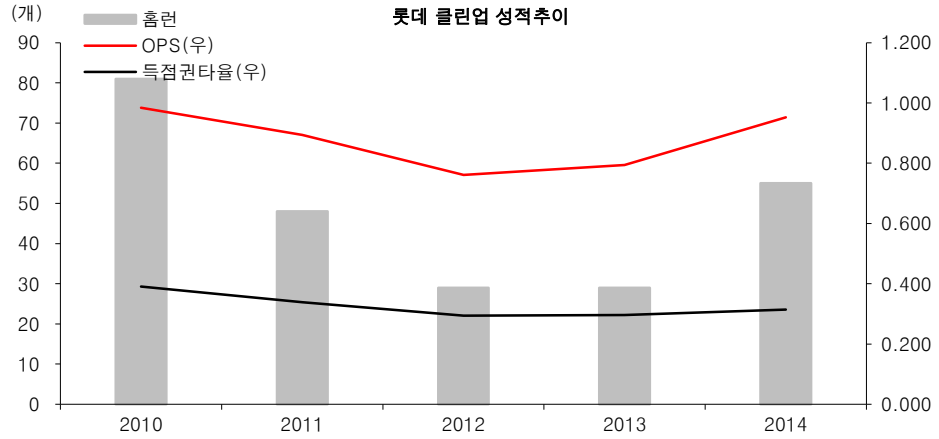
■ 연봉: 5억원

■ 연봉: 4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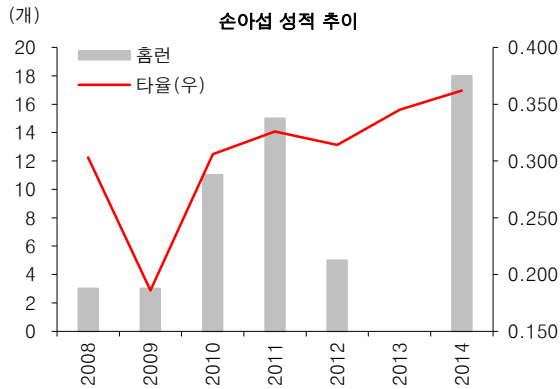


도표 179 장타력의 부재가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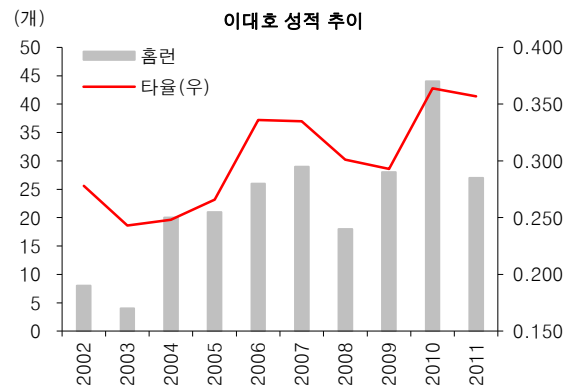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80 손아섭이 올리는 더 나은 장타력을 보여줄지가 중요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81 이대호의 빈자리가 아쉬움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정훈, 문규현, 강민호, 박종윤)

2014년 롯데 하위타선은 0.285의 타율과 3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리그 평균 이상의 성적을 기록하였다. 2015년은 강민호의 부활여부가 롯데 하위타선 성적의 키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2014년 좋은 성적을 보였던 박종윤, 정훈, 문규현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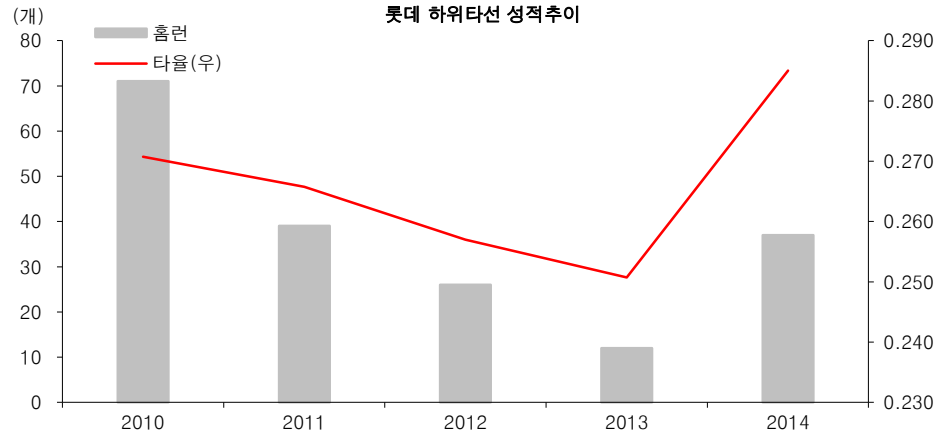
도표 182 강민호의 부활이 필요함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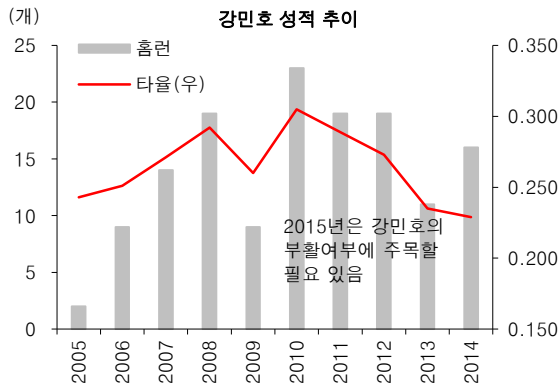


도표 183 강민호의 부활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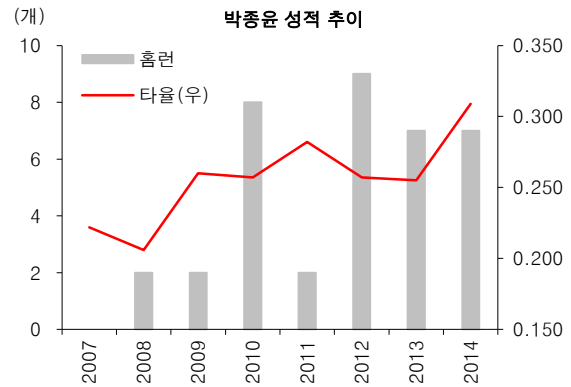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84 강민호가 올해는 좋은 모습을 보일 지가 중요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85 박종윤은 2014년 큰 폭의 성적 상승 보임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과도한 전력이탈

1) 선발(린드블럼, 레일리, 송승준, 홍성민, 조정훈, 심수창)

2014년 유민과 송승준이 부진했던 롯데의 선발진은 방어율 5.30, WHIP 1.56으로 리그 평균수준의 성적을 보여주었다. 2015년은 1선발 장원준의 두산 이적으로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새 용병 2명과 군생활을 마친 조정훈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 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항상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던 송승준의 부활 여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표 186 조정훈이 장원준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 연봉: 3억 4천만원



■ 연봉: 7천만원



■ 연봉: 6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87 이닝소화능력, 방어율 모두 약점을 보이는 롯데 선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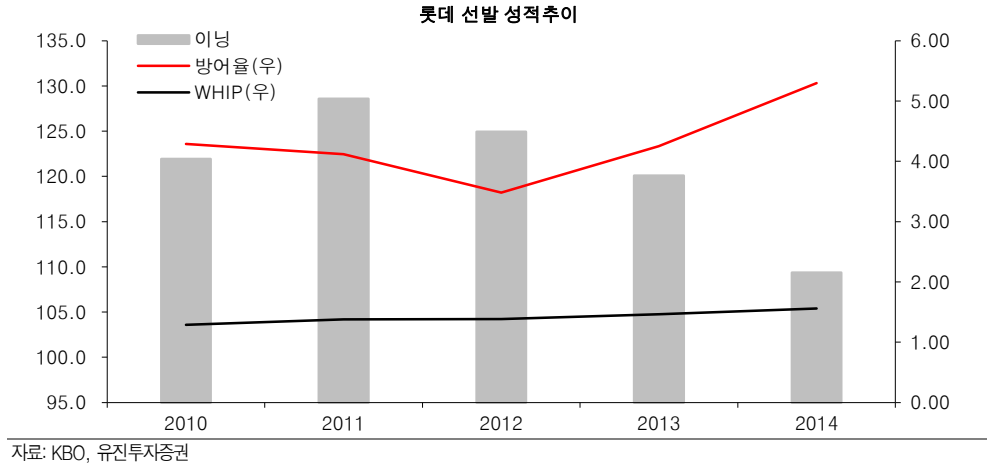


도표 188 장원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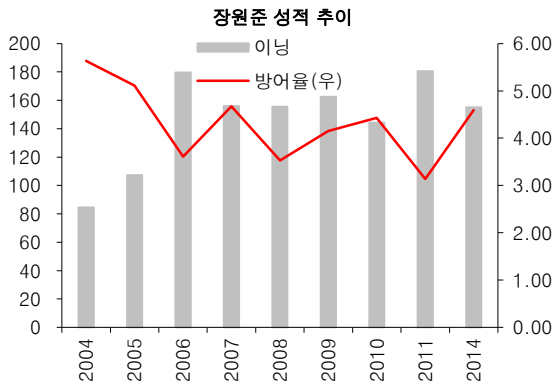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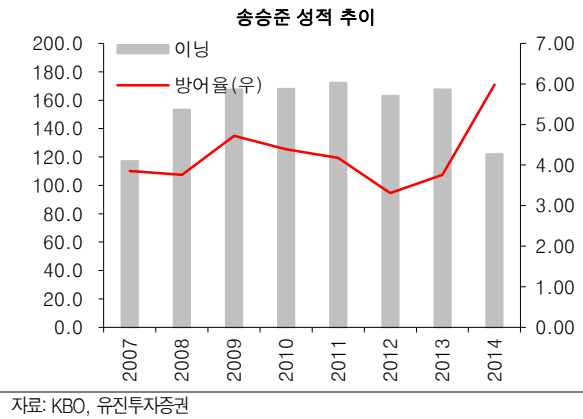


도표 189 송승준이 예년 성적을 보일 수 있을지?





2) 계투(강영식, 최대성, 이명우, 김성배, 김승희, 정재훈)

롯데의 2015년 계투진 또한 불안한 모습이 전망된다. 주 계투 요원이었던 강영식과 정대현이 현재 팔꿈치 뱀조각 수술로 전력 이탈 상태이며, 김사율은 2014년 시즌 이후 KT로 이적하였다. 또한 이명우, 김성배, 는 작년에 각각 7.02, 5.98의 방어율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등 2015년에도 롯데 불펜진의 안정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90 롯데 계투진 또한 주요전력이 이탈한 상태



■ 연봉: 3억원



■ 연봉: 1억 9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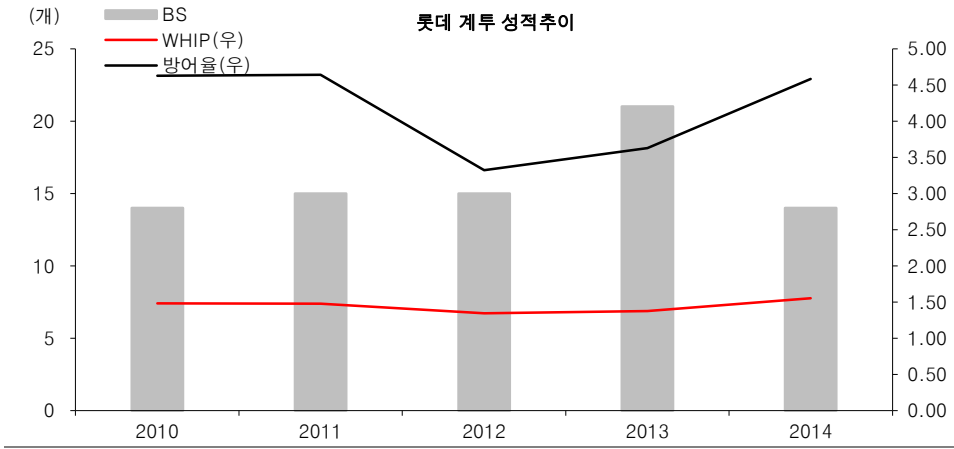


■ 연봉: 8천 5백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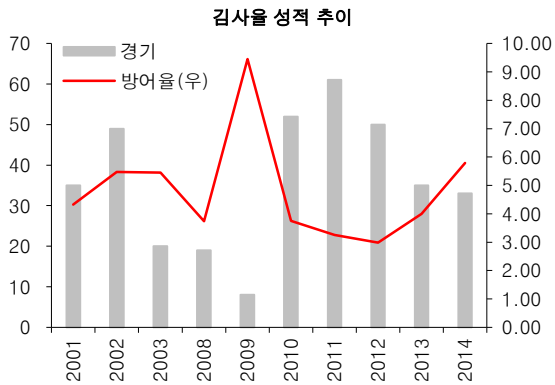


도표 191 주요 선수의 이탈로 2015년에도 불안한 모습이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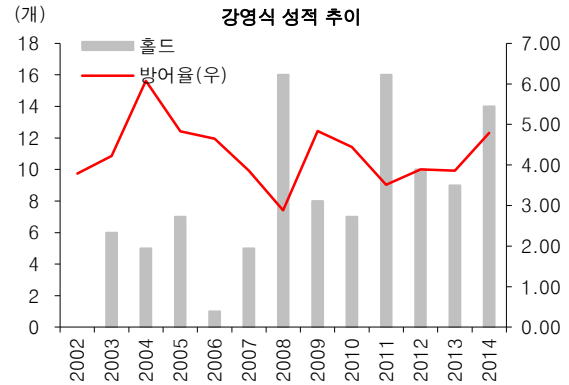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92 중요한 계투진이었던 김사율의 KT 이적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193 강영식도 현재 전력 이탈 상태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8위: 기아타이거즈- 왕조의 재건은 언제쯤

1. 타자: 상위만 강한 타선

1) 상위타선(1, 2번 타자: 김주찬, 신종길)

2014년 이대형, 김주찬이 맡았던 기아의 상위타선은 출루율 0.385, 도루 44개로 리그 상위타자 평균에 수렴하는 성적을 기록하였다. 이대형의 KT 이적으로 2015년은 김주찬과 신종길이 상위타선을 맡게될 것으로 전망되며, 둘은 2014년 41개의 도루, 18개의 홈런을 기록하여 기동력 뿐만 아니라 장타력 또한 갖춘 상위 타선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표 194 신종길-김주찬의 상위타선은 강력함



■ 연봉: 1억 2천만원



■ 연봉: 5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95 출루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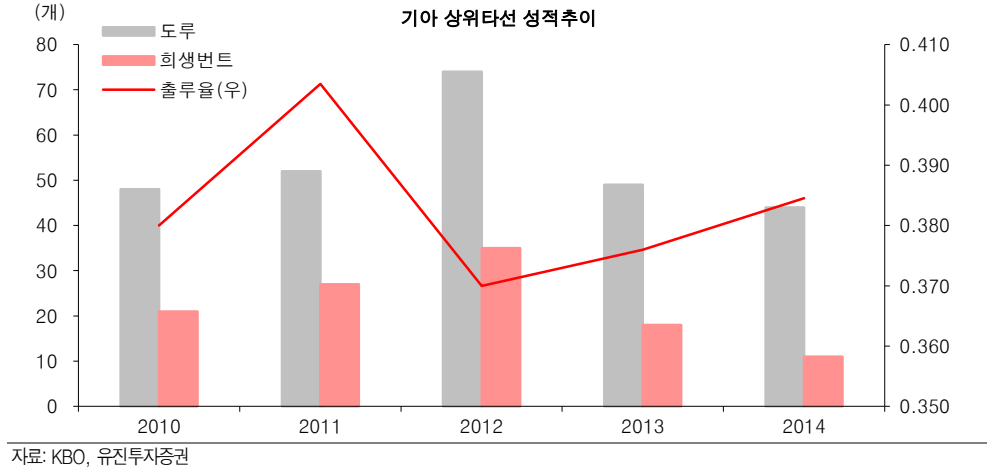


도표 196 김주찬의 가세로 상위타선 크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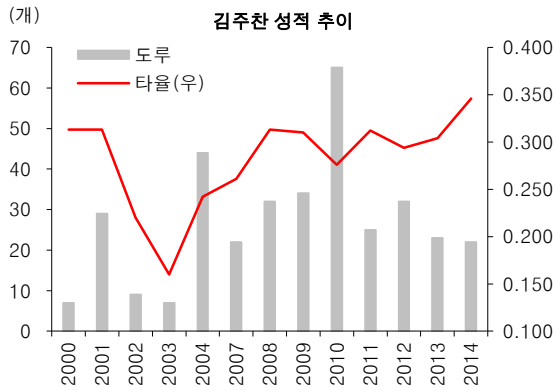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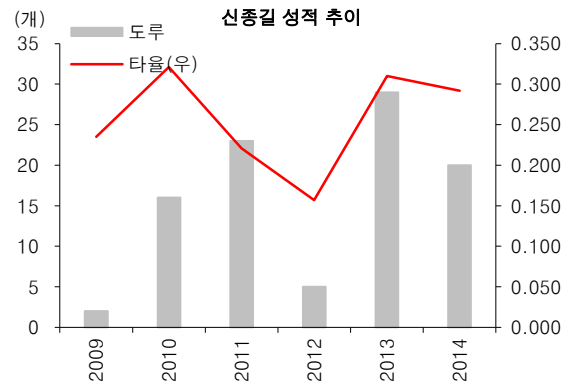


도표 197 신종길도 2013년부터 좋은 모습 보이는 중





2) 클린업(3, 4, 5번 타자: 필, 이범호, 나지완)

2009년 NCK 트리오 이후 기아의 클린업은 그 존재감이 약하다고 평가 받아왔다. 2014년에도 기아의 클린업은 OPS 0.914(7위), 홈런 56개(4위), 득점권타율 0.290(9위)로 장타력 및 타점 생산능력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나지완과 이범호가 꾸준히 성적이 개선되고 있으며 2014년은 마무리 어센시오의 기용으로 필의 출전수가 다소 적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5년 기아 클린업은 작년보다 좋은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198 올해는 필의 풀타임 출장으로 성적 개선이 전망됨



■ 연봉: 2억 5천만원

■ 연봉: 2억 5천만원

■ 연봉: 4억원

자료: 엔트리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199 장타력 및 특점권타올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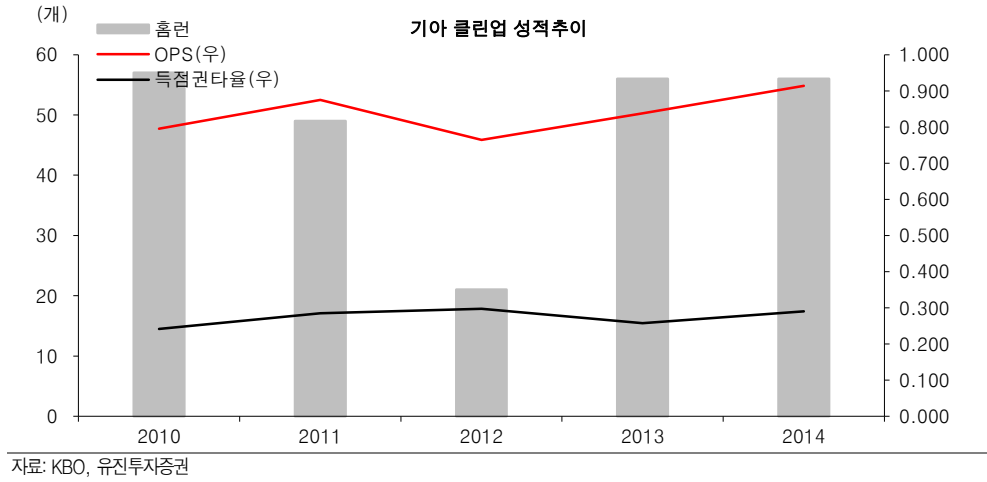


도표 200 2013년과 2014년 부진했던 이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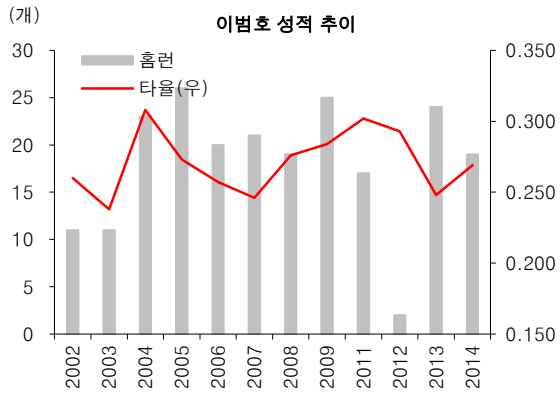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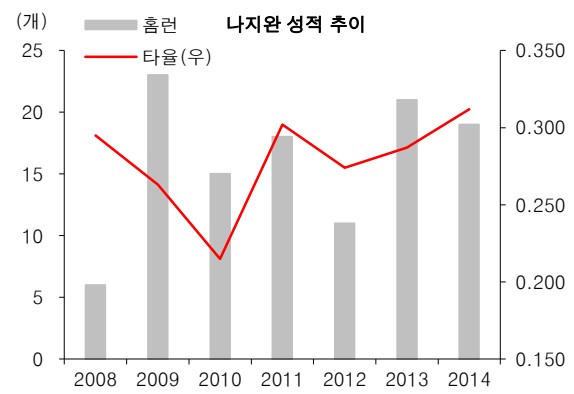


도표 201 나지완의 기량은 점점 향상 중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최희섭, 김민우, 강한울, 차일목)

2014년 기아의 하위타선은 홈런 30개를 기록하며 비교적 준수한 장타력을 보였으나 타율이 0.254(9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2015에는 김민우(통산타율: 0.245), 차일목(통산타율: 0.237) 보다는 신인 강한울과 새롭게 복귀한 최희섭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도표 202 최희섭, 올해는 부활할 수 있을까?



■ 연봉: 7천만원



■ 연봉: 9천 3백만원



■ 연봉: 3천 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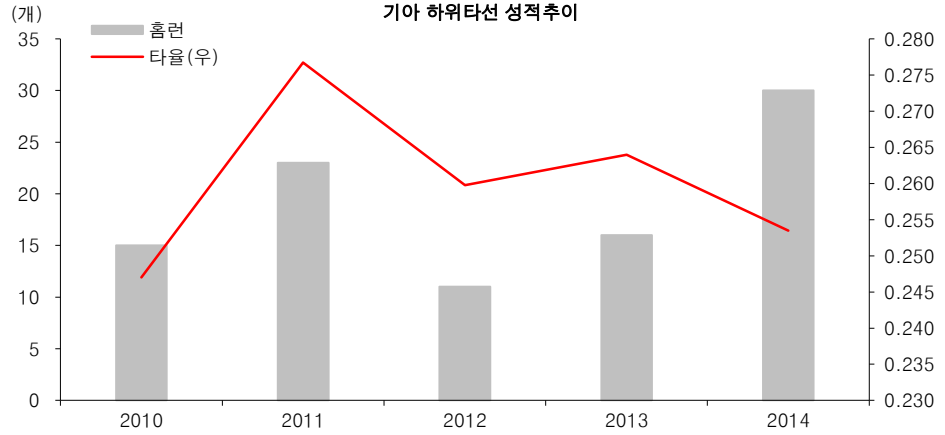


■ 연봉: 1억 5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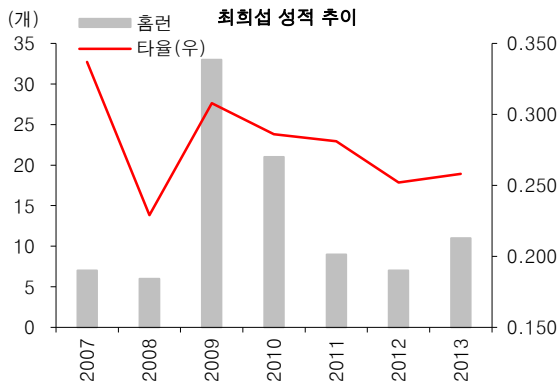


도표 203 기아의 하위타선은 전통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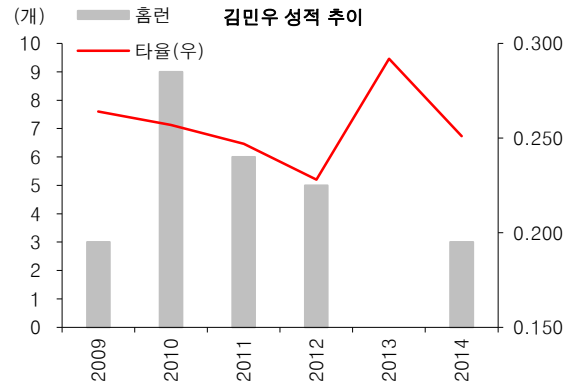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04 최희섭이 올해는 좋은 성적을 보여줄지가 관건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05 김민우는 올해도 큰 성적변화 없을 전망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선발은 강화, 그러나 불펜은..?

1) 선발(윤석민, 양현종, 스티븐, 험버, 임준섭, 김병현)

2014년 양현종을 제외하면 믿을만한 선발이 없었으며, 평균이닝소화 106이닝, 방어율 5.92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기아의 선발진이었으나 올해는 개선의 여지가 크다. 먼저 외국인투수 2명 모두를 선발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국내 복귀한 윤석민이 합류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검증된 선발자원인 양현종, 윤석민에 외국인 용병이 제 몫을 해준다면 2015년 기아의 선발진은 작년보다 크게 개선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복귀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김병현과 올해도 여전히 기대주로 평가받는 임준섭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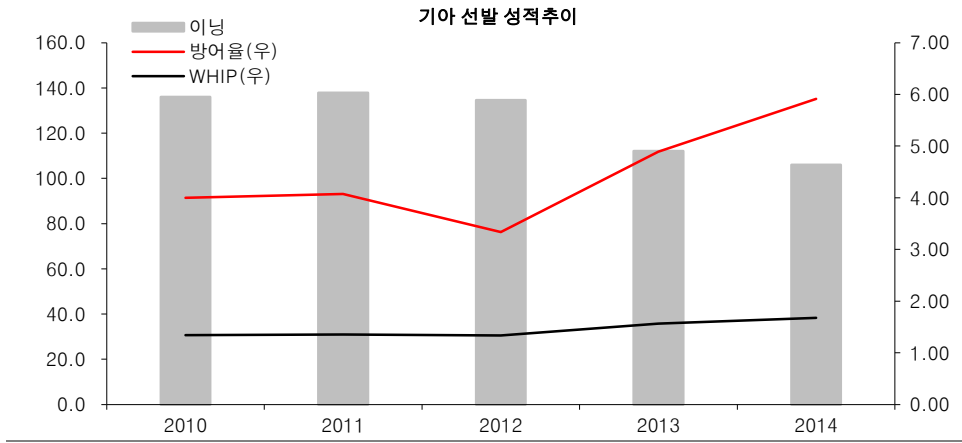
도표 206 토종 원투펀치는 가장 강력함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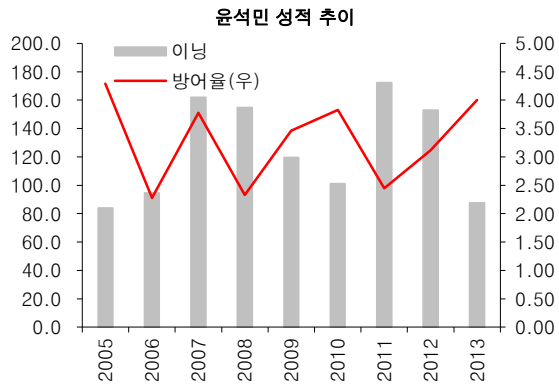


도표 207 2015년 기아 선발진은 큰 폭의 성적향상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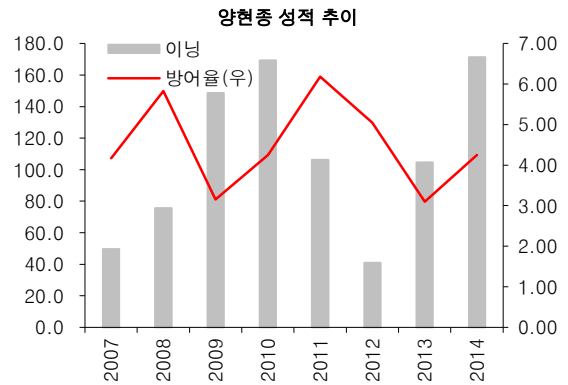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08 윤석민을 진짜 마무리로 사용할지 ..?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09 양현종은 체력보강이 관건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계투(심동섭, 최영필, 박준표, 임준혁, 한승혁, 김태영)

강화된 선발과 달리 기아의 계투진은 2015년에도 여전히 기아의 불안요소이다. 계투진 누구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며, 전담 마무리 또한 없다. 2014년 기아 계투진의 방어율은 5.30(7위), 블론세이브는 총 21개(1위)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모습은 2015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한기주와곽정철이 2군에서 재활 중이나 큰 기대를 가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210 계투진은 2015년에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연봉: 9천 1백만원



■ 연봉: 1억 3천만원



■ 연봉: 1억 8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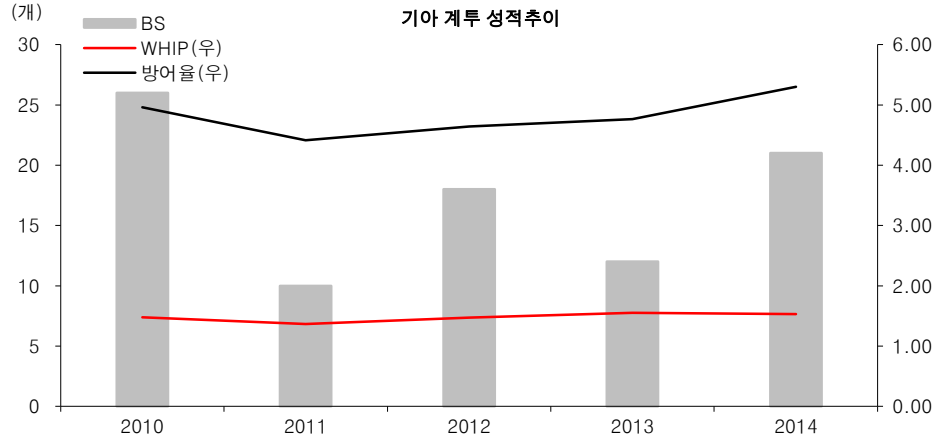


■ 연봉: 5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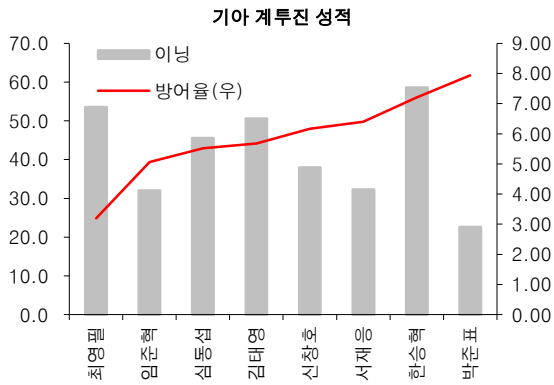


도표 211 특이 전담 마무리의 존재가 필수적인 기아 계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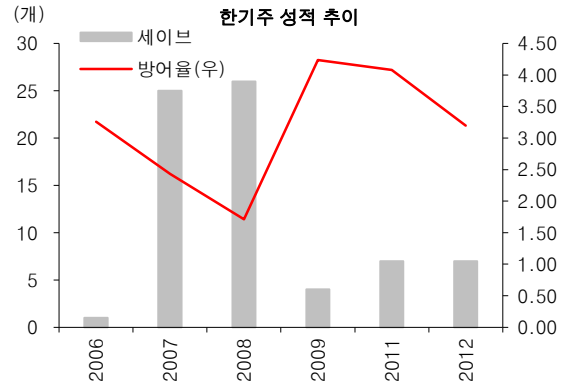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12 믿을만한 계투진이 없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13 한기주의 복귀여부에 주목할 필요 있음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9위: 한화이글스- 독수리의 비상은 언제쯤

1. 타자: 작년과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

1) 상위타선(1, 2번 타자: 이용규, 정근우)

네임밸류로만 보면 10개 팀중 최강인 한화의 상위타선이나 작년 성적은 출루율 0.388, 도루 44개로 기대치에 훨씬 미달하였다. 어깨 부상에서 회복된 이용규가 예전의 기량을 찾는다면 올해 한화의 상위타선은 무서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214 이용규가 올해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가 중요



■ 연봉: 7억원



■ 연봉: 7억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215 이용규가 예전의 기량을 찾을 수 있을지를 주목하여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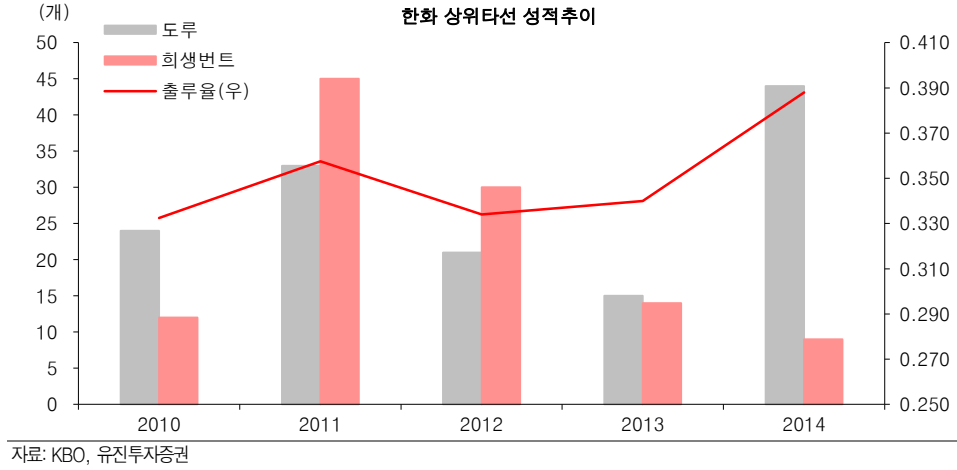


도표 216 정근우는 올해도 좋은 성적을 보여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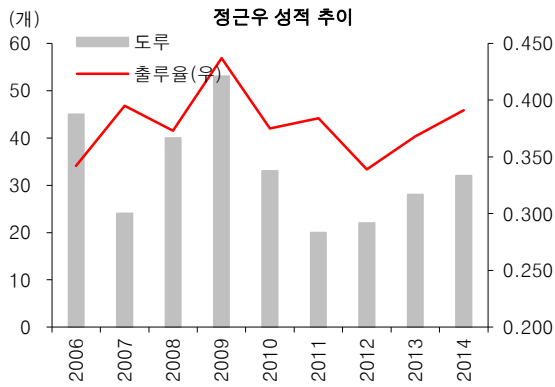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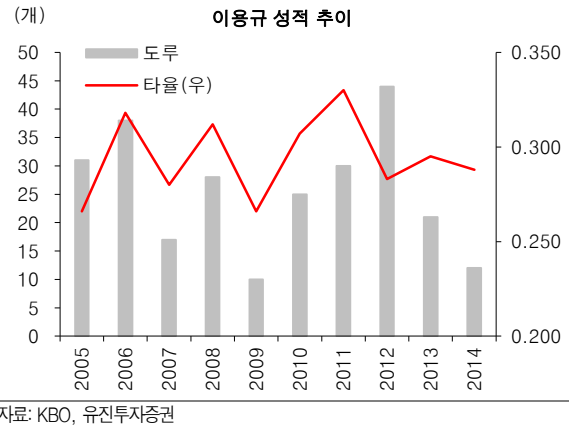


도표 217 이용규도 올해는 더 나은 성적 기대





2) 클린업(3, 4, 5번 타자: 김태균, 최진행, 모건)

김태균과 최진행, 모건으로 이어지는 한화 클린업의 가장 큰 약점 또한 장타율이다. 김태균과 최진행은 2013년 이후 각각 평균 14개, 10개의 홈런을 기록 중이며, 득점권 타율 또한 0.298로 기아에 이은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과연 2015년에는 김태균이 거포로 변신이 가능할 지 여부와 새로 영입한 모건이 클린업에 서 어떤 활약을 해줄 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218 클린업의 장타력 상승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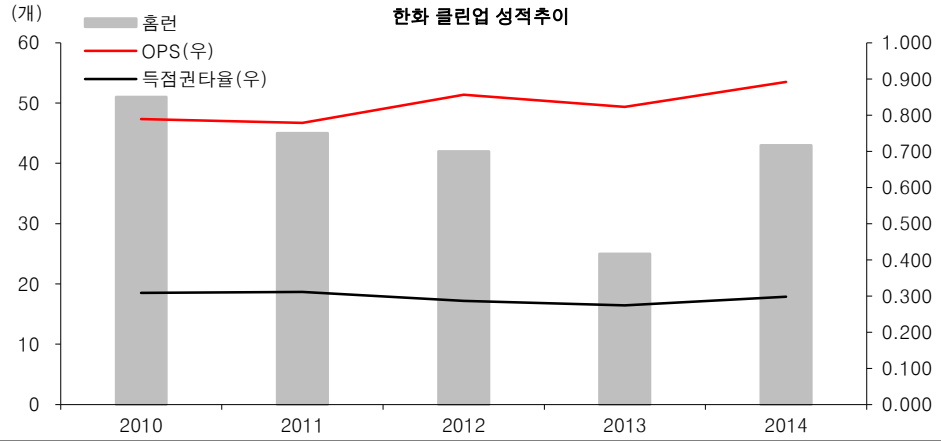


- 연봉: 15억원
- 연봉: 1억 5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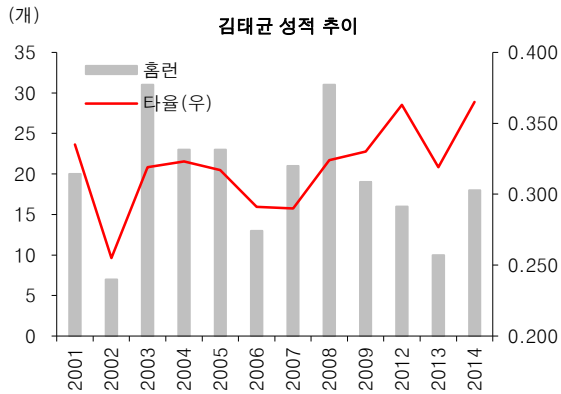


도표 219 한화 클린업 또한 장타력이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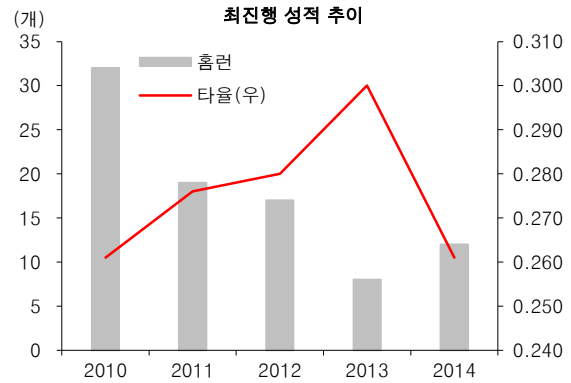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20 김태균은 장타자로서의 역할 전환이 필요할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21 최진행도 더 많은 홈런이 필요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김태완, 한상훈, 송광민, 정범모)

2014년 한화 하위타선은 타율 0.281, 홈런 26개를 기록하며 무난한 성적을 기록하였다. 2015년에는 송광민이 작년의 호성적(타율: 0.316, 홈런 11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와, 어깨부상으로 재활중인 김태완의 복귀 시기가 중요할 것이다. 조인성의 노쇠화로 로테이션으로 포수 마스크를 쓸 정범모가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지도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표 222 송광민과 김태완이 제 몫을 다해주어야 할 것



■ 연봉: 9천만원



■ 연봉: 2억원



■ 연봉: 1억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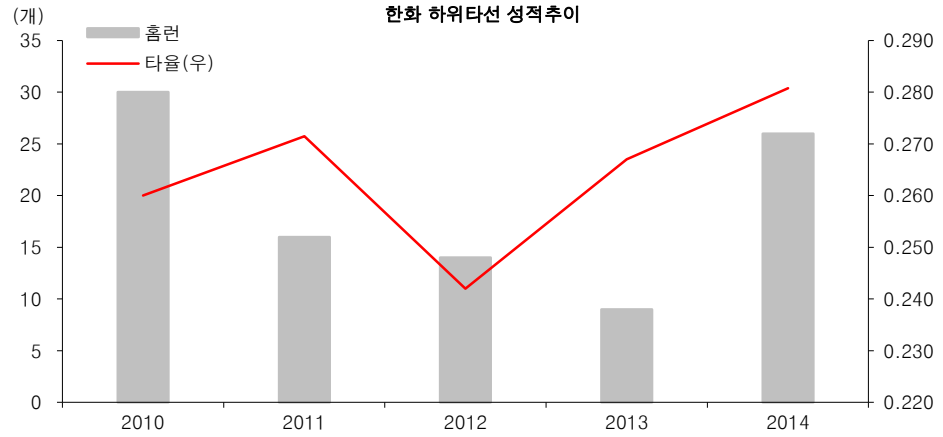


■ 연봉: 7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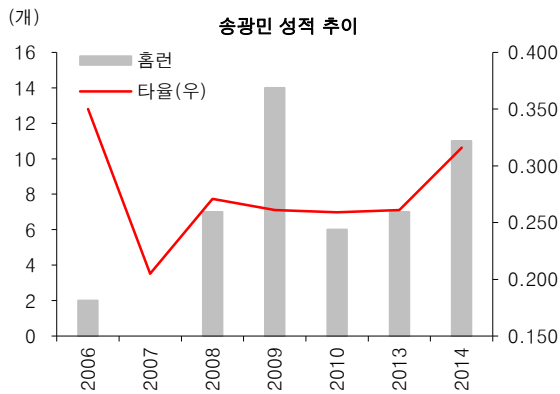


도표 223 2015년에는 하위타선에서의 장타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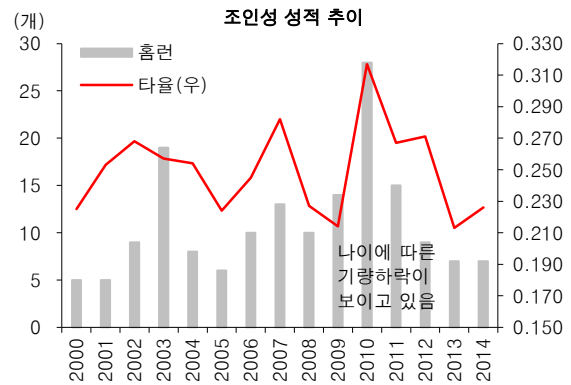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24 송광민이 성적 상승세를 이어갈지가 중요할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25 조인성은 기량 하락세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빛 좋은 개살구인가 클래스는 영원할 것인가

1) 선발(유면, 탈보트, 배영수, 송은범, 이태양, 유창식)

2015년 한화는 투수진의 대폭적인 보강을 하였다. 나름(?) 검증된 용병인 유면과 탈보트를 영입하였으며, 푸른피의 에이스 배영수와 김성근 감독의 애제자였던 송은범을 FA로 영입하였다. 네임밸류로만 보면 분명히 화려한 선발진이나 실제 성적은 장담하기 어렵다. 배영수는 2007년 토미존 서저리 수술을 받은 이전과 이후 평균 방어율이 3.70에서 5.0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송은범은 최근 2년간 평균방어율이 7.33을 기록하고 있다. 과연 이 두명이 한화에서 이름값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지를 올해는 기대해보아야 하나 그리 낙관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226 검증된 용병 및 FA영입을 통해 선발진을 강화



■ 연봉: 4억원

■ 연봉: 4억 1천만원

■ 연봉: 5억 5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227 류현진 이적 이후(2013년 이후) 선발진은 점점 악화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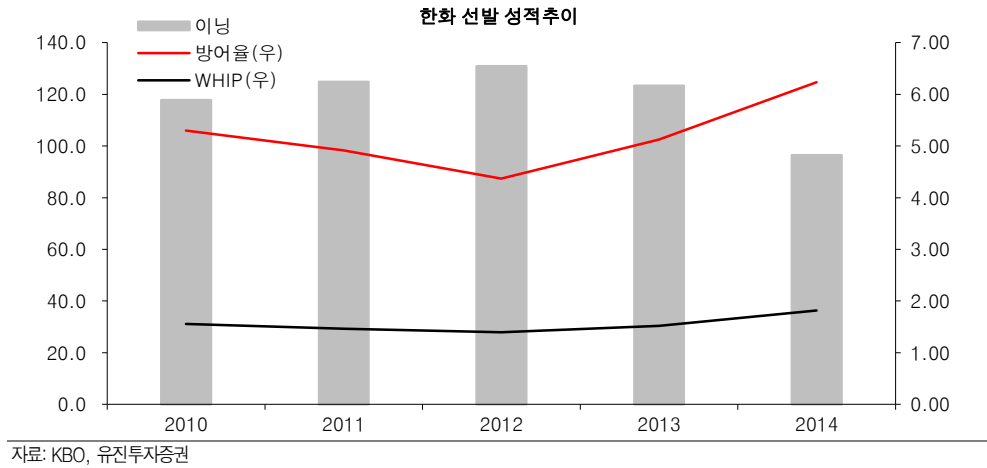


도표 228 부상(2007년)이후 배영수는 예전같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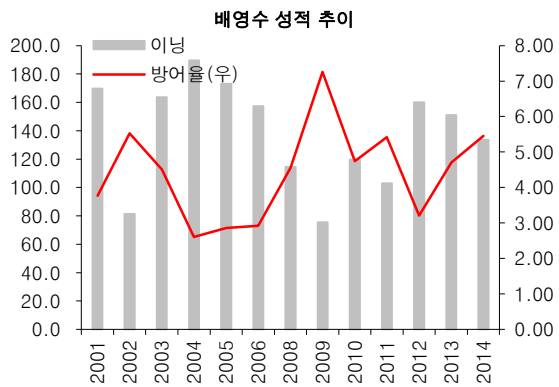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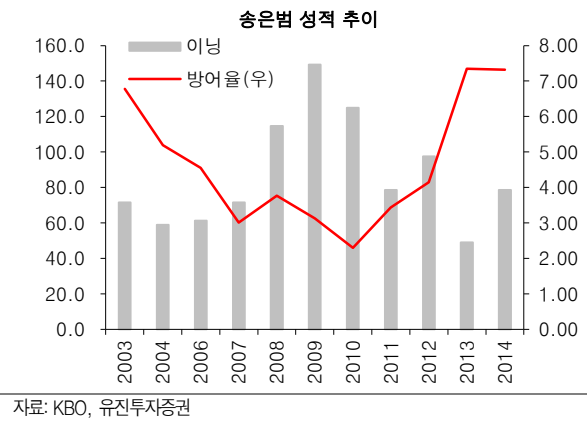


도표 229 송은범도 지난 2년간 극심한 부진





2) 계투(송창식, 안영명, 윤규진, 박정진, 권혁, 양훈)

한화 계투진 또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적이 악화되고 있다. 타고투저 현상에 따른 성적악화 이외에도 특히 위험한 것은 2013년과 2014년 모두 방어율과 WHIP이 리그 최하위 였다는 점이다. 올해는 FA권혁의 영입 및 SK에서 임경완을 영입해왔으나 둘만으로 계투진의 큰 성적향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SK의 별폐야구를 만든 김성근 감독이 과연 계투진을 어떻게 육성하였을 지는 조금 기대해볼 만 할 것이다.

도표 230 권혁의 영입, 그러나 계투진의 강화는 제한적일 것



■ 연봉: 4억 5천만원



■ 연봉: 1억 5천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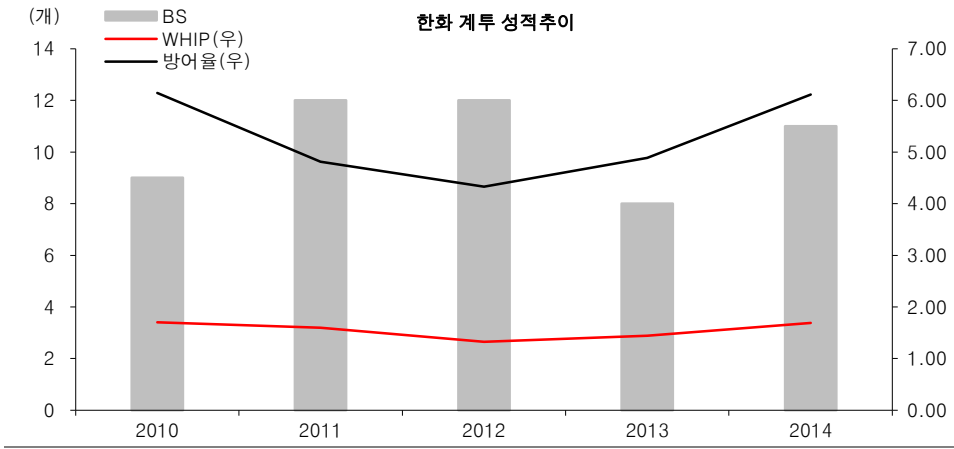


■ 연봉: 1억 2천만원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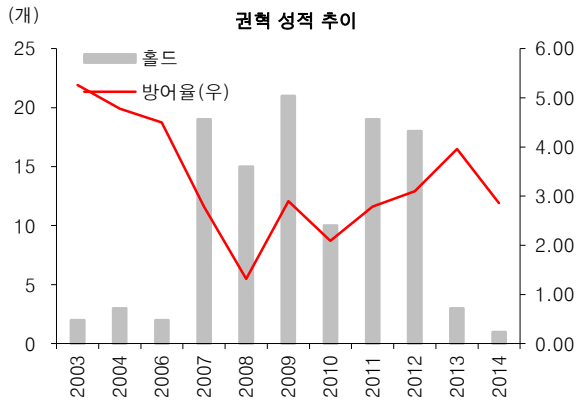


도표 231 한화 불펜진 또한 2012년 이후 지속적인 성적 하락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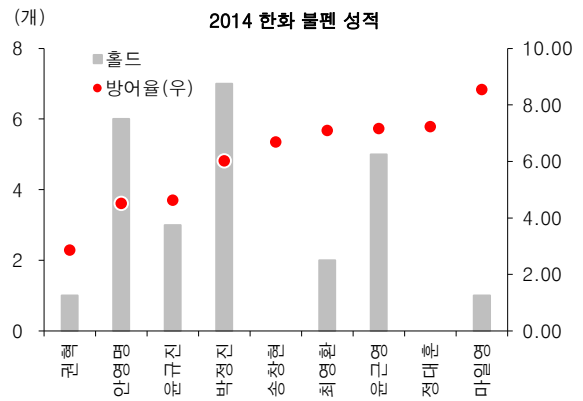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32 권혁의 성적은 꾸준함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33 타 계투진의 성적이 문제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10위: KT위즈- 아직 칼길이 먼 막내

1. 타자: Oldies but Goodies?

1) 상위타선(1, 2번 타자: 이대형, 신명철)

기아와 삼성에서 각각 이적해온 이대형과 신명철이 상위타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적으로 이대형이 작년의 좋은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이후 기량저하가 보인 신명철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도표 234 이대형의 활약이 중요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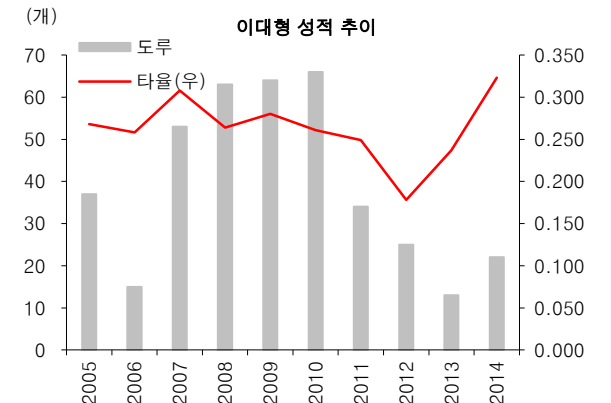
연봉: 3억원



연봉: 8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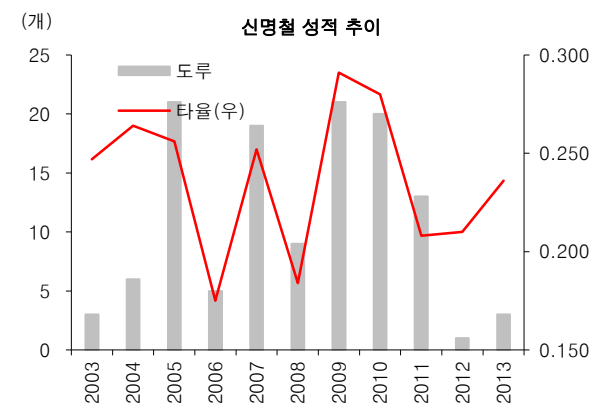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235 2014년의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36 신명철은 2011년 이후 기량 약화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클린업(3, 4, 5번 타자: 박경수, 마르테, 김상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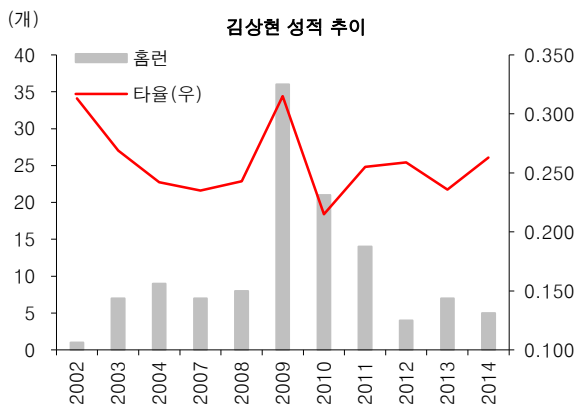
LG에서 이적해온 박경수, 용병 마르테, 김상현이 클린업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옛 스승인 조범현을 다시 만난 김상현이 과연 2009년의 괴물 같은 성적을 다시 기록할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이며, 용병 마르테가 얼마만큼 밥값을 해줄 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박경수가 클린업을 맡는 것은 신생팀의 서러움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도표 237 김상현, 2009년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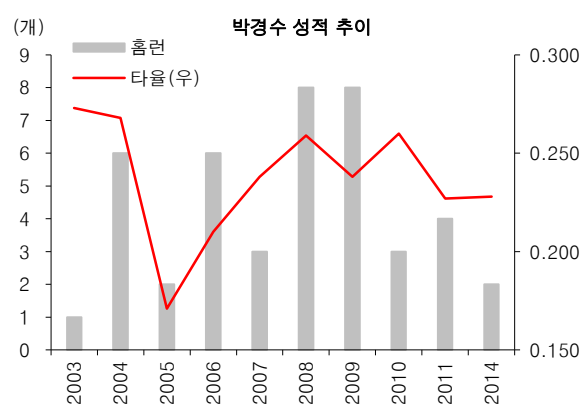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238 김상현은 2009년의 성적을 재현할 수 있을지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39 박경수의 홈런 커리어아이는 8개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3) 하위타선(6, 7, 8, 9번 타자: 박기혁, 김사연, 용덕한, 장성호)

김사연을 제외한 박기혁(35세), 용덕한(35세), 장성호(39세) 베테랑들이 어떤 활약을 해줄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체력적 부담이 있는 이들의 빈자리를 알만큼 탄탄한 유망주들이 메꿔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KT의 2015년은 신인들의 실전경험을 쌓아 미래를 기약하는 해일 뿐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도표 240 베테랑들의 활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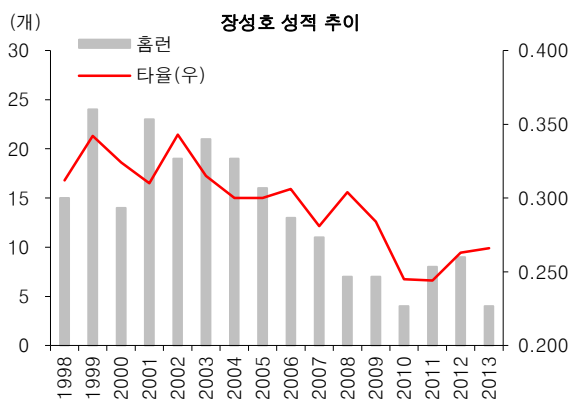
연봉: 7천 5백만원

연봉: 1억 5천만원

연봉: 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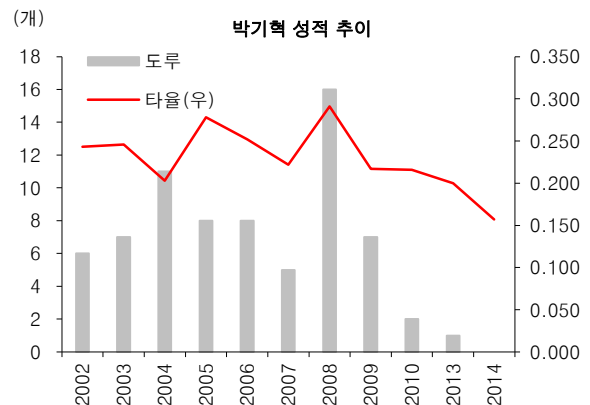
자료: 엔트리브소프트(프로야구매니저), 유진투자증권

도표 241 장성호가 부활할 수 있을 것인지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도표 242 박기혁에게 타격을 기대하기는 힘들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투수: 유망주를 키우는 한해

1) 선발(옥스프링, 시스코, 어윈, 박세웅, 정대현, 장시환)

KT의 선발투수는 롯데에서 이적한 옥스프링을 비롯한 3인의 용병과 신인인 박세웅, 넥센에서 이적해온 장시환 그리고 두산에서 이적해온 정대현이 맡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타자와 마찬가지로 투수 또한 신인선수의 육성이 중요하며, 2015년은 이를 위한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신인은 2014년 퓨처스 북부리그 다승과 탈삼진 타이틀 홀더인 신인 박세웅이다. 2015년 시범경기에서도 2경기에 출전하여 11이닝동안 단 4개의 피안타만을 허용하며 무실점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올해 이 선수의 성장에 주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도표 243 신인 박세웅의 활약에 주목하여야 할 것



자료: KBO, 유진투자증권



2) 계투(심재민, 고영표, 이준형, 엄상백, 유희운, 김사울)

KT의 계투진은 평균연령 22세의 젊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다수의 선수들이 신인이어서 성적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이들이 올해 실전경험을 통해 얼마큼 성장하는 지가 향후 KT 성적에 있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롯데에서 이적해온 김사울이 베테랑으로써 투수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244 KT에서 우선지명으로 선발한 좌완 심재민



자료: 연합뉴스, 유진투자증권



EUGENE
your best
partner.



기업분석

엔씨소프트(036570.KS)

STRONG BUY(유지) / TP 380,000원(유지)

야구단 "가치의 재구성"

your best
partner
유진투자증권



엔씨소프트(036570.KS)

인터넷/게임 담당 정호윤
Tel. 368-6143 / junghy@eugenefn.com

야구단 "가치의 재구성"

■ 야구단의 가치, 지나치게 저평가되어있음

야구는 부정할 수 없는 국내 최고의 인기스포츠이다. 2014년 프로야구 총 관중은 약 650만명으로 프로축구(200만명), 프로농구(100만명) 대비 각각 3.3배, 6.5배 많다. 다만 여전히 국내 프로야구단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0개 구단의 총 가치는 약 350억 달러로 구단의 매출액 대비 평균 4.6배, 관중 1인당 약 490달러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물론 미국 프로야구는 중계 권료의 규모 및 관중 수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사업 규모가 국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국내와 미국에서 야구가 스포츠로서 갖는 위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구단을 단순히 돈먹는하마 라고 격하시켜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 일본 인터넷/게임사들은 야구단 인수에 적극적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게임사들이 야구단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닌텐도의 사장인 아마우치 히로시는 1992년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를 인수하였으며, 소프트뱅크 또한 2004년 후쿠오카 다이에호크스를 인수하였고 가장 근래에는 2012년 DeNA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를 인수하며 야구단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처럼 인터넷/게임사들이 야구단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야구와 게임은 모두 광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마케팅 및 잠재적 고객 확보 측면에서 야구단 인수가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 모바일게임 진출로 야구단 보유에 따른 시너지가 본격화될 전망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보다 유저층이 넓고 다양하다. 즉 20-30대 남성이 주 고객층인 온라인게임만을 영위하던 때에는 야구단 보유에 따른 시너지가 제한적이었으나, 모바일게임 진출에 따라 더 많아진 잠재 고객들에게 엔씨다이노스(엔씨소프트)라는 기업을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너지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는 엔씨소프트의 야구단 운영에 대해 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킨다는 식의 비난은 다소 근시안적이며, 오히려 야구단의 보유가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과 창출할 시너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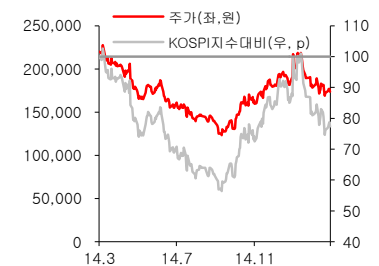
Strong BUY(유지)

목표주가(12M, 유지) 380,000원
현재주가(3/30) 172,500원

Key Data	(기준일: 2015. 3. 30)
KOSPI(pt)	2,030.0
KOSDAQ(pt)	646.7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십억원)	3,782.8
52주 최고/최저(원)	230,000 / 122,000
52주 일간 Beta	0.13
발행주식수(천주)	21,929
평균거래량(3M, 천주)	342
평균거래대금(3M, 백만원)	66,864
배당수익률(13A, %)	0.2
외국인 지분율(%)	39.4
주요주주 지분율(%)	
NEXON CO., Ltd.	14.7
김택진	9.9
국민연금	7.9

Company Performance	1M	3M	6M	12M
주가수익률(%)				
절대수익률	-3.4	-5.2	28.3	-21.6
KOSPI 대비상대수익률	-5.6	-11.2	27.8	-24.1

Company vs KOSPI composite





1. 야구단의 가치,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음

야구는 부정할 수 없는 국내 최고의 인기스포츠이다. 2014년 프로야구 총 관중은 약 650만명으로 프로축구(200만명), 프로농구(100만명) 대비 각각 3.3배, 6.5배 많다. 다만 여전히 국내 프로야구단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30개 구단의 총 가치는 약 350억 달러로 구단의 매출액 대비 평균 4.6배, 관중 1인당 약 490달러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다. 물론 미국 프로야구는 중계권료의 규모 및 관중 수입 등 모든 면에 있어서 사업 규모가 국내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하나 국내와 미국에서 야구가 스포츠로서 갖는 위상이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구단을 단순히 돈먹는하마라고 격하시켜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표 245 메이저리그 구단가치

순위	팀	(백만달러)			(백만명)		구단가치/매출(배)	관중 1인당 구단가치(\$)
		구단가치	매출	영업이익	관중			
1	New York Yankees	3,200	508	8.1	3.3	6.3	970	
2	Los Angeles Dodgers	2,400	403	-12.2	3.7	6.0	649	
3	Boston Red Sox	2,100	370	49.2	2.8	5.7	750	
4	San Francisco Giants	2,000	387	68.4	2.6	5.2	769	
5	Chicago Cubs	1,800	302	73.3	2.1	6.0	857	
6	St Louis Cardinals	1,400	294	73.6	3.0	4.8	467	
7	New York Mets	1,350	263	25.0	3.0	5.1	450	
8	Los Angeles Angels of Anaheim	1,300	304	16.7	3.2	4.3	406	
9	Washington Nationals	1,280	287	41.4	2.7	4.5	474	
10	Philadelphia Phillies	1,250	265	-39.0	3.4	4.7	368	
11	Texas Rangers	1,220	266	3.5	2.4	4.6	508	
12	Atlanta Braves	1,150	267	33.2	1.8	4.3	639	
13	Detroit Tigers	1,125	254	-20.7	3.4	4.4	331	
14	Seattle Mariners	1,100	250	26.4	2.5	4.4	440	
15	Baltimore Orioles	1,000	245	31.4	1.7	4.1	588	
16	Chicago White Sox	975	227	31.9	3.1	4.3	315	
17	Pittsburgh Pirates	900	229	43.6	2.3	3.9	391	
18	Minnesota Twins	895	223	21.3	2.5	4.0	358	
19	San Diego Padres	890	224	35.0	1.8	4.0	494	
20	Cincinnati Reds	885	227	2.2	2.2	3.9	402	
21	Milwaukee Brewers	875	226	11.3	1.6	3.9	547	
22	Toronto Blue Jays	870	227	-17.9	1.8	3.8	483	
23	Colorado Rockies	855	214	12.6	2.5	4.0	342	
24	Arizona Diamondbacks	840	211	-2.2	2.5	4.0	336	
25	Cleveland Indians	825	207	8.9	2.1	4.0	393	
26	Houston Astros	800	175	21.6	1.8	4.6	444	
27	Oakland Athletics	725	202	20.8	1.6	3.6	453	
28	Kansas City Royals	700	231	26.6	1.8	3.0	389	
29	Miami Marlins	650	188	15.4	2.8	3.5	232	
30	Tampa Bay Rays	625	188	7.9	1.5	3.3	417	
합계		35,985	7,864	617	74	4.4	4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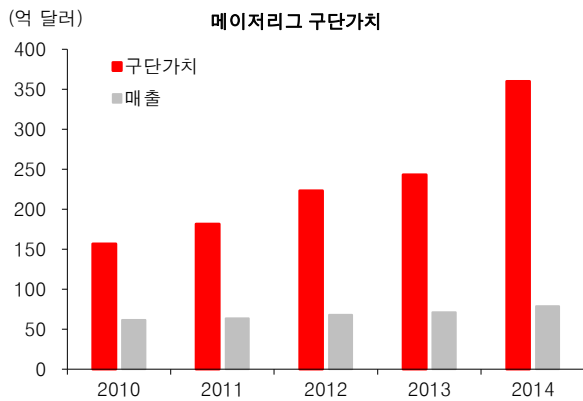
자료: Forbes, 유진투자증권

주: 관중 1인당 구단가치를 미국의 50%로 할인 적용한 엔씨 다이노스의 구단가치는 약 1,35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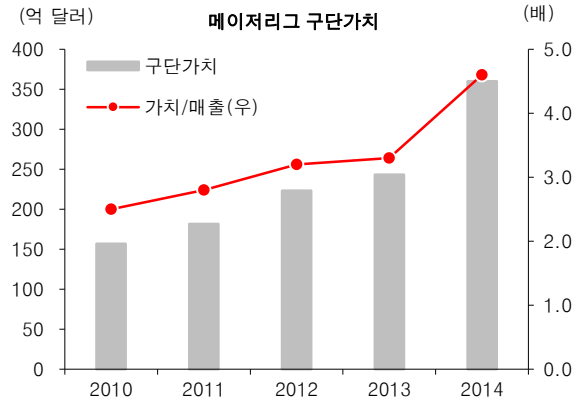
특히 최근 5년간 메이저리그 구단가치의 추세를 살펴보면 매출액 증가보다 훨씬 크게 구단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 관중 규모 및 중계권료 등 야구단이 갖는 사업 자체의 가치가 빠르게 커지고 있으며, 2) 국민 스포츠로서 야구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또한 규모의 차이는 분명하나 같은 방향으로 야구의 시장성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구단의 가치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도표 246 구단가치는 매출액 성장 대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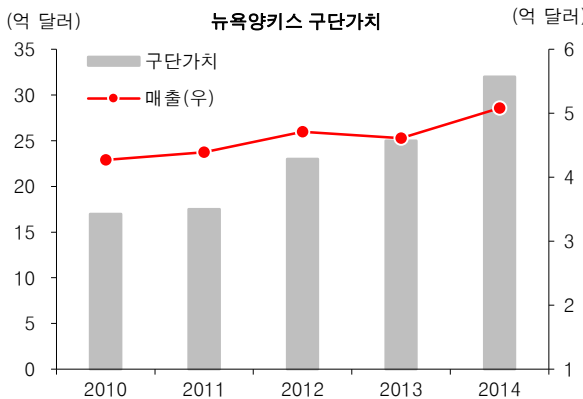
자료: Forbes, 유진투자증권

도표 247 야구단에 부여하는 Valuation이 상승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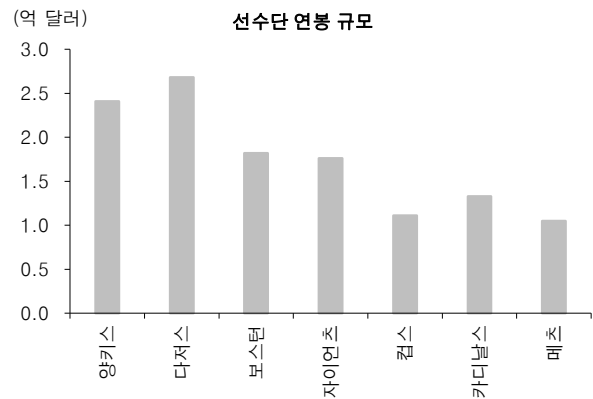
자료: Forbes, 유진투자증권

도표 248 매출액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양키스 구단가치



자료: Forbes, 유진투자증권

도표 249 선수단 연봉과 가치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자료: Forbes, 유진투자증권
주: 구단가치 높은 순서로 정렬



2. 일본 인터넷/게임사들은 야구단 인수에 적극적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게임사들이 야구단 인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닌텐도의 사장인 아마우치 히로시는 닌텐도 미국법인을 통해 1992년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를 인수하였으며, 소프트뱅크 또한 2004년 후쿠오카 다이에호크스를 인수하였고 가장 근래에는 2012년 DeNA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를 인수하며 야구단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처럼 인터넷/게임사들이 야구단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야구와 게임은 모두 광의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마케팅 및 잠재적 고객 확보 측면에서 야구단 인수가 본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250 **일본 기업들의 야구단 인수 사례**

구단	기업	인수년도	(억달러, 억엔)		(억달러) 구단가치(2014년)
			투자액	지분률	
Seattle Mariners	Nintendo	1992	0.8	74%	11
후쿠오카 다이에호크스	소프트뱅크	2004	-	-	-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DeNA	2012	100	69%	-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주: 소프트뱅크의 야구단 인수는 금액 등을 발표하지 않음

도표 251 **SAFECO FIELD에서는 닌텐도 콘솔기기를 이용해 야구정보 확인 및 주문 등 가능**



자료: 게임메카, 유진투자증권



도표 252 이치로의 영입 또한 닌텐도의 아마우치 회장이 추진



자료: 언론, 유진투자증권



3. 모바일게임 진출로 야구단 보유에 따른 시너지가 본격화될 전망

모바일게임은 온라인게임보다 유저층이 넓고 다양하다. 즉 20-30대 남성이 주 고객층인 온라인게임만을 영위하던 때에는 야구단 보유에 따른 시너지가 제한적이었으나, 모바일게임 진출에 따라 더 많아진 잠재 고객들에게 엔씨다이노스(엔씨소프트)라는 기업을 인식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너지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는 엔씨소프트의 야구단 운영에 대해 기업의 수익성을 하락시킨다는 식의 비난은 다소 근시안적이며, 오히려 야구단의 보유가 모바일게임 시장 진출과 창출할 시너지에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253 다양한 마케팅 시너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



자료: 엔씨소프트, 유진투자증권



엔씨소프트(036570.KS)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단위:십억원)	2012A	2013A	2014E	2015E	2016E
유동자산	674	786	1,035	1,205	1,405
현금성자산	563	678	920	1,049	1,263
매출채권	80	83	90	129	117
재고자산	2	1	1	2	2
비유동자산	643	694	695	745	799
투자자산	83	334	346	372	401
유형자산	426	248	245	247	250
무형자산	133	112	105	126	148
자산총계	1,317	1,480	1,731	1,949	2,204
유동부채	236	252	254	268	266
매입채무	23	23	26	37	34
단기차입금	12	3	0	0	0
유동성장기부채	0	0	0	0	0
비유동부채	61	69	102	105	109
사채및장기차입금	12	5	3	3	3
기타비유동부채	49	64	74	77	80
부채총계	296	321	356	373	375
자본금	11	11	11	11	11
자본잉여금	220	221	223	223	223
자본조정	-101	-107	-108	-108	-108
자기주식	-103	-103	-102	-102	-102
이익잉여금	871	1,017	1,234	1,436	1,689
자본총계	1,021	1,159	1,374	1,577	1,829
총차입금	24	9	3	3	3
순차입금(순현금)	-539	-669	-917	-1,046	-1,259
투하자본	439	446	413	484	522

현금흐름표

(단위:십억원)	2012A	2013A	2014E	2015E	2016E
영업활동현금흐름	211	236	300	282	372
당기순이익	154	159	228	277	328
유무형자산상각비	38	35	35	28	30
기타비현금손익가감	-9	-7	64	2	2
운전자본의변동	-0	-16	20	-27	11
매출채권감소(증가)	-29	-9	-8	-39	13
재고자산감소(증가)	-1	1	-0	-1	0
매입채무증가(감소)	-3	1	3	11	-4
기타	32	-9	24	2	2
투자활동현금흐름	-146	-214	-138	-104	-110
단기투자자산처분(취득)	128	-66	-51	-26	-27
장기투자증권처분(취득)	-74	-48	-39	-1	-1
실비투자	-90	-102	-22	-23	-25
유형자산처분	0	0	0	0	0
무형자산감소(증가)	-4	-1	-6	-28	-30
재무활동현금흐름	6	-17	-13	-75	-75
차입금증가(감소)	15	-6	-3	0	0
자본증가(감소)	-12	-12	-10	-75	-75
배당금지급	12	12	12	75	75
현금의 증가(감소)	64	0	150	103	186
기초현금	59	123	123	274	376
기말현금	123	123	274	376	563
Gross cash flow	231	258	326	308	360
Gross investment	275	164	67	104	72
Free cash flow	-44	94	259	204	289

자료: 유진투자증권

손익계산서

(단위:십억원)	2012A	2013A	2014E	2015E	2016E
매출액	754	757	839	1,029	1,217
증가율 (%)	24	0	11	23	18
매출총이익	527	536	609	748	885
매출총이익율 (%)	70	71	73	73	73
판매비와관리비	376	331	331	407	483
증가율 (%)	13	-12	-0	23	19
영업이익	151	205	278	340	402
증가율 (%)	11	36	36	22	18
EBITDA	190	241	313	369	432
증가율 (%)	18	27	30	18	17
영업외손익	32	11	11	15	19
이자수익	18	17	18	20	20
이자비용	1	0	0	0	0
외화관련손익	-3	-2	-1	0	0
지분법손익	7	4	-2	1	1
기타영업외손익	10	-8	-4	-5	-2
세전계속사업손익	183	216	289	356	421
법인세비용	29	58	61	78	93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54	159	228	277	328
증가율 (%)	31	3	43	22	18
당기순이익률 (%)	20	21	27	27	27
EPS	7,121	7,246	10,552	13,030	15,409
증가율 (%)	29	2	46	23	18
완전희석EPS	7,121	7,246	10,552	13,030	15,409
증가율 (%)	29	2	46	23	18

주요투자지표

(단위:십억원)	2012A	2013A	2014E	2015E	2016E
주요지표(원)					
EPS	7,121	7,246	10,552	13,030	15,409
BPS	45,694	52,076	61,990	71,210	82,739
DPS	600	600	3,430	3,430	3,430
밸류에이션(배,%)					
PER	21.1	34.3	16.3	13.2	11.2
PBR	3.3	4.8	2.8	2.4	2.1
PCR	14.3	21.1	11.6	12.3	10.5
EV/ EBITDA	14.6	19.9	9.2	7.4	5.8
배당수익률	0.4	0.2	2.0	2.0	2.0
수익성 (%)					
영업이익률	20.1	27.1	33.2	33.1	33.0
EBITDA이익률	25.2	31.8	37.3	35.9	35.5
순이익률	20.4	21.0	27.1	27.0	27.0
ROE	16.6	14.8	18.2	19.0	19.4
ROIC	33.8	34.0	51.0	59.2	62.3
안정성(%,배)					
순차입금/자기자본	-52.8	-57.8	-66.7	-66.3	-68.8
유동비율	286.1	311.9	407.7	450.3	527.9
이자보상배율	-8.7	-12.5	-15.7	-17.4	-20.0
활동성(회)					
총자산회전율	0.6	0.5	0.5	0.6	0.6
매출채권회전율	9.7	9.3	9.7	9.4	9.9
재고자산회전율	456.3	509.0	746.5	642.9	678.4
매입채무회전율	30.6	33.6	34.6	32.6	34.4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STRONG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20%이상 ~ +50%미만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이상 ~ +20%미만
• REDUCE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0%미만

